



#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박원순·김은영·박은영





#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저 자

박원순, 김은영, 박은영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 원 순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사업보고 2020-03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정인에드 02)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68-5 9359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98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율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산하제한 정책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인구정책이 출산장려 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체가 저출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인구정책의 변화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출생율의 흐름은 반전하지 못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어쩌면 정부가 인구동향의 흐름을 미리 읽고 정책전환을 보다 일찍 시작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초저출생의 심각함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론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함께 변해간다. 2017년에 시작되어 올해 4년차에 이른 우리 연구소의 “행복한 육아문화 정책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모됨, 결혼관, 자녀 양육관, 육아 행복감 등이 계속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COVID-19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육아환경에 있어서도 대규모·장기간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원, 휴교를 비롯해 예전에 일상적으로 누리던 많은 것들이 불가능하게 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현행 육아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방향성에 대한 호감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이 연구가 향후 아동 및 육아정책 방향의 수립, 수정하고 현장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연구진의 개별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0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b>요약</b>	<b>1</b>
<b>I. 서론</b>	<b>5</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2. 1~3차년도 KICCE 여론조사 .....	9
3. 연구내용 .....	10
4. 연구방법 .....	10
<b>II. 2020 KICCE 여론조사 결과 분석</b>	<b>21</b>
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23
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57
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	80
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91
5. 소결 .....	124
<b>III. 1~4차년도 KICCE 여론조사 추이분석</b>	<b>127</b>
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129
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140
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	148
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151
5. 소결 .....	158
<b>IV. 수시 여론조사</b>	<b>161</b>
1. 수시 여론조사의 배경 .....	163
2. 수시 여론조사의 목적 .....	168
3. 1~2차 수시 여론조사의 결과 .....	169
4. 1차 수시 여론조사와 미국 조사의 주요 결과 비교 .....	191
5. 소결 .....	192

---

<b>V. 결론 및 제언</b>	<b>195</b>
1. 결론 .....	197
2. 정책 제언 .....	201
<b>참고문헌</b> .....	<b>207</b>
<b>Abstract</b> .....	<b>211</b>
<b>부록</b> .....	<b>213</b>
1.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 .....	213
2.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 .....	228
3. 수시1차 조사 미국 비교 설문지(NIEER) .....	234

---



## 표 목차

〈표 Ⅰ-4- 1〉 2020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표집 특성 .....	11
〈표 Ⅰ-4- 2〉 2020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내용 .....	13
〈표 Ⅰ-4- 3〉 1~4차년도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내용 .....	14
〈표 Ⅰ-4- 4〉 수시 1차, 2차 여론조사 표본의 특성 .....	18
〈표 Ⅰ-4- 5〉 수시 1차, 2차 여론조사 내용 .....	19
〈표 Ⅱ-1- 1〉 부모됨 관련 동의 정도 .....	23
〈표 Ⅱ-1- 2〉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26
〈표 Ⅱ-1- 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인식 .....	28
〈표 Ⅱ-1- 4〉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인식 .....	30
〈표 Ⅱ-1- 5〉 어머니: 아버지 간의 이상적/실제 양육과 가사의 분담 .....	32
〈표 Ⅱ-1- 6〉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	34
〈표 Ⅱ-1- 7〉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집안 일 (식사 준비, 빨래 등) .....	34
〈표 Ⅱ-1- 8〉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	35
〈표 Ⅱ-1- 9〉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	35
〈표 Ⅱ-1-10〉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자녀의 기관 등·하원 도와주기 .....	36
〈표 Ⅱ-1-11〉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	37
〈표 Ⅱ-1-12〉 조부모의 정기적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	37
〈표 Ⅱ-1-13〉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39
〈표 Ⅱ-1-14〉 영아기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40
〈표 Ⅱ-1-15〉 유아기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41
〈표 Ⅱ-1-16〉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43
〈표 Ⅱ-1-17〉 자녀의 중고등학생 시기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45
〈표 Ⅱ-1-18〉 좋은 부모 정도: 자기 평가 .....	46
〈표 Ⅱ-1-19〉 좋은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 (1순위) .....	48
〈표 Ⅱ-1-20〉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	49

---

〈표 II-1-2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인식과 상황별 스마트폰 사용 정도	51
〈표 II-1-22〉 영유아 부모의 활동 시간 및 만족도	52
〈표 II-1-23〉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근무시간	53
〈표 II-1-24〉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집에 머무는 시간	54
〈표 II-1-25〉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56
〈표 II-2- 1〉 결혼의 필요성	57
〈표 II-2- 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59
〈표 II-2- 3〉 자녀의 필요성	61
〈표 II-2- 4〉 이상적인 자녀의 수	62
〈표 II-2- 5〉 본인 자녀의 필요성	64
〈표 II-2- 6〉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	66
〈표 II-2- 7〉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68
〈표 II-2- 8〉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70
〈표 II-2- 9〉 자녀 양육의 어려움(1순위)	72
〈표 II-2-10〉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	74
〈표 II-2-11〉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호도-경제적 안정 vs 열정에 따른 삶	75
〈표 II-2-12〉 부모역할 선호도-친구같은 부모 vs 권위 있는 부모	77
〈표 II-2-13〉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희망	79
〈표 II-3- 1〉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	81
〈표 II-3- 2〉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83
〈표 II-3- 3〉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월 평균)	84
〈표 II-3- 4〉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86
〈표 II-3- 5〉 자녀 양육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한 인식	88
〈표 II-3- 6〉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	89
〈표 II-4- 1〉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 순위	91
〈표 II-4- 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 순위	93
〈표 II-4- 3〉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인식	95
〈표 II-4- 4〉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	96
〈표 II-4- 5〉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98
〈표 II-4- 6〉 아동학대 관련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	101
〈표 II-4- 7〉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103
〈표 II-4- 8〉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104

---

---

〈표 II-4- 9〉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	106
〈표 II-4-10〉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	108
〈표 II-4-11〉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1순위) .....	110
〈표 II-4-12〉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과 사회 안전도에 대한 의견 ...	111
〈표 II-4-13〉 감염병 유행 시 영유아 교육 보육 우선 지원 정책(1순위) .....	113
〈표 II-4-14〉 코로나로 인한 자녀 양육비 지원 관련 .....	115
〈표 II-4-15〉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유치원, 어린이집) .....	117
〈표 II-4-16〉 실내 시설: 실내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운영 .....	119
〈표 II-4-17〉 옥외 시설: 공원, 광장 등 등의 운영 .....	120
〈표 II-4-18〉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	122
〈표 III-1- 1〉 부모됨 관련 동의 정도 추이(2017, 2019, 2020) .....	130
〈표 III-1- 2〉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	130
〈표 III-1- 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	131
〈표 III-1- 4〉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인식(2019, 2020) ...	132
〈표 III-1- 5〉 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 추이(2017, 2019, 2020) ...	132
〈표 III-1- 6〉 이상적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 추이(2017, 2019, 2020) ..	133
〈표 III-1- 7〉 (영유아 자녀 부모)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 추이 (2017, 2019, 2020) .....	134
〈표 III-1- 8〉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2019, 2020) ...	134
〈표 III-1- 9〉 조부모의 정기적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2019, 2020) .....	135
〈표 III-1-10〉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추이 (2017, 2019, 2020) .....	135
〈표 III-1-11〉 좋은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 추이 (2017, 2019, 2020) .....	136
〈표 III-1-12〉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2019, 2020) .....	137
〈표 III-1-1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2019, 2020) .....	137
〈표 III-1-14〉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 _자녀와 함께 놀이할 때(2019, 2020) .....	138
〈표 III-1-15〉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 _자녀와 함께 식사할 때 (2019, 2020) .....	139
〈표 III-1-16〉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_자녀를 재울 때 (2019, 2020) .....	139
〈표 III-1-17〉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2019, 2020) .....	140

---

---

〈표 Ⅲ-2- 1〉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	141
〈표 Ⅲ-2- 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추이(2017, 2019, 2020) ..	141
〈표 Ⅲ-2- 3〉 자녀존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	142
〈표 Ⅲ-2- 4〉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추이(2017, 2019, 2020) .....	143
〈표 Ⅲ-2- 5〉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추이(2017, 2019, 2020) ..	144
〈표 Ⅲ-2- 6〉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1순위) 추이(2017, 2019, 2020) ..	144
〈표 Ⅲ-2- 7〉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한 인식 추이 (2017, 2019, 2020) .....	145
〈표 Ⅲ-2- 8〉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호도 추이(2017, 2019, 2020) -경제적 안정 vs 열정에 따른 삶 .....	146
〈표 Ⅲ-2- 9〉 부모역할 선호도 추이(2017, 2019, 2020) -친구같은 부모 vs 권위 있는 부모 .....	147
〈표 Ⅲ-2-10〉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희망(2019, 2020) .....	147
〈표 Ⅲ-3- 1〉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에 대한 추이(2017, 2019, 2020) ..	148
〈표 Ⅲ-3- 2〉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	149
〈표 Ⅲ-3- 3〉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추이 (2017, 2019, 2020) .....	149
〈표 Ⅲ-3- 4〉 자녀 양육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인식 추이(2019, 2020) .....	150
〈표 Ⅲ-3- 5〉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 .....	151
〈표 Ⅲ-4- 1〉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 (2017~2020) .....	151
〈표 Ⅲ-4- 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 (2017~2020) .....	152
〈표 Ⅲ-4- 3〉 아동학대 관련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인식 추이 (2017, 2019, 2020) .....	152
〈표 Ⅲ-4- 4〉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	153
〈표 Ⅲ-4- 5〉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추이 (2017, 2019, 2020) .....	154
〈표 Ⅲ-4- 6〉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추이 (2017~2020) .....	154
〈표 Ⅲ-4- 7〉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추이(2017~2020) .....	155
〈표 Ⅲ-4- 8〉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 (1순위)(2018~2020) .....	155

---

---

〈표 Ⅲ-4- 9〉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20) …	156
〈표 Ⅲ-4-10〉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20) ……	156
〈표 Ⅲ-4-11〉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	157
〈표 Ⅲ-4-12〉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추이 (2017~2020) ……	157
〈표 Ⅲ-4-13〉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추이 (2017, 2019, 2020) ……	158
〈표 Ⅳ-3- 1〉 지난 한 주간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횟수 ……	170
〈표 Ⅳ-3- 2〉 자녀 연령별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	171
〈표 Ⅳ-3- 3〉 자녀 수에 따른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	171
〈표 Ⅳ-3- 4〉 응답자 성별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	172
〈표 Ⅳ-3- 5〉 응답자 연령에 따른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	173
〈표 Ⅳ-3- 6〉 지역별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	173
〈표 Ⅳ-3- 7〉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인쇄된 책읽기 시간 …	174
〈표 Ⅳ-3- 8〉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전자책 읽기 시간 …	175
〈표 Ⅳ-3- 9〉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실내 놀잇감 시간 …	176
〈표 Ⅳ-3-10〉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미술 시간 ……	176
〈표 Ⅳ-3-11〉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바깥놀이 시간 …	177
〈표 Ⅳ-3-12〉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음악 시간 ……	178
〈표 Ⅳ-3-13〉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TV 시청 시간 …	179
〈표 Ⅳ-3-14〉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동영상 시청 시간 …	179
〈표 Ⅳ-3-15〉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ICT 게임 시간 ……	180
〈표 Ⅳ-3-16〉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학습용 앱 사용 시간 ……	181
〈표 Ⅳ-3-17〉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화상통화 사용 시간 ……	182
〈표 Ⅳ-3-18〉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ICT 기타 사용 시간 ……	182
〈표 Ⅳ-3-19〉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자녀의 취침 시각 ……	183
〈표 Ⅳ-3-20〉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자녀의 기상 시각 ……	185
〈표 Ⅳ-3-21〉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자녀의 수면 시간 ……	186
〈표 Ⅳ-3-22〉 자녀의 가정내 양육,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실태의 변화 …	188

---

---

〈표 IV-3-23〉 유아의 가정내 양육,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실태의 변화 ..	189
〈표 IV-3-24〉 영아의 가정내 양육, 혹은 어린이집 이용 실태의 변화 .....	189
〈표 IV-3-25〉 유아(3~6세)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원격 지원 경험 여부의 변화 ...	190
〈표 IV-3-26〉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격 활동에 소요된 시간의 변화 .....	191
〈표 IV-4- 1〉 한국(수시 1차 조사)과 미국의 어제 하루 활동한 시간의 차이검증 ...	191

---

---



## 그림 목차

[그림 IV-1-1]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구성 .....	166
[그림 IV-3-1] 자녀 수에 따른 취침 시각의 변화 .....	184
[그림 IV-3-2] 자녀 연령에 따른 수면 시간의 변화 .....	187
[그림 IV-3-3] 자녀 수에 따른 수면 시간의 변화 .....	187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육아정책이란 좁게는 영유아와 이들의 부모와 관련된 정책이나 보다 넓게 육아정책을 확장하면 임신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 그리고 이들의 가족 친지와 이웃들까지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며, 이들 모두가 관심을 갖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조부모, 예비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직접 파악해야 함.
- 단기적인 정책 요구도 뿐만 아니라 반복된 정기 조사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추세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육아문화를 제안하고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나. 1~3차년도 KICCE 여론조사

- 이러한 육아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직간접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연구를 기획 및 수행하고 있음.
  -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고정문항과 변동문항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국민의 연령, 소득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의식 및 태도의 추세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다. 연구 내용

-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됨, 결혼 및 자녀 양육관, 육아 행복감, 육아정책의 인식 방향에 관한 견해가 연령, 결혼 여부 및 자녀의 유무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함.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내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인식과 같은 사안에 대한 부모의 인식, 그리고 가정내 영유아 학습 실태에 관한 부모들의 최근 인식의 변화를 조사함

## 라. 연구 방법

- 육아관련 조사 내용, 조사 문항 구성을 위해 관련 문헌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육아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 요구를 수렴하고, 이슈 및 현안 관련 인식을 분석함. 또한 영유아 부모 대상 수시조사를 통해 감염병 관련 육아 실태를 추적 조사함.

## 2. 2020 KICCE 여론조사 결과 분석

- 부모됨에 대한 여론은 주요한 배경변인별로 부모-자식 관계에 관한 가치관이 구조적인 혹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각기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는지 그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한 차이가 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되어야 함.
- 본 장의 분석은 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의 규모,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소득, 학력, 고용형태별로 이루어졌음.
  - 이러한 배경변인에 의한 분석을 통해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남성, 고연령 응답자, 소도시 거주자, 기혼, 자녀가 있는 부모, 소득이 낮은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등은 상대적으로 전통적 부모됨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설문 내용에 따라 조금씩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일반화하여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 3. 1~4차년도 KICCE 여론조사 추이분석

-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있어서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비중이 늘어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한 결혼 및 출산의 기피는 저출산의 문제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임을 알게 함.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난 여파가 양육의 어려움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됨.

-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꾸준히 부모가 우선이고 국가가 지원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갈수록 그 외의 의견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늘어가고 있는 점은 유의할만함.
-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갈수록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음. 오랫동안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을 화두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의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며, 정책수요자가 무력감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올해 특히 정부의 비용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대응 비용지원 정책을 경험한 결과로 추정.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호감도가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인지는 추후 더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꾸준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4. 수시 여론조사

### 가. 수시 여론조사의 배경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영유아 보육, 교육, 가정 내 육아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연초부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대응 정책을 실시.

### 나. 수시 여론조사의 목적

- 수시 여론조사는 감염병 그 자체에 대한 기관의 대응과 돌봄 공백에 대한 기존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이어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육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 대한 실태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음.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의 협력기관인 NIEER와 공통문항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음.

## 다. 수시 여론조사의 결과

-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제공되던 서비스지원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제한되어 가정에서의 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6월에 비하여 11월에 영유아의 책임기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음, 영아의 경우 만들기 숫자 및 글자 학습이 줄었으나, 반면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시간도 줄었으며, 바깥놀이 시간도 소폭 상승함.
- 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영유아에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을 포함해 가정에서 다양한 활동시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도 다양한 원격지원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원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5. 결론 및 제언

### 가. 결론

- 2020 대국민 육아정책 여론조사 결과와 1~4차의 비교 결과를 부모됨, 결혼 및 자녀 양육관, 육아 행복감,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의 4가지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감염병 상황에 대한 영유아 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 적절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 가정 내 양육을 돕기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 등에 대한 여론을 제시함.

### 나. 정책 제언

-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부모의 양육역량 제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 생애주기에 따른 육아지원정책 체계화, 복지국가 실현을 통한 저출산 극복, 비용지원정책의 확대, 돌봄 인프라 확충, COVID-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함.

# I

---

# 서론

---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1~3차년도 KICCE 여론조사
- 03 연구 내용
- 04 연구 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육아정책이란 좁게는 영유아와 이들의 부모와 관련된 정책이다. 그러나 보다 넓게 육아정책을 확장하면 임신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 그리고 이들의 가족 친지와 이웃들까지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며, 이들 모두가 관심을 갖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혼인 건수는 2011년 32만 900건에서 2017년 역대 최저치인 26만 4000건으로 급속히 감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 시기가 점점 미뤄지고 있는 추세이다(도남희·문무경·박상신, 2018: 131). 또한 최근 한 연구는 현재의 육아정책 이슈에 관한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하여 유아교육 영역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고령화 사회”, “심화”, “심각성”, “인식개선”임을 밝혔는데, 이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연결되어 국민들이 저출산의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창현·김나영·이유진, 2018).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고 2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중략)... 주거, 일자리,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관계부처 합동, 2015, 도남희 외, 2018: 132에서 재인용)”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요자의 평가는 대부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최윤경·김나영·이혜민, 2019). 특히 최윤경 외(2019)는 일·가정 균형에 대한 부문에서는 전문가의 평가조차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판단을 받았으며 정책 수요자의 경우

일·가정 균형에 대한 부문을 가장 미흡한 과제로 꼽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육아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새로운 정책의 발굴, 현안에 대한 해결 전략의 모색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문무경·김은설·최혜선, 2013).

도남희·최정원·박은영·소마 나오코·이연화·김병철·자처하오(2019)는 연구를 통해 우리의 육아정책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육아정책의 수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우리의 육아정책의 개선 과제로 먼저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통합,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이에 따른 문제, 돌봄 시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등을 들었고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여건 개선도 더불어 중요하다고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유해미·이윤진·김영옥·김진성·손인숙·송다영·안현미·최영, 2019). 한편 이정원·김나영·김미곤·김영옥·김은실·손인숙·양옥승·정재훈·천현숙·최영·김문정(2018)은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육아정책은 육아에 대한 젠더 감수성 개선, 궁극적으로 아동 중심의 정책으로의 자리매김, 육아정책이 저출산 대응 수단이 아닌 육아정책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 육아정책에 사회의 역할이 더 부각되어야 함, 육아정책이 어린이집, 유치원 중심을 벗어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도와야 함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의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이 과연 부모의 인식에서도 드러나는 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윤진·양미선·김문정(2018)은 육아정책의 다양한 수요자들을 유목화 하여 성별, 결혼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직업, 소득, 주거 형태, 지역 등을 육아정책 수요자를 구분하기 위한 주요한 변인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조부모, 예비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직접 파악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정책 요구도 뿐만 아니라 반복된 정기 조사를 통하여 중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육아문화를 제안하고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1~3차년도 KICCE 여론조사

이러한 육아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직간접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연구를 기획 및 수행하고 있다. 조사 방법은 2017년부터 모두 온라인 조사로 실시해 왔다. 조사 대상은 전국 15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문항은 고정문항과 변동문항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연령, 소득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의식 및 태도의 추세변화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그 중 4차년도의 연구이다. 2017년도에 이루어진 1차년도에는 육아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조사 문항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젊은 층은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동시에 부모됨에 있어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자녀양육 및 가사에 있어 공평한 부담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사 대상자 가정에서는 부부간 불평등한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훈·이재희·이혜민, 2017). 또한 국민들은 정부에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서비스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나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으며, 0~5세 전계층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적 배분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동훈 외, 2017).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에 따라 단기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 가치관은 제외하고 육아 관련 어려움과 고충, 그리고 최근 정책 관련 의견을 묻는 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 출산계획이 대부분 없었고, 주된 이유는 연령과 양육비 부담으로 나타났고, 자녀 돌봄 지원정책의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보편적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다소 낮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질 제고를 서비스 지원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되어야 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강화를 제안하였다(최은영·최효미·이혜민, 2018).

3차년도(2019년)에는 이전 1차년도의 조사를 이어 받아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여론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이를 통해 육아 및 육아정책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과 여론을 조사하였다. 정책적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각 정책에 대한 수요자인 국민의 인식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김동훈·김문정, 2019).

### 3.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됨, 결혼 및 자녀 양육관, 육아 행복감, 육아정책의 인식 방향에 관한 견해가 연령, 결혼 여부 및 자녀의 유무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였다.

둘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내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인식과 같은 사안에 대한 부모의 인식, 그리고 가정내 영유아 학습 실태에 관한 부모들의 최근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 4. 연구방법

#### 가. 문헌분석

육아관련 조사 내용, 조사 문항 구성을 위해 관련 문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1~3차년도 KICCE 육아정책연론조사 보고서와 KEDI POLL 보고서, 등의 관련 연구물의 내용과 문항을 비교하여 문항 구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정책수요자의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 여론조사를 위하여 먼저 육아정책과 관련한 선행 연구 및 정부 유관 부처의 정책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육아정책 현안 주제 선정을 위한 관련 계획 및 자료 등도 수시 조사를 위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육아정책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코로나 대응 관련 수시 여론조사를 위하여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분석하였다.

## 나.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대국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이루어졌다. 먼저 정기조사는 2020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육아관련 정책 및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육아정책이나 육아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 요구를 수합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슈 및 현안 관련 문항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정기조사의 조사대상은 육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지역규모, 영유아 자녀 유무를 고려하여 3,091명을 표집하였다. 연령은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상 20대 미만과 65세 이상의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성별로는 남녀 비율을 거의 반반씩 표집하였고,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중소도시가 약 30%씩 유사한 비율로 표집되었다. 결혼 유무별로는 기혼자가 80% 이상이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미혼이지만 일부(1.5%)는 이혼, 별거,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였다. 자녀 여부로는 미혼자를 포함해 전체 28.4%가 자녀가 없었으며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71.6%였다. 자녀가 있는 부모 중 영유아 부모의 비율은 65.3%였으며 자녀는 있지만 영유아 자녀가 없는 부모의 비율은 34.7%였다. 가구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380만원~549만원을 기준으로 하위 1/3, 중간 1/3, 그리고 상위 1/3이 나뉘었다. 즉 월 평균 가구소득 380만원 이하가 약 1/3이었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 380만원~549만원이 약 1/3, 그리고 월평균 550만원 이상이 전체의 1/3이었다. 학력별로는 전체 76%가 대졸이었으며 12.5%는 고졸 이하, 그리고 11.5%는 대학원 졸업 이상이었다. 고용형태별로는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약 63.5%였다. 온라인으로 표집한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4-1〉 2020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표집 특성

	구분	사례수	%
성별	남자	1543	49.9
	여자	1548	50.1
연령별	20대 이하	82	2.7
	30대	1729	55.9
	40대	1095	35.4
	50대 이상	185	6.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사례수	%
거주지별	서울특별시	882	28.6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853	27.7
	중소도시	1149	37.3
	군(읍면지역)	200	6.5
결혼유무	미혼	527	17.0
	배우자 있음(기혼, 사실혼)	2517	81.4
	배우자 없음(이혼, 별거, 사망)	47	1.5
자녀유무	자녀 없음	878	28.4
	1명	1178	38.1
	2명 이상	1035	33.5
영유아자녀 유무	자녀 없음	878	28.4
	비영유아 부모	767	24.8
	영유아 부모	1446	46.8
월평균 가구소득별	379만원 이하	1029	33.3
	380~549만원	1012	32.7
	550만원 이상	1050	34.0
맞벌이 유무	외벌이	1072	34.7
	맞벌이	1415	45.8
	부부 둘다 비경제활동	30	1.0
	미혼/배우자 없음 경제활동	491	15.9
	미혼/배우자 없음 비경제활동	83	2.7
학력별	고졸 이하	387	12.5
	대졸	2348	76.0
	대학원 졸 이상	356	11.5
고용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1964	63.5
	불규칙적 출퇴근 등	1127	36.5
종사상 지위	고용주/자영업	237	7.7
	상용근로자	1930	62.4
	임시/일용/무급	222	7.2
	무직/모름	702	22.7
직업별	관리자	192	6.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34	10.8
	사무 종사자	1275	41.2
	서비스/판매 종사자	356	11.5
	농림어업/기능/장치 종사자	146	4.7
	단순 노무 종사자	75	2.4
	전업 주부	451	14.6
무직 기타	262	8.5	
전 체		3091	100.0

육아 관련 정책 여론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육아문제가 직접적으로는 영유아의 부모, 좀 더 넓게는 조부모, 예비부모 등으로 국한될 수도 있으나,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육아문화 등은 모든 국민이 함께 형성하고 그 영향을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0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의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에 제시되어 있다.

〈표 I-4-2〉 2020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기초사항	본인	• 성별, 거주지, 거주지 유형, 출생연도, 혼인 여부
	자녀	• 자녀 유무, 자녀의 연령, 성별, 이용기관 및 소속 • 미취학 영유아 연령 및 이용기관
부모됨	부모됨에 대한 인식	• 부모됨 관련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4점 척도) • 부모됨에 대한 상반된 견해 선택 • 자녀의 경제적인 지원 시기, 양육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
	역할에 대한 인식	• 부모 역할 관련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4점 척도) • 아버지와 어머니의 적절한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제 자녀양육과 가사 분담 비율 • 자녀 양육 활동의 주 역할자 •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의 필요성 • 양육시기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좋은 부모, 혹은 좋은 부모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좋은 부모 역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 체벌에 대한 인식 • 자녀양육과 돌봄 동기 수행의 어려움 정도
	스마트폰 및 시간 사용	• 자녀와 함께 놀이하거나 식사 시, 재울 때 스마트폰 사용 정도 • 근무시간, 집에 머무는 시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결혼 및 자녀 양육관	결혼관	•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인식 • 결혼 관련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4점 척도) • 이상적인 자녀 수 • 자녀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및 이유
	양육관	• 자녀를 키우는 것 관련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4점 척도) •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 • 자녀 양육이나 부모 성향에 대한 상반된 견해 선택 • 자녀에게 기대하는 최종학력
육아행복감	행복감	•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 • 육아행복감 관련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4점 척도)
	책임 및 어려움	•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 • 자녀 양육의 책임

구분		조사 내용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	육아정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양육에서 가장 힘든 시기</li> <li>•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li> <li>• 육아정책의 우선 순위</li> <li>• 육아 지원의 우선순위</li> <li>•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대한 인식</li> <li>• 국공립 기관 40% 추진에 대한 인식</li> <li>•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li> <li>•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지원</li> <li>•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사교육 이유</li> <li>•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 여부</li> <li>• 양육비용 지원을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여부 및 이유</li> <li>• 정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도 및 우선 지원 정책</li> <li>•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이유</li> <li>• 정부의 출산육아비용 지원정책이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li> <li>•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가장 큰 불안 요인</li> </ul>
	육아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li> <li>• 코로나로 인한 양육비 지원의 절절성</li> <li>• 양육비 지원의 우선순위 대상 및 적정 지원 금액</li> <li>•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초중등과 비교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엄격성</li> <li>• 코로나로 인하여 실내 시설과 옥외 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li> <li>• 현재 0~5세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평가</li> </ul>
개인 배경	본인 및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 근무 형태, 종사상 지위, 직업</li> </ul>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소득</li> </ul>

조사방법은 전문 조사기관에 사전에 등록된 온라인 패널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접속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메일, 문자, 유선통화 등을 통해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진행하였다.

〈표 I-4-3〉 1~4차년도 대국민 정기 여론조사 내용

영역	문항 내용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3차 (2019)	4차 (2020)
기초 자료	성별	응답자 성별	○	○	○	○
	거주지	지역 규모별 구분	○	○	○	○
	연령	응답자 출생년도	○	○	○	○
	혼인 여부	혼인 여부	○	○	○	○
	자녀 일반	자녀 여부	○	○	○	○
		자녀 수 및 연령	○	○	○	○

영역	문항 내용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3차 (2019)	4차 (2020)
	사항	영·유아 자녀일 경우, 재원하는 종일제 기관 종류	○	○	○	○
부모됨	부모됨 인식 및 역할	부모됨에 대한 의견	○	-	○	○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일반인식	○	-	○	○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시기	○	-	○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부담 시기	-	-	●	○
		부모 취업과 자녀양육	○	-	○	○
	부모 역할의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정도 및 적절수준 의견	○	-	○	○
		가사 및 양육 실제 분담 정도	○	-	○	○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된 담당	-	-	●	○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해 인식	-	-	●	○
		자녀양육시기별 부모의 바람직한 경제활동 상태	○	-	○	○
		좋은 부모 인식 여부	○	-	○	○
		과거로 돌아간다면 자녀를 낳는 시기	○	-	-	-
		좋은 부모 가능성 전망	○	-	○	○
		좋은 부모 필요요건	○	-	○	○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	-	●	○
	육아 현황	일·가정 양립 어려움	-	-	●	○
		영유아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	-	-	●	○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과 인식	-	-	●	○
		양육 효능감	-	●	-	-
	결혼 및 자녀 양육관	양육 스트레스	-	●	-	-
사회적 관계망		-	●	-	-	
육아 인프라		-	●	-	-	
결혼 가치관		결혼 필요성	○	-	○	○
결혼과 출산		결혼과 출산의 관계	○	-	○	○
적정 자녀 수 및 성 선호도		일반적인 이상 적정 자녀 수	○	○	○	○
		자녀 성 선호도	○	○	○	○
자녀에 대한 필요성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의견	○	-	○	○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	-	○	○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	-	○	○
양육 태도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	○	○	
자녀 양육 어려움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	-	○	○	
자녀 교육관	자녀교육의 성공에 대한 관점	○	-	○	○	
	자녀양육 선호도	○	-	○	○	
	자녀의 적정 교육수준	-	-	●	○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영역	문항 내용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3차 (2019)	4차 (2020)
저출산	개인 출산 관련	추가 출산 계획 및 미계획 시 이유	-	●	-	-
	저출산 정책	저출산 관련 국가 심각성 인지 여부	-	●	-	-
육아 행복감	육아 행복감 및 가치	자녀양육 즐거움	○	-	○	○
		양육 및 육아의 가치 및 자신감	○	-	○	○
	양육의 경제적 가치	영유아 육아의 경제적 가치 환산 금액(월 평균)	○	-	○	○
		양육의 책임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	-	○
	자녀양육이 어려운 시기		-	-	●	○
사회적 관심	노키즈존 인식	-	-	●	○	
육아 정책 인식 및 방향	육아 정책 우선 순위	정부의 육아정책 설계 우선순위	○	○	○	○
		정부의 육아 재정지원 설계 우선순위	○	○	○	○
	유아 교육 보육 정책 관련 인식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인식	-	-	-	●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	-	-	-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	-	-	●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의견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	○	○	-	-
		유치원·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사항	○	○	-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	○	-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	○	○	-	-
	비용 지원 정책	보육료·유아학비 등 육아비용 지원정책 인지 여부	○	○	-	-
	아동 학대 관련 의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방안	○	-	○	○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영유아 사교육 근본 원인	○	-	○	○
		사교육에 대한 미래 전망	○	-	○	○
	세금 추가 부담 의사	육아정책 관련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	○	○	○	○
추가세금 부담에 대한 반대 이유		○	○	○	○	

영역	문항 내용	상세내용	1차 (2017)	2차 (2018)	3차 (2019)	4차 (2020)
육아 지원 정책 희망		현재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	○	-	-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의견	-	●	○	○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바라는 정책	-	●	○	○
		직장에서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의견	-	●	-	-
일· 가정 양립 의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	○	-	-
		무상보육·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	○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반대 시 이유	○	○	○	○
무상 보육· 교육 정책 만족도		양육수당지원 반대 시 이유	○	○	○	○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예상 정책효과	○	○	-
추가 출산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추가 출산 영향 여부	○		-	○	○
신규 정책 관련		다자녀 가구 관련 정책 의견	-	●	-	-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 금지 관련 의견	-	●	-	-
아동 수당 도입에 관한 의견		아동수당 도입과 출산율과의 관계	○	○	-	-
		아동수당 도입 적정 금액 및 적정 연령	○	○	-	-
		아동수당 적정 대상 의견	-	○	-	-
보육료 지불 방식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불하는 형태에 대한 인식	○	○	-	-
		안전한 사회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안전한 사회 인식 정도	○	○	○
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 불안 요인	○	○	○	○
		감염병 유행 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 정책	-	-	-	●
전반적 만족도		육아지원정책의 전반적 만족도	○	-	○	○

자료: 1)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pp. 187-189.

2) 최은영·최효미·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pp. 16-17.

3) 김동훈·김문정(2019).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Ⅲ). 육아정책연구소. pp. 24-26.

## 다. 영유아 부모 대상 수시 여론조사

한편 수시조사는 연구 대상에 있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조사와 달리 영유아 부모를 특정해 조사하였다. 특히 2020년 6월과 11월에 실시한 수시조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관련 육아 실태, 특히 가정에서의 육아와 기관에서 가정내 육아를 어떻게 원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간을 두고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2020년 신종 코로나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함으로써 국내 사례뿐 아니라 미국의 협력 기관인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NIEER)와 공통문항을 설문하고 양국의 가정 내 육아 실태를 비교하였다.

수시 1차 여론조사는 2020년 6월 18~19일 양일간 여론조사 업체에 미리 등록된 온라인 패널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총 767명의 유효한 사례를 표집하였고, 그 중 영아부모는 212명, 유아부모는 555명이었다. 영아와 유아 자녀가 모두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생년과 관계없이 생일과 생일이 빠른 자녀를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한 부모 중 영아 부모는 전체 부모의 27.6%였으며 유아 부모는 72.4%였다. 자녀가 1명인 응답자는 54.9%였고 2명 이상인 응답자는 45.1%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44.3%, 여성이 55.7%였다.

수시 2차 여론조사는 1차 여론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의 기간은 2020년 11월 12~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패널을 통하여 1차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 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 중 영아부모 135명, 유아부모 383명이 2차 조사에 참여하여 유효 사례를 총 518명 표집하여 재응답률은 67.5%를 기록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자녀의 생일이 빠른 경우를 기준하여 영아 부모는 전체의 26.1%, 유아 부모는 73.9%였다. 응답자중 남성은 최종적으로 45.7%, 여성은 54.3%였다. 수시 1차 여론조사와 2차 여론조사 표본의 특성은 다음의 표에 요약하였다.

〈표 I-4-4〉 수시 1차, 2차 여론조사 표본의 특성

구분		1차 사례수	%	2차(최종) 사례수	%
전 체		767	100.0	518	100.0
자녀 연령	영아(0~2세)	212	27.6	135	26.1
	유아(3~6세)	555	72.4	383	73.9

구분		1차 사례수	%	2차(최종) 사례수	%
자녀수	1명	421	54.9	289	55.8
	2명	290	37.8	193	37.2
	3명 이상	56	7.3	36	6.9
성별	남성	340	44.3	237	45.7
	여성	427	55.7	281	54.3
응답자 연령	20대	24	3.1	12	2.3
	30대	543	70.8	367	70.8
	40대 이상	200	26.1	139	26.8
지역	서울수도권	461	60.1	316	60.9
	충청권	72	9.4	52	10.0
	호남권	49	6.4	33	6.3
	영남권	185	24.1	118	22.8

수시 여론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의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에 제시되어 있다.

〈표 I-4-5〉 수시 1차, 2차 여론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기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 거주지, 출생연도, 자녀 수, 자녀 소속, 출생원과 출생일이 가장 빠른 취학 전 자녀의 출생연도 및 출생월</li> </ul>
조사 대상 자녀 최근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답자의 보호자나 양육자 여부</li> <li>자녀에게 책을 읽어 준 횟수</li> <li>최근 1주일 동안 이야기 들려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글자나 숫자 가르치기, 미술 및 공작 활동 횟수</li> <li>최근 1주일 동안 그림책 읽기나 듣기, TV 시청, DVD나 비디오 시청, 동영상 시청, 비디오 게임, 음악 연주나 감상, 미술 및 공작 활동, 장난감 등을 사용한 놀이, 바깥놀이 횟수</li> <li>어제 하루 동안 인쇄된 책 읽기, 전자책 읽기, 장난감 놀이, 그리기나 만들기, 바깥놀이, 음악 연주나 감상, TV 시청, 동영상 시청, 게임, 교육용 프로그램이나 앱 사용, 화상통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활동, 언급된 활동을 하지 않음 여부</li> <li>어제 하루를 기준으로 함께 한 사람</li> <li>어제 하루 동안 인쇄된 책 읽기, 전자책 읽기, 장난감 놀이, 그리기나 만들기, 바깥놀이, 음악 연주나 감상, TV 시청, 동영상 시청, 게임, 교육용 프로그램이나 앱 사용, 화상통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활동, 언급된 활동을 하지 않음 시간(분)</li> <li>최근 1주일 동안 평균 취침 시간, 기상 시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li> <li>조사대상 자녀의 소속 기관</li> <li>코로나 이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 경험 여부: 필요 시 교사와 연락할 방법 안내, 문서 안내, 활동지 제공,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활동 제공, 교사와 소통, 녹화된 동영상 강좌 제공, 음식물 제공, 기타</li> <li>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원격 강의나 활동 제공 여부</li> <li>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출석을 대체하기 위한 숙제 여부, 숙제 빈도, 숙제 소요 시간, 숙제 제출 방법</li> </ul>



# II

## 2020 KICCE 여론조사 결과 분석

- 0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0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0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 0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05 소결



## II. 2020 KICCE 여론조사 결과 분석

### 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가. 부모됨의 인식 및 가치

〈표 II-1-1〉은 부모됨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로, 조사대상에게 부모됨과 관련된 7가지의 문장을 제시하고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표 II-1-1〉 부모됨 관련 동의 정도

단위: 점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전체	74.28	79.90	79.60	71.78	53.50	65.37	72.52
성별							
남자	75.70	76.67	77.71	72.65	52.24	68.98	70.19
여자	72.87	83.12	81.48	70.91	54.76	61.78	74.85
<i>t</i>	3.42**	-8.99***	-5.31***	2.21*	-2.84**	8.36***	-5.07***
연령							
20대 이하	69.51	78.05	79.67	69.11	51.63	64.23	76.02
30대	73.34	80.86	80.80	69.50	54.19	63.16	73.51
40대	76.35	78.69	78.30	74.22	52.69	68.37	71.08
50대 이상	72.97	78.92	76.04	79.82	52.61	68.83	70.27
<i>F</i>	5.29**	2.98*	5.70**	19.69***	1.08	11.87***	2.3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72.64	78.99	78.87	71.05	55.06	64.55	71.77
광역시/특별자치시	73.82	79.48	79.21	70.93	51.86	64.17	71.28
중소도시	75.72	81.03	80.59	72.76	53.90	67.13	73.86
군(읍면지역)	75.00	79.67	78.67	73.00	51.17	64.17	74.00
<i>F</i>	3.17	1.92	1.61	1.72	3.13	3.24	2.19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b>혼인 여부</b>							
미혼	62.18	82.48	82.73	72.61	51.80	57.43	65.97
배우자 있음	76.96	79.33	78.92	71.50	53.82	67.10	74.02
배우자 없음	66.67	81.56	80.85	77.30	55.32	61.70	65.96
<i>F</i>	98.04***	5.49**	8.20***	2.07	1.58	36.14***	23.33***
<b>자녀 유무</b>							
자녀 무	64.54	80.83	82.38	72.51	52.35	57.74	67.62
1명	77.82	79.63	78.44	71.08	54.16	67.69	74.73
2명 이상	78.52	79.42	78.55	71.95	53.72	69.21	74.17
<i>F</i>	118.11***	1.33	12.21***	1.12	1.40	64.54***	22.89***
<b>영유아유무</b>							
자녀 무	64.54	80.83	82.38	72.51	52.35	57.74	67.62
영유아자녀 있음	78.23	79.92	78.49	78.27	52.98	69.97	73.01
영유아자녀 없음	78.10	79.32	78.49	67.89	54.47	67.57	75.24
<i>F</i>	117.83***	1.52	12.20***	58.72***	2.23	66.03***	24.71***
<b>월 가구 소득</b>							
379만원이하	70.46	79.66	79.43	72.14	51.67	63.72	70.85
380~549만원	75.92	79.74	79.12	71.71	53.95	66.73	73.45
550만원이상	76.44	80.29	80.22	71.49	54.86	65.68	73.27
<i>F</i>	21.65***	0.30	0.85	0.23	4.58*	4.09*	3.31*
<b>맞벌이 여부</b>							
외벌이	77.30	79.20	78.51	72.82	52.33	67.41	74.75
맞벌이	76.73	79.51	79.34	70.44	55.12	66.81	73.45
부부 비경제활동	75.56	75.56	73.33	74.44	45.56	70.00	74.44
미혼 경제활동	62.86	81.94	82.28	72.30	53.43	58.04	66.46
미혼 비경제활동	60.64	85.14	84.34	77.11	44.18	56.22	63.05
<i>F</i>	48.85***	3.47**	5.07***	3.34*	5.88***	18.02***	12.39***
<b>학력</b>							
고졸 이하	72.44	79.50	79.93	74.85	50.82	64.34	70.03
대졸	74.11	79.63	79.59	71.02	53.98	65.56	72.69
대학원 졸 이상	77.43	82.12	79.31	73.41	53.28	65.26	74.16
<i>F</i>	4.65*	2.43	0.09	6.16**	2.73	0.42	2.61
<b>고용 형태별</b>							
규칙적 출퇴근	74.51	79.01	79.31	71.81	54.06	66.53	71.67
불규칙적 출퇴근 등	73.88	81.46	80.09	71.72	52.53	63.35	74.00
<i>t</i>	0.72	-3.25*	-1.06	0.10	1.65	3.52***	2.43*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0점)-전적으로 동의함(100점)'으로 환산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먼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성별로 남자가 더 높은 만족도를,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을 제외하고 연령이 많을수록, 혼인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을 때, 소득에 따라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학력이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성별에 있어 앞서 오는 반대로 여자의 경우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혼인상태에서는 오히려 미혼이 더 동의도가 높았다.

세 번째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성별로는 여자가, 자녀는 없을 경우,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동의도가 높았다.

네 번째로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남자가,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 연령별로는 영유아 자녀의 부모가, 맞벌이보다는 외벌이가 동의도가 높았다.

다섯 번째로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의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전반적인 동의도가 낮기는 하였지만, 성별로는 여자의 동의도가 높았고,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섯 번째로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성별로 남성의 동의도가, 연령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인 경우보다 높았고,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형태는 규칙적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 동의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동의도가 높았고 고용형태별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동의도가 높았다.

한편, 연구진은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기위하여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빈도분석과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소극적 역할에 동의

하는지, 아니면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적극적 역할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전체적으로는 소극적 역할에 67.9%가 동의하였지만, 혼인여부에 있어서 미혼과 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특히 부모의 소극적 역할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한편 자녀의 역할에 있어서는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고 전통적인 봉양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갚아야 한다는 의견에 전체 74.7%가 동의하여 높은 비율로 부모님께 갚을 것에 동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배경변인별로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의 양육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표 II-1-2〉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수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	
전체	67.9	32.1	74.7	25.3	(3091)
성별					
남자	66.6	33.4	73.1	26.9	(1543)
여자	69.1	30.9	76.4	23.6	(1548)
$\chi^2(df)$	2.210(1)		4.329*(1)		
연령					
20대 이하	59.8	40.2	80.5	19.5	(82)
30대	68.4	31.6	73.1	26.9	(1729)
40대	67.4	32.6	76.8	23.2	(1095)
50대 이상	69.7	30.3	75.1	24.9	(185)
$\chi^2(df)$	3.07(3)		6.365(3)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67.1	32.9	74.8	25.2	(882)
광역시/특별자치시	67.3	32.7	73.4	26.6	(853)
중소도시	69.0	31.0	75.0	25.0	(1149)

구분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수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	
군(읍면지역)	67.5	32.5	78.5	21.5	(200)
$\chi^2(df)$	1.06(3)		2.376(3)		
혼인 여부					
미혼	73.4	26.6	54.5	45.5	(527)
배우자 있음	66.5	33.5	78.9	21.1	(2517)
배우자 없음	76.6	23.4	76.6	23.4	(47)
$\chi^2(df)$	11.14**(2)		138.428*** (2)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1.9	28.1	59.5	40.5	(878)
1명	66.1	33.9	79.9	20.1	(1178)
2명 이상	66.5	33.5	81.8	18.2	(1035)
$\chi^2(df)$	9.00*(2)		152.744*** (2)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71.9	28.1	59.5	40.5	(878)
영유아자녀 없음	67.5	32.5	81.0	19.0	(767)
영유아자녀 있음	65.6	34.4	80.7	19.3	(1446)
$\chi^2(df)$	9.80**(2)		151.647*** (2)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71.6	28.4	70.5	29.5	(1029)
380~549만원	66.5	33.5	76.4	23.6	(1012)
550만원 이상	65.5	34.5	77.3	22.7	(1050)
$\chi^2(df)$	10.17**(2)		15.185**(2)		
맞벌이 여부					
외벌이	67.9	32.1	82.4	17.6	(1072)
맞벌이	65.2	34.8	76.2	23.8	(1415)
부부 비경제활동	80.0	20.0	86.7	13.3	(30)
미혼 경제활동	74.7	25.3	56.0	44.0	(491)
미혼 비경제활동	67.5	32.5	57.8	42.2	(83)
$\chi^2(df)$	17.20**(4)		140.673*** (4)		
학력					
고졸 이하	66.7	33.3	73.1	26.9	(387)
대졸	68.1	31.9	74.5	25.5	(2348)
대학원 졸 이상	67.4	32.6	77.8	22.2	(356)
$\chi^2(df)$	.371(2)		2.363(2)		

구분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수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66.6	33.4	73.1	26.9	(1964)
불규칙적 출퇴근 등	70.0	30.0	77.6	22.4	(1127)
$\chi^2(df)$	3.706(1)		7.459**(1)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혼인별, 자녀 유무별, 자녀 연령별 소득별, 맞벌이 여부별, 학력별, 고용 형태별로 모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대도시에 살수록, 미혼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더 오래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1-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계
전체	21.5	42.7	21.3	7.8	4.2	2.5	100.0
성별							
남자	20.4	39.5	23.1	8.7	5.6	2.7	100.0
여자	22.7	45.8	19.5	7.0	2.8	2.3	100.0
$\chi^2(df)$	31.563***(5)						
연령							
20대 이하	34.1	32.9	19.5	7.3	3.7	2.4	100.0
30대	24.1	41.2	20.3	8.0	4.2	2.3	100.0
40대	18.7	45.3	22.0	7.2	4.3	2.5	100.0
50대 이상	9.2	45.4	27.0	10.3	3.8	4.3	100.0
$\chi^2(df)$	42.031***(15)						

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계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0.1	41.0	21.9	9.6	5.0	2.4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19.8	43.7	21.6	8.4	4.2	2.2	100.0
중소도시	22.6	44.3	20.9	5.9	3.7	2.6	100.0
군(읍면지역)	29.0	36.0	19.5	8.5	3.5	3.5	100.0
$\chi^2(df)$	25.070***(15)						
혼인 여부							
미혼	27.1	42.3	19.7	5.5	3.2	2.1	100.0
배우자 있음	20.2	43.0	21.5	8.4	4.4	2.5	100.0
배우자 없음	31.9	29.8	25.5	2.1	4.3	6.4	100.0
$\chi^2(df)$	26.425**(1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7.6	43.2	19.0	6.0	2.7	1.5	100.0
1명	19.4	41.9	20.4	9.5	5.4	3.4	100.0
2명 이상	18.9	43.1	24.3	7.4	4.0	2.3	100.0
$\chi^2(df)$	52.326***(10)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27.6	43.2	19.0	6.0	2.7	1.5	100.0
영유아자녀 없음	15.3	43.8	26.6	8.5	3.5	2.3	100.0
영유아자녀 있음	21.2	41.8	19.8	8.6	5.4	3.2	100.0
$\chi^2(df)$	64.930***(10)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28.2	40.9	19.1	6.0	4.0	1.7	100.0
380~549만원	20.4	43.7	21.7	8.0	3.4	2.9	100.0
550만원 이상	16.2	43.4	23.0	9.4	5.1	2.9	100.0
$\chi^2(df)$	55.700***(10)						
맞벌이 여부							
외벌이	21.8	44.0	19.9	7.6	3.6	3.1	100.0
맞벌이	18.3	42.6	23.1	9.1	4.9	2.0	100.0
부부 비경제활동	50.0	23.3	6.7	6.7	6.7	6.7	100.0
미혼 경제활동	28.7	41.3	19.6	5.1	3.1	2.2	100.0
미혼 비경제활동	20.5	41.0	24.1	6.0	4.8	3.6	100.0
$\chi^2(df)$	58.791***(20)						
학력							
고졸 이하	34.9	37.2	17.1	5.7	2.8	2.3	100.0
대졸	20.4	43.4	22.0	8.1	4.0	2.2	100.0
대학원 졸 이상	14.9	44.1	21.1	8.4	6.7	4.8	100.0
$\chi^2(df)$	66.338***(10)						

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계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20.4	42.2	22.8	7.9	4.4	2.3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3.5	43.6	18.7	7.7	3.7	2.8	100.0
$\chi^2(df)$	10.357**(5)						

주: 1)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346,500원)을 100%로 한 것임.

2)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하여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2/3 이상이 고등학생 시기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배경변인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경향성으로 영유아기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향후 자녀가 중등교육 이상을 받기위한 비용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고, 대도시에 살수록 더욱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

<표 II-1-4>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 저 (1~3학년)	초등 고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계
전체	1.9	5.9	5.2	9.6	8.9	68.5	100.0
성별							
남자	1.9	6.2	5.2	8.8	7.4	70.4	100.0
여자	1.9	5.6	5.3	10.3	10.3	66.5	100.0
$\chi^2(df)$	11.718*(5)						
연령							
20대 이하		11.0	8.5	9.8	15.9	54.9	100.0
30대	2.1	6.9	6.0	9.9	10.2	65.0	100.0
40대	1.9	4.4	4.3	9.6	7.2	72.6	100.0
50대 이상	1.6	3.8	2.7	6.5	3.2	82.2	100.0
$\chi^2(df)$	54.364***(15)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0	6.2	4.6	7.1	7.6	72.3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1.8	6.0	5.0	12.1	10.6	64.6	100.0
중소도시	1.9	5.7	5.7	9.1	8.5	69.1	100.0
군(읍면지역)	2.5	5.5	6.5	12.5	9.0	64.0	100.0
$\chi^2(df)$	24.509(15)						

구분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 저 (1~3학년)	초등 고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계
혼인 여부							
미혼	3.8	8.7	5.5	9.3	7.6	65.1	100.0
배우자 있음	1.6	5.2	5.2	9.8	9.1	69.1	100.0
배우자 없음		10.6	4.3	2.1	12.8	70.2	100.0
$\chi^2(df)$	28.552**(1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3	9.0	5.7	8.5	7.6	65.8	100.0
1명	1.7	5.3	5.4	9.3	9.6	68.6	100.0
2명 이상	1.1	4.0	4.6	10.7	9.1	70.5	100.0
$\chi^2(df)$	41.693*** (10)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3.3	9.0	5.7	8.5	7.6	65.8	100.0
영유아자녀 없음	.5	3.4	3.4	7.2	7.2	78.4	100.0
영유아자녀 있음	1.9	5.4	5.9	11.5	10.5	64.8	100.0
$\chi^2(df)$	80.340*** (10)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2.8	8.5	5.8	11.1	9.7	62.1	100.0
380~549만원	1.6	4.6	5.8	9.6	9.1	69.3	100.0
550만원 이상	1.4	4.7	4.1	8.1	7.8	73.9	100.0
$\chi^2(df)$	44.673*** (10)						
맞벌이 여부							
외벌이	1.6	6.0	4.0	9.6	9.8	69.0	100.0
맞벌이	1.6	4.7	6.1	9.6	8.5	69.5	100.0
부부 비경제활동		6.7	6.7	23.3	10.0	53.3	100.0
미혼 경제활동	3.1	9.4	5.3	8.8	8.1	65.4	100.0
미혼 비경제활동	6.0	6.0	6.0	8.4	7.2	66.3	100.0
$\chi^2(df)$	41.424** (20)						
학력							
고졸 이하	3.4	6.7	6.5	11.6	12.1	59.7	100.0
대졸	1.7	5.8	5.3	9.4	8.9	68.9	100.0
대학원 졸 이상	2.0	5.9	3.4	8.4	5.3	75.0	100.0
$\chi^2(df)$	27.272** (10)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1.9	6.0	4.9	8.7	8.0	70.6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0	5.9	5.9	11.1	10.4	64.8	100.0
$\chi^2(df)$	13.756*(5)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나. 부모역할의 실제

가사와 양육에서 부모간의 이상적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과 실제 분담비율을 10을 기준으로 물어보았다. 다음의 <표 II-1-5>에서는 아버지 비율을 제외한 어머니

비율만을 표로 제시하였다. 이상적인 양육 분담은 전체적으로 어머니:아버지=5.74:4.26으로, 이상적인 가사분담은 어머니:아버지=5.73:4.27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양육 및 가사의 분담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분담보다 어머니의 분담 비율이 더 높았는데 실제 양육의 분담은 전체적으로 어머니:아버지=6.70:3.30으로, 가사 분담은 어머니:아버지=6.55:3.4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배경변인별 인식의 차이는 이상적인 비율에 있어서는 성별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실제 분담 비율에 대한 인식에는 어머니는 자신의 분담 비율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령별로 이상적인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조금씩 드러났으나 실제 분담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가 실제 부모간의 양육 및 가사의 분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상적인 분담비율에 있어서 미혼일수록, 자녀가 적을수록 그리고 외벌이보다 맞벌이일수록 그 분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II-1-5〉 어머니: 아버지 간의 이상적/실제 양육과 가사의 분담

구분	이상적 분담비		실제 분담비 10기준	
	어머니 양육 x/10	어머니 가사 x/10	어머니 양육 x/10	어머니 가사 x/10
전체	5.74	5.73	6.70	6.55
성별				
남자	5.78	5.68	6.37	5.99
여자	5.69	5.78	6.97	7.02
<i>t</i>	2.42*	-2.59	-7.97	-11.12***
연령				
20대 이하	5.82	5.88	6.60	6.83
30대	5.67	5.63	6.71	6.51
40대	5.84	5.87	6.69	6.61
50대 이상	5.73	5.76	6.50	6.75
<i>F</i>	6.34***	10.22***	.18	.9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5.74	5.71	6.49	6.36
광역시/특별자치시	5.69	5.73	6.73	6.48
중소도시	5.77	5.71	6.83	6.69
군(읍면지역)	5.70	5.91	6.62	6.81
<i>F</i>	1.11	1.71	4.30**	3.41*
혼인 여부				
미혼	5.40	5.40		
배우자 있음	5.81	5.80	6.70	6.55
배우자 없음	5.64	5.53		

구분	이상적 분담비		실제 분담비 10기준	
	어머니 양육 x/10	어머니 가사 x/10	어머니 양육 x/10	어머니 가사 x/10
<i>F</i>	36.24***	28.49***		
자녀 유무				
자녀 무	5.41	5.42		
1명	5.81	5.75	6.61	6.37
2명 이상	5.93	5.97	6.85	6.86
<i>F</i>	69.73***	54.71***	9.45**	24.25***
영유아유무				
자녀 무	5.41	5.42		
영유아자녀 있음	5.85	5.92		
영유아자녀 없음	5.87	5.82	6.70	6.55
<i>F</i>	65.81***	46.32***		
월 가구 소득				
379만원이하	5.70	5.73	6.95	6.94
380~549만원	5.79	5.79	6.76	6.59
550만원이상	5.72	5.67	6.41	6.17
<i>F</i>	2.47	2.90	17.26***	21.33***
맞벌이 여부				
외벌이	5.98	6.07	7.10	7.10
맞벌이	5.68	5.60	6.37	6.11
부부 비경제활동	5.60	5.83	6.41	6.35
미혼 경제활동	5.43	5.40		
미혼 비경제활동	5.37	5.45		
<i>F</i>	32.51***	41.00***	47.73***	54.96***
학력				
고졸 이하	5.65	5.81	6.92	7.08
대졸	5.75	5.72	6.67	6.51
대학원 졸 이상	5.75	5.69	6.69	6.42
<i>F</i>	1.71	1.14	1.77	6.13**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5.71	5.62	6.49	6.19
불규칙적 출퇴근 등	5.78	5.91	7.01	7.10
<i>t</i>	-2.03	-6.81*	-6.77	-9.56*

\*  $p < .05$ , \*\*  $p < .01$ , \*\*\*  $p < .001$ .

자녀 양육과 가사의 구체적인 사안별로 부부간의 분담비율을 물었을 때 어머니의 전담비율이 더욱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아버지 비율이 높은 것은 자녀와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것이었다.

<표 II-1-6>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기타	계
집안일(식사준비, 빨래 등)	80.1	14.2	5.7	100.0
자녀 밥먹고, 옷입는 것 도와주기	77.9	15.6	6.5	100.0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55.2	36.2	8.6	100.0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	71.6	18.5	9.8	100.0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84.3	12.4	3.3	100.0

이를 각 항목별로 배경변인별로 구분해보면, 먼저 식사 준비, 빨래와 같은 집안 일에 있어서는 소득이 적을수록, 외벌이일수록 어머니 전담 비율이 높았다.

<표 II-1-7>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기타	계
전체	80.1	14.2	5.7	100.0
연령				
20대 이하	83.1	12.3	4.6	100.0
30대	79.4	14.9	5.8	100.0
40대	81.2	12.9	5.8	100.0
50대 이상	100.0		0.0	100.0
$\chi^2(df)$		3.160(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83.2	11.2	5.6	100.0
380~549만원	83.8	13.2	3.0	100.0
550만원 이상	73.7	17.7	8.5	100.0
$\chi^2(df)$		22.935***(4)		
맞벌이 여부				
외벌이	88.3	7.6	4.1	100.0
맞벌이	73.5	19.4	7.1	100.0
부부 비경제활동	82.4	17.6	0.0	100.0
$\chi^2(df)$		46.651***(4)		

\*\*\*  $p < .001$ .

자녀의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것을 돕는 활동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맞벌이 보다, 외벌이일수록 어머니의 전담비율이 높았다.

〈표 II-1-8〉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단위: %

구 분	어머니	아버지	기타	계
전체	77.9	15.6	6.5	100.0
연령				
20대 이하	78.5	15.4	6.2	100.0
30대	77.3	15.4	7.3	100.0
40대	79.1	16.3	4.6	100.0
50대 이상	87.5	12.5	0.0	100.0
$\chi^2(df)$		2.912(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79.7	12.2	8.1	100.0
380~549만원	81.0	13.5	5.6	100.0
550만원 이상	73.1	20.8	6.1	100.0
$\chi^2(df)$		16.615**(4)		
맞벌이 여부				
외벌이	83.5	11.0	5.5	100.0
맞벌이	73.4	19.6	7.1	100.0
부부 비경제활동	76.5	5.9	17.6	100.0
$\chi^2(df)$	25.023***(4)			

\*\*  $p < .01$ , \*\*\*  $p < .001$ .

자녀와 놀아주기 및 책임어주기도 전체적으로 아버지 분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했지만 경향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소득이 낮을수록, 맞벌이보다 외벌이일수록 어머니 전담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1-9〉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단위: %

구 분	어머니	아버지	기타	계
전체	55.2	36.2	8.6	100.0
연령				
20대 이하	49.2	43.1	7.7	100.0
30대	57.0	33.6	9.4	100.0
40대	51.1	42.5	6.5	100.0
50대 이상	62.5	25.0	12.5	100.0
$\chi^2(df)$		11.161(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57.6	31.7	10.7	100.0

구 분	어머니	아버지	기타	계
380~549만원	57.5	36.1	6.4	100.0
550만원 이상	50.8	40.0	9.2	100.0
$\chi^2(df)$	11.245*(4)			
맞벌이 여부				
외벌이	60.4	31.3	8.3	100.0
맞벌이	51.5	39.9	8.6	100.0
부부 비경제활동	35.3	41.2	23.5	100.0
$\chi^2(df)$	17.099**(4)			

\*  $p < .05$ , \*\*  $p < .01$ .

자녀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원 돕는 것 역시 다른 항목과 유사하게 소득이 낮을수록, 맞벌이보다 외벌이일수록 어머니 전담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1-10〉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자녀의 기관 등·하원 도와주기

단위: %

구 분	어머니	아버지	기타	계
전체	71.6	18.5	9.8	100.0
연령				
20대 이하	66.7	15.6	17.8	100.0
30대	71.7	18.5	9.8	100.0
40대	72.4	19.0	8.6	100.0
50대 이상	66.7	33.3	0.0	100.0
$\chi^2(df)$	4.407(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80.6	12.4	7.1	100.0
380~549만원	75.7	16.2	8.1	100.0
550만원 이상	60.8	25.6	13.6	100.0
$\chi^2(df)$	34.673***(4)			
맞벌이 여부				
외벌이	87.7	8.4	3.9	100.0
맞벌이	59.6	26.3	14.1	100.0
부부 비경제활동	90.9		9.1	100.0
$\chi^2(df)$	94.555***(4)			

\*\*\*  $p < .001$ .

자녀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어머니 전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배경변인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II-1-11〉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 -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단위: %

구분	어머니	아버지	기타	계
전체	84.3	12.4	3.3	100.0
연령				
20대 이하	84.6	10.8	4.6	100.0
30대	86.9	10.0	3.1	100.0
40대	77.5	18.8	3.7	100.0
50대 이상	62.5	37.5	0.0	100.0
$\chi^2(df)$	22.955**(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88.1	9.1	2.8	100.0
380~549만원	84.6	12.0	3.4	100.0
550만원 이상	80.7	15.5	3.7	100.0
$\chi^2(df)$	9.018(4)			
맞벌이 여부				
외벌이	86.4	10.8	2.8	100.0
맞벌이	82.4	13.9	3.7	100.0
부부 비경제활동	94.1		5.9	100.0
$\chi^2(df)$	6.607(4)			

\*\*  $p < .01$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크게 영유아의 부모/조부모의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과 조부모를 위해서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대조적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31.5%는 (조부모의)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 28.7%는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택해 의견이 비슷하게 갈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자녀가 많거나 자녀 연령이 많은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외벌이인 경우 조부모를 위해 손자녀를 돌보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하는 경향이 많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서 조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I-1-12〉 조부모의 정기적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필요하다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계
	손자녀를 위해	자녀를 위해	조부모를 위해			
전체	16.0	31.5	7.4	28.7	16.4	100.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필요하다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계
	손자녀를 위해	자녀를 위해	조부모를 위해			
성별						
남자	17.9	32.6	8.0	27.0	14.6	100.0
여자	14.1	30.4	6.9	30.5	18.2	100.0
$\chi^2(df)$	18.763**(4)					
연령						
20대 이하	14.6	32.9	4.9	25.6	22.0	100.0
30대	15.6	32.3	7.9	25.6	18.7	100.0
40대	16.8	29.7	6.8	34.0	12.7	100.0
50대 이상	15.7	34.1	8.1	28.1	14.1	100.0
$\chi^2(df)$	37.887***(1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7.1	34.6	8.2	25.2	15.0	100.0
광역시/특별시자치시	13.8	31.5	7.9	29.8	17.0	100.0
중소도시	16.7	29.2	6.4	31.3	16.4	100.0
군(읍면지역)	16.0	31.0	9.0	25.0	19.0	100.0
$\chi^2(df)$	21.536*(12)					
혼인 여부						
미혼	14.6	25.2	8.0	27.5	24.7	100.0
배우자 있음	16.2	32.9	7.3	28.9	14.6	100.0
배우자 없음	17.0	23.4	8.5	31.9	19.1	100.0
$\chi^2(df)$	38.066***(8)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4.0	27.3	8.3	27.6	22.8	100.0
1명	16.4	34.4	8.6	26.8	13.8	100.0
2명 이상	17.2	31.7	5.4	31.9	13.8	100.0
$\chi^2(df)$	56.095***(8)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14.0	27.3	8.3	27.6	22.8	100.0
영유아자녀 없음	15.9	31.8	6.1	33.5	12.6	100.0
영유아자녀 있음	17.2	33.8	7.6	26.9	14.5	100.0
$\chi^2(df)$	53.550***(8)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13.2	27.4	8.5	29.4	21.5	100.0
380~549만원	17.3	30.0	7.0	30.7	14.9	100.0
550만원 이상	17.4	36.9	6.9	26.1	12.8	100.0
$\chi^2(df)$	55.448***(8)					
맞벌이 여부						
외벌이	14.5	26.2	7.2	34.5	17.6	100.0
맞벌이	17.6	38.3	7.3	24.7	12.2	100.0
부부 비경제활동	16.7	20.0	13.3	30.0	20.0	100.0
미혼 경제활동	14.5	26.5	7.9	27.5	23.6	100.0
미혼 비경제활동	16.9	16.9	8.4	30.1	27.7	100.0
$\chi^2(df)$	107.527***(16)					

구분	필요하다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계
	손자녀를 위해	자녀를 위해	조부모를 위해			
학력						
고졸 이하	14.7	23.8	7.8	30.0	23.8	100.0
대졸	15.6	32.2	7.1	29.0	16.1	100.0
대학원 졸 이상	19.7	34.8	9.6	25.8	10.1	100.0
$\chi^2(df)$	38.060***(8)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17.2	33.2	7.9	26.6	15.1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13.9	28.4	6.7	32.5	18.5	100.0
$\chi^2(df)$	25.296***(4)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자녀의 양육시기에 따른 맞벌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전체적으로 자녀가 어릴 때는 외벌이를 하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맞벌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영유아기일 경우 과반이 외벌이가 적당하다고 답하였으며, 초등학교 시기에는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후 자녀가 중등학교에 다닐 때는 맞벌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65.6%가 응답하였다.

〈표 II-1-13〉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영아 자녀(만0~2세)	82.1	10.8	0.9	6.2	100.0
유아 자녀(만3~6세)	57.1	27.6	3.0	12.3	100.0
초등학생 시기	24.3	40.5	3.4	31.8	100.0
중고등학생 시기	9.6	21.8	3.0	65.6	100.0

영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양육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2.1%에 달했는데, 이는 성별로는 여자가, 연령이 더 많을수록, 소규모 지역에 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현재 외벌이일수록 강한 동의를 보였다.

〈표 II-1-14〉 영아기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전체	82.1	10.8	0.9	6.2	100.0
성별					
남자	79.9	12.0	0.8	7.3	100.0
여자	84.3	9.6	1.0	5.1	100.0
$\chi^2(df)$		12.158**(3)			
연령					
20대 이하	75.6	14.6	1.2	8.5	100.0
30대	80.2	11.5	1.3	6.9	100.0
40대	84.7	9.8	0.5	5.0	100.0
50대 이상	87.0	8.1		4.9	100.0
$\chi^2(df)$		19.481*(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76.3	13.8	1.1	8.7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82.5	11.1	0.8	5.5	100.0
중소도시	85.9	8.0	1.0	5.1	100.0
군(읍면지역)	84.5	12.0	0.5	3.0	100.0
$\chi^2(df)$		38.172*** (9)			
혼인 여부					
미혼	78.7	11.0	1.3	8.9	100.0
배우자 있음	82.8	10.7	0.9	5.7	100.0
배우자 없음	85.1	12.8		2.1	100.0
$\chi^2(df)$		11.186(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8.0	12.2	1.5	8.3	100.0
1명	82.0	10.9	0.8	6.3	100.0
2명 이상	85.7	9.5	0.6	4.3	100.0
$\chi^2(df)$		23.685**(6)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78.0	12.2	1.5	8.3	100.0
영유아자녀 없음	86.0	8.2	0.9	4.8	100.0
영유아자녀 있음	82.5	11.3	0.6	5.6	100.0
$\chi^2(df)$		23.728**(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84.4	10.2	0.7	4.8	100.0
380~549만원	84.5	9.9	1.0	4.6	100.0
550만원 이상	77.6	12.2	1.1	9.0	100.0
$\chi^2(df)$					
맞벌이 여부					
외벌이	92.3	5.8	0.3	1.7	100.0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맞벌이	75.3	14.5	1.3	8.8	100.0
부부 비경제활동	93.3	6.7			100.0
미혼 경제활동	79.6	10.8	1.2	8.4	100.0
미혼 비경제활동	77.1	13.3	1.2	8.4	100.0
$\chi^2(df)$	29.330*** (6)				
학력					
고졸 이하	87.3	8.8	0.5	3.4	100.0
대졸	82.0	10.8	1.1	6.1	100.0
대학원 졸 이상	77.2	12.6	0.3	9.8	100.0
$\chi^2(df)$	20.677** (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79.3	12.1	0.8	7.8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87.0	8.4	1.2	3.3	100.0
$\chi^2(df)$	40.131*** (3)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한편 자녀가 유아기인 경우 역시 가장 많은 57.1%가 부모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하는 것을 이상적인 경제활동의 형태로 지지했는데 이는 성별로는 남자일 경우, 연령이 더 많을수록, 거주지역이 소규모일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 외벌이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지지하였다.

<표 II-1-15> 유아기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전체	57.1	27.6	3.0	12.3	100.0
성별					
남자	60.5	22.4	3.8	13.4	100.0
여자	53.7	32.7	2.3	11.2	100.0
$\chi^2(df)$	43.662*** (3)				
연령					
20대 이하	40.2	40.2	4.9	14.6	100.0
30대	51.8	30.5	3.6	14.1	100.0
40대	64.5	23.4	1.8	10.3	100.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50대 이상	70.3	19.5	3.8	6.5	100.0
$\chi^2(df)$	71.942***(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53.2	28.9	3.3	14.6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57.2	27.1	3.4	12.3	100.0
중소도시	59.8	26.9	2.4	10.9	100.0
군(읍면지역)	59.0	27.5	4.0	9.5	100.0
$\chi^2(df)$	14.380(9)				
혼인 여부					
미혼	59.2	20.9	5.3	14.6	100.0
배우자 있음	56.5	28.9	2.6	12.0	100.0
배우자 없음	66.0	29.8		4.3	100.0
$\chi^2(df)$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8.0	23.8	4.3	13.9	100.0
1명	52.5	30.4	2.7	14.3	100.0
2명 이상	61.5	27.5	2.3	8.6	100.0
$\chi^2(df)$	28.376***(6)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58.0	23.8	4.3	13.9	100.0
영유아자녀 없음	68.7	20.7	1.6	9.0	100.0
영유아자녀 있음	50.4	33.5	3.0	13.1	100.0
$\chi^2(df)$	84.951***(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61.0	27.4	3.1	8.5	100.0
380~549만원	60.8	25.7	2.8	10.8	100.0
550만원 이상	49.7	29.5	3.2	17.5	100.0
$\chi^2(df)$	55.969***(6)				
맞벌이 여부					
외벌이	70.8	24.2	1.3	3.7	100.0
맞벌이	45.5	32.4	3.7	18.4	100.0
부부 비경제활동	63.3	36.7			100.0
미혼 경제활동	59.1	22.0	4.7	14.3	100.0
미혼 비경제활동	63.9	19.3	6.0	10.8	100.0
$\chi^2(df)$	227.598***(12)				
학력					
고졸 이하	64.1	25.8	3.1	7.0	100.0
대졸	56.3	27.8	3.2	12.6	100.0
대학원 졸 이상	54.5	28.1	1.7	15.7	100.0
$\chi^2(df)$	19.463***(6)				
고용 형태별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규칙적 출퇴근	55.0	27.0	2.9	15.1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60.8	28.5	3.4	7.4	100.0
$\chi^2(df)$	40.440***(3)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자녀가 초등학생일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어머니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 역시 성별, 연령별, 거주 지역별, 혼인 여부별, 자녀 연령 및 수에 따라, 소득에 따라, 학력 및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른 의견을 보였다.

〈표 II-1-16〉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전체	24.3	40.5	3.4	31.8	100.0
성별					
남자	28.2	37.0	4.0	30.8	100.0
여자	20.5	44.1	2.8	32.7	100.0
$\chi^2(df)$	32.373***(3)				
연령					
20대 이하	9.8	45.1		45.1	100.0
30대	21.0	39.6	3.9	35.5	100.0
40대	28.5	42.6	2.5	26.5	100.0
50대 이상	37.3	35.7	4.9	22.2	100.0
$\chi^2(df)$	74.177***(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3.7	36.6	3.6	36.1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24.7	39.9	3.2	32.2	100.0
중소도시	23.8	43.3	3.4	29.4	100.0
군(읍면지역)	28.0	44.5	3.0	24.5	100.0
$\chi^2(df)$	18.706*(9)				
혼인 여부					
미혼	23.5	30.0	5.3	41.2	100.0
배우자 있음	24.3	42.6	2.9	30.2	100.0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배우자 없음	36.2	46.8	4.3	12.8	100.0
$\chi^2(df)$	50.006***(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1.4	34.3	4.3	40.0	100.0
1명	23.6	41.8	2.8	31.8	100.0
2명 이상	27.6	44.4	3.2	24.7	100.0
$\chi^2(df)$	59.153***(6)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21.4	34.3	4.3	40.0	100.0
영유아자녀 없음	30.4	43.3	1.8	24.5	100.0
영유아자녀 있음	22.9	42.9	3.6	30.6	100.0
$\chi^2(df)$	67.667***(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25.9	41.5	4.2	28.4	100.0
380~549만원	26.2	42.2	2.3	29.3	100.0
550만원 이상	21.0	38.0	3.6	37.4	100.0
$\chi^2(df)$	32.044***(6)				
맞벌이 여부					
외벌이	32.9	45.8	2.2	19.0	100.0
맞벌이	17.5	40.0	3.5	38.9	100.0
부부 비경제활동	33.3	53.3		13.3	100.0
미혼 경제활동	23.6	31.0	4.9	40.5	100.0
미혼 비경제활동	30.1	33.7	7.2	28.9	100.0
$\chi^2(df)$	187.639***(12)				
학력					
고졸 이하	27.9	44.7	3.6	23.8	100.0
대졸	23.4	40.6	3.2	32.8	100.0
대학원 졸 이상	26.7	35.7	3.9	33.7	100.0
$\chi^2(df)$	16.966**(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23.1	37.4	3.2	36.4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6.5	46.1	3.7	23.7	100.0
$\chi^2(df)$	53.967***(3)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전체의 65.6% 응답자는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맞벌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특히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일수록, 고용형태가 규칙적으로 출퇴근할수록 더욱 그런 경향을 보였다.

〈표 II-1-17〉 자녀의 중고등학생 시기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전체	9.6	21.8	3.0	65.6	100.0
성별					
남자	13.0	20.7	3.8	62.4	100.0
여자	6.3	22.8	2.2	68.7	100.0
$\chi^2(df)$	49.658*** (3)				
연령					
20대 이하	2.4	17.1	3.7	76.8	100.0
30대	8.1	19.3	3.4	69.2	100.0
40대	12.1	25.2	2.2	60.5	100.0
50대 이상	13.0	27.0	3.8	56.2	100.0
$\chi^2(df)$	47.201*** (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1.2	20.5	2.9	65.3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8.3	22.9	3.9	64.9	100.0
중소도시	9.5	22.0	2.3	66.2	100.0
군(읍면지역)	8.5	22.0	4.0	65.5	100.0
$\chi^2(df)$	10.280 (9)				
혼인 여부					
미혼	9.7	17.8	2.8	69.6	100.0
배우자 있음	9.5	22.6	3.0	64.9	100.0
배우자 없음	19.1	19.1	4.3	57.4	100.0
$\chi^2(df)$	11.554 (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9.7	18.1	3.2	69.0	100.0
1명	9.1	21.8	3.6	65.5	100.0
2명 이상	10.2	24.8	2.2	62.7	100.0
$\chi^2(df)$	16.953** (9)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9.7	18.1	3.2	69.0	100.0
영유아자녀 없음	10.4	25.3	2.3	61.9	100.0
영유아자녀 있음	9.2	22.1	3.3	65.4	100.0
$\chi^2(df)$	15.296* (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10.2	22.6	3.0	64.1	100.0
380~549만원	10.8	21.1	2.8	65.3	100.0
550만원 이상	8.0	21.5	3.2	67.2	100.0
$\chi^2(df)$	6.3389 (6)				
맞벌이 여부					
외벌이	13.2	28.1	1.4	57.3	100.0

구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계
맞벌이	6.8	18.3	4.3	70.6	100.0
부부 비경제활동		33.3		66.7	100.0
미혼 경제활동	9.8	17.1	3.1	70.1	100.0
미혼 비경제활동	14.5	22.9	2.4	60.2	100.0
$\chi^2(df)$		102.312***(12)			
학력					
고졸 이하	11.1	22.5	2.6	63.8	100.0
대졸	8.9	21.6	3.3	66.1	100.0
대학원 졸 이상	12.6	21.9	1.4	64.0	100.0
$\chi^2(df)$		9.935(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9.6	19.0	3.0	68.4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9.8	26.5	3.0	60.7	100.0
$\chi^2(df)$		24.922***(3)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다. 좋은 부모 가능성 인식

자녀가 있는 경우 스스로를 좋은 부모라고 인지하는지, 자녀가 없는 경우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100점 환산점수로 보았을 때 56.80점으로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의 평균은 50.4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지역은 대도시에 살수록, 소득은 많을수록, 맞벌이일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스스로를 좋은 부모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보다는 기혼인 경우가, 그리고 학력이 높은 경우가 스스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표 II-1-18〉 좋은 부모 정도: 자기 평가

단위: 점(100점 환산)

구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전체	56.80	50.40
성별		
남자	58.94	53.60

구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여자	54.70	47.11
<i>t</i>	5.39***	4.09
연령		
20대 이하	56.69	50.00
30대	57.24	50.54
40대	56.69	50.11
50대 이상	54.14	50.00
<i>F</i>	1.21	.0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59.47	50.17
광역시/특별자치시	55.91	47.81
중소도시	56.23	52.77
군(읍면지역)	53.41	48.86
<i>F</i>	6.50***	2.01
혼인 여부		
미혼	50.00	48.05
배우자 있음	56.92	54.15
배우자 없음	49.19	48.44
<i>F</i>	2.78	6.97**
영유아유무		
자녀 무		50.40
영유아자녀 있음	56.33	
영유아자녀 없음	57.05	
<i>F</i>	.74	
월 가구 소득		
379만원이하	52.67	48.67
380~549만원	57.06	52.51
550만원이상	59.66	51.39
<i>F</i>	25.33***	
맞벌이 여부		
외벌이	55.43	52.61
맞벌이	58.19	54.95
부부 비경제활동	53.00	55.00
미혼 경제활동	49.17	49.24
미혼 비경제활동	50.00	41.25
<i>F</i>	4.62**	2.22***
학력		
고졸 이하	51.39	43.80
대졸	57.11	50.65
대학원 졸 이상	59.96	58.43
<i>F</i>	14.99***	10.53***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58.19	51.70

구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불규칙적 출퇴근 등	54.53	47.75
<i>t</i>	4.50**	2.33

주: 평균은 '매우 그렇지 않다(0점)-매우 그렇다(100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 \*\*\*  $p < .001$ .

좋은 부모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과반인 52.3%는 정서적 지원이라고 답하였다. 여성, 자녀가 많을수록, 학력이 많을수록 정서적 지원을 중요하게 꼽았다. 반면 연령별로 중간층을 제외한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경우 생활습관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II-1-19〉 좋은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 (1순위)

단위: %

구분	양육지식	정서적 지원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학업지도	경제적 지원	기타	계
전체	13.8	52.3	18.8	1.1	13.8	0.2	100.0
성별							
남자	15.3	46.5	20.8	1.5	15.6	0.3	100.0
여자	12.3	58.0	16.7	0.7	12.1	0.1	100.0
$\chi^2(df)$			43.127***(5)				
연령							
20대 이하	11.0	43.9	28.0	2.4	14.6		100.0
30대	13.0	54.9	17.1	1.2	13.6	0.2	100.0
40대	15.2	50.5	19.5	.9	13.6	0.3	100.0
50대 이상	14.6	41.6	25.9	.5	17.3		100.0
$\chi^2(df)$			27.893*(15)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2.9	52.5	19.7	1.1	13.6	0.1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14.9	51.1	20.4	1.2	12.2	0.2	100.0
중소도시	13.2	54.0	17.1	1.0	14.4	0.2	100.0
군(읍면지역)	17.0	46.0	17.5	1.0	18.0	0.5	100.0
$\chi^2(df)$			14.701(15)				
혼인 여부							
미혼	12.9	48.0	19.7	1.3	17.8	0.2	100.0
배우자 있음	13.9	53.2	18.7	1.1	12.9	0.2	100.0
배우자 없음	19.1	51.1	10.6	-	19.1	-	100.0
$\chi^2(df)$			14.960(1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2.3	49.7	19.8	1.4	16.4	0.5	100.0
1명	14.5	51.9	18.0	1.4	14.2	0.1	100.0
2명 이상	14.3	55.0	18.7	0.6	11.3	0.1	100.0
$\chi^2(df)$			22.786*(10)				

구분	양육지식	정서적 지원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학업지도	경제적 지원	기타	계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12.3	49.7	19.8	1.4	16.4	0.5	100.0
영유아자녀 없음	14.5	49.8	21.3	1.0	13.2	0.3	100.0
영유아자녀 있음	14.4	55.2	16.8	1.0	12.7	-	100.0
$\chi^2(df)$	25.200**(10)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14.7	48.6	18.6	1.4	16.5	0.3	100.0
380~549만원	13.2	53.1	19.5	1.1	12.9	0.2	100.0
550만원 이상	13.5	55.1	18.3	0.9	12.1	0.1	100.0
$\chi^2(df)$	16.184(10)						
맞벌이 여부							
외벌이	12.3	53.8	19.5	0.9	13.3	0.1	100.0
맞벌이	14.9	53.0	18.0	1.1	12.7	0.3	100.0
부부 비경제활동	23.3	40.0	23.3	3.3	10.0	-	100.0
미혼 경제활동	11.8	49.3	18.9	0.8	18.9	0.2	100.0
미혼 비경제활동	22.9	42.2	19.3	3.6	12.0	-	100.0
$\chi^2(df)$	35.874*(20)						
학력							
고졸 이하	14.7	41.3	23.8	0.8	18.6	0.8	100.0
대졸	13.9	53.1	18.2	1.1	13.6	0.0	100.0
대학원 졸 이상	12.1	58.7	17.1	1.4	10.1	0.6	100.0
$\chi^2(df)$	41.757***(10)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13.5	50.9	20.0	1.1	14.3	0.3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14.4	54.7	16.7	1.1	13.1	0.1	100.0
$\chi^2(df)$	8.109(5)						

\*  $p < .05$ , \*\*  $p < .01$ , \*\*\*  $p < .001$ .

한편 체벌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찬반의 의견이 팽팽했다. 다만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체벌에 덜 부정적이었으며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는 아예 없거나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경우보다 체벌에 더 부정적이었다.

〈표 II-1-20〉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체벌 할 수 있다	체벌은 하면 안된다	모르겠다	계
전체	44.3	46.4	9.3	100.0
성별				
남자	44.1	47.8	8.1	100.0
여자	44.5	45.0	10.5	100.0
$\chi^2(df)$	5.993(2)			
연령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체벌 할 수 있다	체벌은 하면 안된다	모르겠다	계
20대 이하	46.3	40.2	13.4	100.0
30대	44.6	44.9	10.5	100.0
40대	44.7	47.6	7.8	100.0
50대 이상	38.4	56.2	5.4	100.0
$\chi^2(df)$		17.085**(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44.1	47.3	8.6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46.7	43.6	9.7	100.0
중소도시	42.7	48.6	8.7	100.0
군(읍면지역)	43.0	43.0	14.0	100.0
$\chi^2(df)$		10.818(6)		
혼인 여부				
미혼	48.2	37.2	14.6	100.0
배우자 있음	43.4	48.4	8.3	100.0
배우자 없음	48.9	46.8	4.3	100.0
$\chi^2(df)$		34.410*** (4)		
자녀 유무				
자녀 없음	49.4	37.4	13.2	100.0
1명	37.9	54.2	7.8	100.0
2명 이상	47.1	45.2	7.6	100.0
$\chi^2(df)$		69.629*** (4)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49.4	37.4	13.2	100.0
영유아자녀 없음	41.2	52.0	6.8	100.0
영유아자녀 있음	42.8	49.0	8.2	100.0
$\chi^2(df)$		51.839*** (4)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44.6	43.2	12.1	100.0
380~549만원	45.8	45.6	8.6	100.0
550만원 이상	42.5	50.4	7.1	100.0
$\chi^2(df)$		22.092*** (4)		
맞벌이 여부				
외벌이	43.8	47.0	9.1	100.0
맞벌이	43.0	49.3	7.7	100.0
부부 비경제활동	46.7	50.0	3.3	100.0
미혼 경제활동	50.5	36.9	12.6	100.0
미혼 비경제활동	34.9	44.6	20.5	100.0
$\chi^2(df)$		41.129*** (8)		
학력				
고졸 이하	47.3	40.3	12.4	100.0
대졸	44.1	46.8	9.1	100.0
대학원 졸 이상	42.1	50.8	7.0	100.0
$\chi^2(df)$		11.933* (4)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44.8	47.6	7.7	100.0

구분	체벌 할 수 있다	체벌은 하면 안된다	모르겠다	계
불규칙적 출퇴근 등	43.5	44.5	12.1	100.0
$\chi^2(df)$	16.537*** <sup>(2)</sup>			

\*  $p < .05$ , \*\*  $p < .01$ , \*\*\*  $p < .001$ .

한편 응답자에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의 정도를 물었다.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80.45에 이를 만큼 매우 어렵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가 자녀와 놀이할 때, 식사할 때, 재울 때 스마트폰의 사용 정도를 물었는데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낮기는 했으나 놀이할 때 스마트폰의 사용이 가장 높았다.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결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표 II-1-2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인식과 상황별 스마트폰 사용 정도

단위: 점, %

구분	일·가정 양립 어려움(점)	자녀와 함께할 때 스마트폰 사용정도(%)		
		놀이할 때	식사할 때	재울 때
전체	80.45	27.7	14.5	14.5
성별				
남자	77.90	25.1	14.8	14.8
여자	82.99	29.9	14.2	14.2
<i>t</i>	-7.66	-3.24	1.48	.54
연령				
20대 이하	75.00	26.2	15.4	15.4
30대	81.71	28.9	14.8	14.8
40대	79.22	24.8	13.1	13.1
50대 이상	78.38	25.0	25.0	25.0
<i>F</i>	7.33***	2.22	1.42	1.91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80.10	29.1	16.0	16.0
광역시/특별자치시	79.45	26.5	16.4	16.4
중소도시	81.68	25.4	12.9	12.9
군(읍면지역)	79.25	37.2	9.6	9.6
<i>F</i>	2.85*	1.55	2.33	1.74
혼인 여부				
미혼	80.93	-	-	-
배우자 있음	80.37	27.8	14.6	14.6
배우자 없음	79.26	-	-	-
<i>F</i>	.29	0.1	.09	.25
자녀 유무				
자녀 무	81.46	-	-	-
1명	80.45	26.2	15.1	15.1
2명 이상	79.59	30.2	13.5	13.5
<i>F</i>	2.40	.92	.06	3.19

구분	일·가정 양립 어려움(점)	자녀와 함께할 때 스마트폰 사용정도(%)		
		놀이할 때	식사할 때	재울 때
영유아유무				
자녀 무	81.46	-	-	-
영유아자녀 있음	78.03	-	-	-
영유아자녀 없음	81.12	27.7	14.5	14.5
<i>F</i>	8.71***			
월 가구 소득				
379만원이하	80.56	29.4	12.6	12.6
380~549만원	80.41	28.4	16.7	16.7
550만원이상	80.38	25.5	13.9	13.9
<i>F</i>	.03	3.48*	1.73	.13
맞벌이 여부				
외벌이	82.44	29.4	11.9	11.9
맞벌이	78.87	26.8	16.8	16.8
부부 비경제활동	77.50	17.6	11.8	11.8
미혼 경제활동	80.55	-	-	-
미혼 비경제활동	82.23	-	-	-
<i>F</i>	6.00***	.45	2.61	.92
학력				
고졸 이하	79.46	21.8	11.8	11.8
대졸	80.73	28.9	15.8	15.8
대학원 졸 이상	79.71	24.6	8.4	8.4
<i>F</i>	1.09	1.29	2.02	.63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79.35	25.9	15.2	15.2
불규칙적 출퇴근 등	82.36	30.5	13.4	13.4
<i>t</i>	-4.33	-2.11	1.03	-.90

주: 평균은 '매우 쉬움(0점)~매우 어려움(100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01$ .

영유아 자녀를 둔 응답자에게 각 상황별 평균 활동 시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7.49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과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각각 5.95시간, 5.21시간이었다.

〈표 II-1-22〉 영유아 부모의 활동 시간 및 만족도

단위: 시간, %

구분	사용시간 평균	시간사용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근무시간	5.95	39.4	49.0	11.6	100.0
집에 머무는 시간	7.49	13.4	41.3	45.4	100.0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5.21	8.6	34.8	56.6	100.0

시간 사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거의 절반에 달하기는 하였지만(49.0시간), 너무 길다는 의견이 39.4%로 부족하다는 의견 11.6%보다 훨씬 많았다. 이를 배경 변인별로 볼 때 여성의 평균 근무시간은 3.68시간으로 남성 8.62시간에 비하여 짧았다( $t=27.40$ ,  $p<.001$ ). 연령별로는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대도시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이 안정적인수록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1-23〉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근무시간

단위: 시간, %

구분	근무시간 평균	근무시간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전체	5.95	39.4	49.0	11.6	100.0
성별					
남자	8.62	39.1	51.2	9.8	100.0
여자	3.68	40.1	45.4	14.6	100.0
$t/x^2(df)$	27.40***		6.032*(2)		
연령					
20대 이하	3.98	32.4	56.8	10.8	100.0
30대	5.70	41.6	46.3	12.1	100.0
40대	7.04	35.7	54.4	9.9	100.0
50대 이상	6.13	28.6	42.9	28.6	100.0
$F/x^2(df)$	14.23***		8.041(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6.79	40.6	46.5	12.9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6.02	37.8	49.8	12.4	100.0
중소도시	5.59	39.4	51.3	9.3	100.0
군(읍면지역)	4.48	41.2	45.1	13.7	100.0
$F/x^2(df)$	10.54***		3.626(6)		
혼인 여부					
미혼	7.00	100.0			100.0
배우자 있음	5.94	39.5	49.1	11.4	100.0
배우자 없음	7.50		50.0	50.0	100.0
$F/x^2(df)$	.35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4.37	34.1	49.5	16.4	100.0
380~549만원	5.97	41.7	48.0	10.2	100.0
550만원 이상	7.29	40.3	49.5	10.1	100.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근무시간 평균	근무시간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F/x^2(df)$	59.07***	7.642(4)			
맞벌이 여부					
외벌이	4.05	39.4	48.3	12.4	100.0
맞벌이	7.61	39.5	49.4	11.1	100.0
$F/x^2(df)$	118.43***	3.149(4)			
학력					
고졸 이하	4.43	42.6	49.2	8.2	100.0
대졸	5.98	39.5	48.1	12.3	100.0
대학원 졸업 이상	6.85	37.5	53.7	8.8	100.0
$F/x^2(df)$	12.49***	2.876(4)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8.43	41.5	49.4	9.1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13	28.8	47.1	24.2	100.0
$t/x^2(df)$	41.60***	30.500***(2)			

\*  $p < .05$ , \*\*\*  $p < .001$ .

집에 머무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여자가 평균 9.56시간으로 남자의 5.05시간에 비하여 더 많았다( $t=19.45$ ,  $p<.001$ ). 연령별로도 나이가 들수록, 대도시로 갈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았다.

<표 II-1-24>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집에 머무는 시간

단위: 시간, %

구분	집에 머무는 시간 평균	집에 머무는 시간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전체	7.49	13.4	41.3	45.4	100.0
성별					
남자	5.05	1.6	39.6	58.8	100.0
여자	9.56	23.3	42.7	33.9	100.0
$t/x^2(df)$	-19.45***	161.401***(2)			
연령					
20대 이하	9.45	18.5	44.6	36.9	100.0
30대	7.86	14.8	40.1	45.1	100.0
40대	6.12	8.3	43.7	48.0	100.0
50대 이상	4.88	12.5	50.0	37.5	100.0
$F/x^2(df)$	15.90***	11.861(6)			
지역규모					

구분	집에 머무는 시간 평균	집에 머무는 시간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서울특별시	6.76	10.9	37.1	52.0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7.23	11.7	44.8	43.4	100.0
중소도시	7.95	15.1	42.3	42.7	100.0
군(읍면지역)	8.86	20.2	38.3	41.5	100.0
$F/x^2(df)$	7.35***	14.463*(6)			
혼인 여부					
미혼	6.00	-	-	100.0	100.0
배우자 있음	7.49	13.3	41.4	45.3	100.0
배우자 없음	8.00	25.0	25.0	50.0	100.0
$F/x^2(df)$	.12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8.64	20.4	42.7	36.9	100.0
380~549만원	7.41	13.5	41.9	44.7	100.0
550만원 이상	6.58	7.2	39.4	53.4	100.0
$F/x^2(df)$	20.54***	41.052***(4)			
맞벌이 여부					
외벌이	9.01	22.5	44.1	33.4	100.0
맞벌이	6.21	5.8	39.0	55.2	100.0
부부 비경제활동	10.12	17.6	52.9	29.4	100.0
$F/x^2(df)$	42.45***	106.394***(6)			
학력					
고졸 이하	8.54	17.6	37.8	44.5	100.0
대졸	7.49	12.9	41.0	46.1	100.0
대학원 졸 이상	6.73	13.2	45.5	41.3	100.0
$F/x^2(df)$	5.03**	3.643(4)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5.37	2.1	38.6	59.3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10.75	30.7	45.4	23.9	100.0
$t/x^2(df)$	-24.04***	283.421***(2)			

\*  $p < .05$ , \*\*  $p < .01$ , \*\*\*  $p < .001$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경우 여자가(평균 7.15시간) 남자에(평균 2.93시간) 비하여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t=16.19$ ,  $p<.001$ ).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작은 규모의 도시로 갈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비정형적 근로형태를 가질수록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표 II-1-25〉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단위: 시간, %

구분	자녀와 보내는 시간 평균	자녀와 보내는 시간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전체	5.21	8.6	34.8	56.6	100.0
성별					
남자	2.93	1.6	27.8	70.6	100.0
여자	7.15	14.5	40.8	44.7	100.0
$t/x^2(df)$	-16.19***		118.593***(2)		
연령					
20대 이하	6.28	3.1	46.2	50.8	100.0
30대	5.74	10.4	34.4	55.2	100.0
40대	3.55	4.9	33.3	61.8	100.0
50대 이상	2.38		50.0	50.0	100.0
$F/x^2(df)$	16.82***		17.103**(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4.84	8.6	32.0	59.4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4.90	6.8	38.5	54.6	100.0
중소도시	5.53	9.8	33.5	56.8	100.0
군(읍면지역)	6.01	9.6	37.2	53.2	100.0
$F/x^2(df)$	2.42		5.871(6)		
혼인 여부					
미혼	3.50	-	-	100.0	100.0
배우자 있음	5.21	8.6	35.0	56.5	100.0
배우자 없음	5.50	25.0		75.0	100.0
$F/x^2(df)$	.12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6.18	10.1	41.2	48.7	100.0
380~549만원	5.37	9.8	34.8	55.3	100.0
550만원 이상	4.20	6.1	29.2	64.7	100.0
$F/x^2(df)$	16.39***		23.768***(4)		
맞벌이 여부					
외벌이	6.57	13.6	41.1	45.3	100.0
맞벌이	4.03	4.6	29.5	65.9	100.0
부부 비경제활동	8.82	5.9	52.9	41.2	100.0
$F/x^2(df)$	30.63***		72.782***(6)		
학력					
고졸 이하	5.97	8.4	43.7	47.9	100.0
대졸	5.23	8.6	33.8	57.7	100.0
대학원 졸 이상	4.53	9.0	34.7	56.3	100.0

구분	자녀와 보내는 시간 평균	자녀와 보내는 시간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F/x^2(df)$	2.72		4.850(4)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3.14	2.2	26.0	71.7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8.39	18.4	48.3	33.3	100.0
$t/x^2(df)$	-20.77***		223.301***(2)		

\*\*  $p < .01$ , \*\*\*  $p < .001$ .

## 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가. 결혼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전체의 과반인 50.6%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답하였다. 반면 하는 편이 좋다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43.1%에 그쳤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자가,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II-2-1〉 결혼의 필요성

단위: %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계
전체	7.0	36.1	50.6	6.3	100.0
성별					
남자	11.1	45.9	38.7	4.3	100.0
여자	2.8	26.3	62.5	8.4	100.0
$\chi^2(df)$		265.165***(3)			
연령					
20대 이하	3.7	28.0	52.4	15.9	100.0
30대	6.8	33.7	52.6	6.8	100.0
40대	7.5	40.2	47.0	5.3	100.0
50대 이상	6.5	37.8	51.9	3.8	100.0
$\chi^2(df)$		31.639***(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7.3	34.9	51.6	6.2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6.0	36.3	51.3	6.3	100.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계
중소도시	7.8	36.9	49.1	6.2	100.0
군(읍면지역)	5.0	36.5	51.0	7.5	100.0
$\chi^2(df)$	5.487(9)				
혼인 여부					
미혼	4.4	26.6	59.8	9.3	100.0
배우자 있음	7.6	38.3	48.4	5.6	100.0
배우자 없음		23.4	63.8	12.8	100.0
$\chi^2(df)$	54.080***(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9	30.8	57.6	7.7	100.0
1명	7.4	37.3	49.3	6.0	100.0
2명 이상	9.1	39.3	46.1	5.5	100.0
$\chi^2(df)$	46.592***(6)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3.9	30.8	57.6	7.7	100.0
영유아자녀 없음	8.2	39.1	47.7	5.0	100.0
영유아자녀 있음	8.2	37.8	47.9	6.2	100.0
$\chi^2(df)$	43.825***(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5.1	34.1	52.4	8.5	100.0
380~549만원	7.7	34.0	52.7	5.6	100.0
550만원 이상	8.1	40.1	46.9	5.0	100.0
$\chi^2(df)$	30.804***(6)				
맞벌이 여부					
외벌이	7.6	38.2	47.9	6.3	100.0
맞벌이	7.8	38.4	48.8	5.1	100.0
부부 비경제활동	3.3	40.0	50.0	6.7	100.0
미혼 경제활동	4.3	25.3	61.7	8.8	100.0
미혼 비경제활동	2.4	32.5	50.6	14.5	100.0
$\chi^2(df)$	60.907***(12)				
학력					
고졸 이하	4.1	31.8	55.8	8.3	100.0
대졸	6.9	35.9	50.9	6.2	100.0
대학원 졸 이상	10.4	41.9	42.7	5.1	100.0
$\chi^2(df)$	25.543***(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8.8	38.7	47.0	5.4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3.7	31.5	56.8	8.0	100.0
$\chi^2(df)$	58.003***(3)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

## 나. 결혼과 출산의 관계

한편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결혼과 무관하게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100점 만점 환산에 39.07점으로 동의정도를 표하였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견해에는 64.14점,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48.83점이었다.

먼저 결혼과 무관하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자가, 대도시 거주자가, 미혼이, 자녀가 없는 자가,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자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녀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다소 앞서 질문과 모순된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남자가,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자녀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견해에도 남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가 있는 경우, 학력이 높을 경우 더 긍정적이었다.

〈표 II-2-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점

구분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전체	39.07	64.14	48.83
성별			
남자	40.20	65.41	53.66
여자	37.94	62.88	44.01
<i>t</i>	2.31***	2.55***	9.62***
연령			
20대 이하	36.18	55.69	37.80
30대	39.04	63.83	46.21
40대	39.97	64.99	52.97
50대 이상	35.32	65.77	53.69
<i>F</i>	1.88	3.17*	19.04***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42.37	61.72	47.85
광역시/특별자치시	39.74	63.85	49.63
중소도시	36.81	66.23	48.88
군(읍면지역)	34.67	64.00	49.00
<i>F</i>	8.89***	4.48**	.59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b>혼인 여부</b>			
미혼	43.14	57.75	42.88
배우자 있음	38.26	65.66	50.19
배우자 없음	36.88	54.61	42.55
<i>F</i>	7.16**	20.82***	15.86***
<b>자녀 유무</b>			
자녀 무	43.05	57.40	40.24
1명	38.94	65.79	50.42
2명 이상	35.85	67.99	54.30
<i>F</i>	16.80***	38.89***	64.15***
<b>영유아유무</b>			
자녀 무	43.05	57.40	40.24
영유아자녀 있음	36.59	66.15	54.41
영유아자녀 없음	37.97	67.17	51.08
<i>F</i>	13.84***	37.43***	62.30***
<b>월 가구 소득</b>			
379만원이하	39.46	62.20	46.58
380~549만원	38.87	65.61	50.23
550만원이상	38.89	64.63	49.68
<i>F</i>	.15	4.13*	4.97**
<b>맞벌이 여부</b>			
외벌이	36.16	67.82	51.74
맞벌이	39.91	63.89	49.14
부부 비경제활동	35.56	72.22	44.44
미혼 경제활동	43.04	57.43	42.70
미혼 비경제활동	40.16	57.83	43.78
<i>F</i>	6.19***	13.86***	9.58***
<b>학력</b>			
고졸 이하	37.73	62.53	46.94
대졸	39.37	63.59	48.65
대학원 졸 이상	38.58	69.57	52.06
<i>F</i>	.67	7.98***	3.23*
<b>고용 형태별</b>			
규칙적 출퇴근	40.33	63.88	50.20
불규칙적 출퇴근 등	36.88	64.60	46.44
<i>t</i>	3.39**	-.69	3.57***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0점)~전적으로 동의함(100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다. 이상적인 자녀의 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자녀가 있는 편이 좋다는 견해는 100점 만점에 64.9점으로 없는 편이 좋다는 9.0점이나 잘 모르겠다고 한 26.1점보다 높았다. 성별로 남자,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작은 도시일수록,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나이가 많을수록, 맞벌이보다 외벌이일수록 자녀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자녀의 필요성

단위: %

구분	있는 편이 좋다	없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합계
전체	64.9	9.0	26.1	100.0
성별				
남자	66.9	7.8	25.3	100.0
여자	62.9	10.2	26.9	100.0
$\chi^2(df)$		7.759*(2)		
연령				
20대 이하	56.1	14.6	29.3	100.0
30대	62.3	9.6	28.1	100.0
40대	68.6	7.6	23.8	100.0
50대 이상	70.3	9.2	20.5	100.0
$\chi^2(df)$		19.045**(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60.3	10.1	29.6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65.4	9.1	25.4	100.0
중소도시	67.5	8.1	24.4	100.0
군(읍면지역)	67.0	9.0	24.0	100.0
$\chi^2(df)$		12.398(6)		
혼인 여부				
미혼	55.0	14.4	30.6	100.0
배우자 있음	67.1	7.7	25.2	100.0
배우자 없음	57.4	14.9	27.7	100.0
$\chi^2(df)$		38.398*** (4)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4.9	15.3	29.8	100.0
1명	64.4	7.5	28.1	100.0
2명 이상	73.8	5.4	20.8	100.0
$\chi^2(df)$		100.171*** (4)		

구분	있는 편이 좋다	없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합계
<b>영유아 자녀유무</b>				
자녀 없음	54.9	15.3	29.8	100.0
영유아자녀 없음	72.0	6.0	22.0	100.0
영유아자녀 있음	67.2	6.8	26.1	100.0
$\chi^2(df)$	84.040***(4)			
<b>월평균 가구 소득</b>				
379만원 이하	61.4	11.1	27.5	100.0
380~549만원	66.6	7.5	25.9	100.0
550만원 이상	66.6	8.4	25.0	100.0
$\chi^2(df)$	11.949*(4)			
<b>맞벌이 여부</b>				
외벌이	70.4	5.4	24.2	100.0
맞벌이	64.5	9.6	25.9	100.0
부부 비경제활동	70.0	3.3	26.7	100.0
미혼 경제활동	57.0	12.6	30.3	100.0
미혼 비경제활동	44.6	25.3	30.1	100.0
$\chi^2(df)$	69.374***(8)			
<b>학력</b>				
고졸 이하	59.4	12.7	27.9	100.0
대졸	65.6	8.8	25.6	100.0
대학원 졸 이상	65.7	6.5	27.8	100.0
$\chi^2(df)$	11.577*(4)			
<b>고용 형태별</b>				
규칙적 출퇴근	65.9	8.9	25.2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63.0	9.2	27.8	100.0
$\chi^2(df)$	2.869(2)			

\*  $p < .05$ , \*\*  $p < .01$ , \*\*\*  $p < .001$ .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총 자녀의 수는 2.14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 자녀가 많을수록 이상적인 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4> 이상적인 자녀의 수

단위: %

구분	총 자녀 수	성별 구분 없이 자녀 수	아들 수	딸 수
전체	2.14	0.85	0.59	0.72
<b>성별</b>				
남자	2.14	0.92	0.60	0.65
여자	2.13	0.78	0.58	0.79

구분	총 자녀 수	성별 구분 없이 자녀 수	아들 수	딸 수
<i>t</i>	2.26	3.65***	1.79**	-2.56***
연령				
20대 이하	2.11	0.63	0.65	0.80
30대	2.10	0.79	0.58	0.75
40대	2.19	0.93	0.60	0.69
50대 이상	2.18	1.00	0.56	0.62
<i>F</i>	8.28***	7.74***	2.05	0.1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13	0.89	0.57	0.69
광역시/특별자치시	2.17	0.75	0.65	0.80
중소도시	2.11	0.92	0.55	0.67
군(읍면지역)	2.19	0.80	0.60	0.81
<i>F</i>	3.32*	2.98*	3.04*	4.65**
혼인 여부				
미혼	2.12	0.81	0.61	0.74
배우자 있음	2.14	0.87	0.58	0.71
배우자 없음	2.15	0.52	0.67	1.04
<i>F</i>	11.96***	5.97**	2.06	3.15*
자녀 유무				
자녀 무	2.06	0.78	0.58	0.72
1명	2.06	0.81	0.56	0.70
2명 이상	2.27	0.94	0.61	0.74
<i>F</i>	56.63***	19.14***	13.84***	12.30***
영유아유무				
자녀 무	2.06	0.78	0.58	0.72
영유아자녀 있음	2.17	0.89	0.60	0.72
영유아자녀 없음	2.16	0.87	0.58	0.72
<i>F</i>	33.42***	11.17***	8.22***	7.35**
월 가구 소득				
379만원이하	2.18	0.76	0.65	0.80
380~549만원	2.13	0.91	0.55	0.68
550만원이상	2.11	0.89	0.56	0.68
<i>F</i>	1.35	6.27**	0.75	1.01
맞벌이 여부				
외벌이	2.17	0.83	0.61	0.75
맞벌이	2.10	0.90	0.55	0.67
부부 비경제활동	2.62	0.67	0.86	1.05
미혼 경제활동	2.12	0.79	0.59	0.75
미혼 비경제활동	2.16	0.73	0.76	0.86
<i>F</i>	11.23***	3.15*	4.62**	5.18***

구분	총 자녀 수	성별 구분 없이 자녀 수	아들 수	딸 수
학력				
고졸 이하	2.17	0.73	0.69	0.80
대졸	2.13	0.87	0.56	0.71
대학원 졸 이상	2.17	0.88	0.63	0.69
<i>F</i>	1.64	3.56*	1.38	.12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2.13	0.88	0.59	0.68
불규칙적 출퇴근 등	2.15	0.82	0.57	0.79
<i>t</i>	1.10*	1.77**	1.46*	-1.85***

\*  $p < .05$ , \*\*  $p < .01$ , \*\*\*  $p < .001$ .

### 라. 자녀에 대한 필요성

일반적으로 자녀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23.5%인데 비하여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30.8%,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응답이 42.7%로 본인의 자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연령이 더 많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 자녀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5〉 본인 자녀의 필요성

단위: %

구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모르겠음	계
	꼭 있어야 한다	없어도 무방함			
전체	30.8	42.7	23.5	3.0	100.0
성별					
남자	35.2	43.9	18.6	2.3	100.0
여자	26.5	41.5	28.4	3.7	100.0
$\chi^2(df)$	56.048***(3)				
연령					
20대 이하	25.6	45.1	24.4	4.9	100.0
30대	28.5	42.7	25.4	3.4	100.0
40대	34.6	42.6	20.6	2.2	100.0
50대 이상	32.4	42.2	22.2	3.2	100.0
$\chi^2(df)$	20.063*(9)				

지역규모

구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를 없어도 무방함				계
	꼭 있어야 한다	것보다 나를 것이다	없어도 무방함	모르겠음	
서울특별시	27.2	43.8	26.2	2.8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30.5	44.0	21.9	3.6	100.0
중소도시	33.2	41.0	22.9	2.9	100.0
군(읍면지역)	34.0	42.5	22.0	1.5	100.0
$\chi^2(df)$	14.744(9)				
혼인 여부					
미혼	13.1	36.4	43.8	6.6	100.0
배우자 있음	34.8	43.8	19.1	2.3	100.0
배우자 없음	14.9	51.1	31.9	2.1	100.0
$\chi^2(df)$	220.232***(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2.6	39.0	43.4	5.0	100.0
1명	35.9	45.2	16.4	2.5	100.0
2명 이상	40.5	43.0	14.7	1.8	100.0
$\chi^2(df)$	364.769***(6)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12.6	39.0	43.4	5.0	100.0
영유아자녀 없음	38.1	43.3	16.7	2.0	100.0
영유아자녀 있음	38.0	44.6	15.0	2.4	100.0
$\chi^2(df)$	359.891***(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25.2	42.7	28.0	4.2	100.0
380~549만원	33.9	43.6	19.9	2.7	100.0
550만원 이상	33.4	41.8	22.6	2.2	100.0
$\chi^2(df)$	38.773***(6)				
맞벌이 여부					
외벌이	36.9	43.4	17.2	2.5	100.0
맞벌이	33.5	44.2	20.2	2.0	100.0
부부 비경제활동	23.3	40.0	33.3	3.3	100.0
미혼 경제활동	12.8	38.5	42.4	6.3	100.0
미혼 비경제활동	15.7	32.5	45.8	6.0	100.0
$\chi^2(df)$	223.103***(12)				
학력					
고졸 이하	25.8	42.6	26.4	5.2	100.0
대졸	31.0	42.4	23.8	2.9	100.0
대학원 졸 이상	35.4	44.7	18.3	1.7	100.0
$\chi^2(df)$	19.782**(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32.2	42.0	23.3	2.5	100.0

구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없어도 무방함	모르겠음	
불규칙적 출퇴근 등	28.4	43.9	23.9	3.8	100.0
$\chi^2(df)$	8.013*(3)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서는 전체적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이 47.1%, 다음으로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가 43.4%, 가문을 잇기 위해서 2.9%, 배우자 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가 2.6% 순이었다.

<표 II-2-6> 자녀가 있어야 하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배우자 (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	노후생활을 위해서	가문 (대)을 잇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기타	계
전체	2.6	1.5	2.9	1.6	47.1	43.4	1.0	100.0
성별								
남자	2.8	1.2	4.1	2.5	44.8	44.2	0.4	100.0
여자	2.3	1.8	1.4	.6	49.8	42.4	1.7	100.0
$\chi^2(df)$	41.468***(6)							
연령								
20대 이하	5.2	3.4	1.7	1.7	50.0	36.2	1.7	100.0
30대	2.8	1.7	3.0	1.5	45.8	43.9	1.1	100.0
40대	2.0	.9	2.7	1.3	48.9	43.4	0.7	100.0
50대 이상	2.2	2.2	2.9	3.6	47.1	40.6	1.4	100.0
$\chi^2(df)$	15.086(18)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4	1.9	4.2	2.1	46.0	42.3	1.1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3.3	1.6	2.7	1.7	47.9	41.7	1.1	100.0
중소도시	2.2	1.1	2.2	1.3	47.0	45.5	0.7	100.0
군(읍면지역)	2.0	2.0	2.0	.7	49.0	42.5	2.0	100.0
$\chi^2(df)$	15.915(18)							
혼인 여부								
미혼	1.5	5.0	9.2	2.3	45.6	36.0	0.4	100.0
배우자 있음	2.7	1.0	2.0	1.5	47.3	44.4	1.1	100.0
배우자 없음	3.2	3.2	3.2	3.2	51.6	35.5	0.0	100.0
$\chi^2(df)$	75.247***(12)							

구분	배우자 (또는 양가 부모)가 원하니까	노후생 활을 위해서	가문 (대)을 잇기 위해서	경제적으 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보람 등 심리적인 만족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서	기타	계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4	4.2	6.4	2.6	44.2	39.7	0.4	100.0
1명	2.7	.8	2.4	1.6	49.4	41.5	1.6	100.0
2명 이상	2.4	.8	1.5	1.0	46.2	47.3	0.7	100.0
$\chi^2(df)$	71.308***(12)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2.4	4.2	6.4	2.6	44.2	39.7	0.4	100.0
영유아자녀 없음	2.1	.5	1.6	1.0	48.9	45.2	0.8	100.0
영유아자녀 있음	2.8	1.0	2.2	1.5	47.4	43.8	1.3	100.0
$\chi^2(df)$	65.481***(12)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3.0	2.0	3.0	2.3	45.3	43.3	1.1	100.0
380~549만원	2.2	1.4	2.4	1.3	49.0	43.0	0.8	100.0
550만원 이상	2.5	1.1	3.2	1.3	47.0	43.8	1.1	100.0
$\chi^2(df)$	8.838(12)							
맞벌이 여부								
외벌이	2.7	.5	1.2	1.2	47.2	46.2	1.2	100.0
맞벌이	2.6	1.5	2.7	1.7	47.5	42.9	1.1	100.0
부부 비경제활동	5.3				42.1	52.6	0.0	100.0
미혼 경제활동	2.0	4.8	9.5	2.0	46.4	34.9	0.4	100.0
미혼 비경제활동		5.0	2.5	5.0	45.0	42.5	0.0	100.0
$\chi^2(df)$	90.859***(24)							
학력								
고졸 이하	4.2	1.1	3.8	3.4	43.8	43.4	0.4	100.0
대졸	2.4	1.5	2.6	1.1	47.6	43.7	1.1	100.0
대학원 졸 이상	2.1	1.8	3.5	2.8	47.7	41.1	1.1	100.0
$\chi^2(df)$	18.017(12)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2.5	1.3	3.4	1.5	46.8	43.8	0.7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7	1.8	1.8	1.7	47.7	42.6	1.6	100.0
$\chi^2(df)$	10.415(6)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

반면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2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가 18.6%,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16.5%, “부부만

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가 13.9%였다.

〈표 II-2-7〉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전체	16.5	2.9	13.9	18.6	2.8	0.6	1.4	12.4	2.5	24.2	4.3	100.0
성별												
남자	17.8	1.0	20.6	13.2	3.8	1.0	1.4	15.0	3.8	18.5	3.8	100.0
여자	15.7	4.1	9.6	22.1	2.1	0.2	1.4	10.7	1.6	28.0	4.6	100.0
$\chi^2(df)$	45.345*** (10)											
연령												
20대 이하	15.0	5.0	15.0	35.0	-	-	-	10.0	-	20.0	0.0	100.0
30대	15.9	2.7	14.1	18.9	2.7	0.9	1.6	9.8	2.5	26.2	4.6	100.0
40대	19.5	3.5	13.3	17.3	3.5	-	0.9	16.8	2.7	19.5	3.1	100.0
50대 이상	7.3	-	14.6	14.6	-	-	2.4	17.1	2.4	31.7	9.8	100.0
$\chi^2(df)$	30.577(30)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5.6	3.0	16.5	16.5	4.3	1.7	2.2	11.3	0.4	24.2	4.3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16.6	4.3	11.2	18.2	3.2	-	1.1	13.9	3.2	24.6	3.7	100.0
중소도시	16.3	1.9	14.4	21.3	1.5	-	1.1	12.9	4.2	22.1	4.2	100.0
군(읍면지역)	22.7	2.3	9.1	15.9	-	-	-	6.8	-	36.4	6.8	100.0
$\chi^2(df)$	37.478(30)											
혼인 여부												
미혼	18.6	3.0	8.2	15.6	4.3	0.4	0.9	10.0	0.9	32.5	5.6	100.0
배우자 있음	15.6	2.9	16.5	20.4	1.9	0.6	1.5	13.8	3.3	20.0	3.5	100.0
배우자 없음	13.3	-	20.0	6.7	6.7	-	6.7	6.7	-	33.3	6.7	100.0
$\chi^2(df)$	39.224** (2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8.1	2.6	11.8	16.3	4.2	0.8	1.0	9.2	3.7	27.6	4.7	100.0
1명	10.4	3.1	16.1	23.8	0.5	-	1.6	18.1	1.0	21.2	4.1	100.0
2명 이상	20.4	3.3	16.4	17.8	2.0	0.7	2.0	13.2	1.3	19.7	3.3	100.0
$\chi^2(df)$	39.366** (20)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18.1	2.6	11.8	16.3	4.2	0.8	1.0	9.2	3.7	27.6	4.7	100.0
영유아자녀 없음	15.6	2.3	14.8	21.9	0.8	-	2.3	19.5	0.8	18.0	3.9	100.0
영유아자녀 있음	14.3	3.7	17.1	20.7	1.4	0.5	1.4	13.8	1.4	22.1	3.7	100.0
$\chi^2(df)$	33.8* (20)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18.1	2.4	9.4	14.6	3.5	0.7	1.0	16.0	2.1	28.1	4.2	100.0
380~549만원	17.4	3.0	14.4	19.4	2.0	0.5	2.0	12.4	3.0	21.4	4.5	100.0
550만원 이상	13.9	3.4	19.0	22.8	2.5	0.4	1.3	8.0	2.5	21.9	4.2	100.0
$\chi^2(df)$	27.415(20)											
맞벌이 여부												
외벌이	13.6	1.6	16.8	20.7	2.7	-	2.2	14.7	4.3	19.0	4.3	100.0
맞벌이	16.4	3.8	16.8	19.9	1.4	1.0	1.0	12.9	2.8	20.6	3.1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계
부부 비경제활동	30.0	-	-	30.0	-	-	-	20.0	-	20.0	0.0	100.0
미혼 경제활동	18.3	2.9	9.1	14.9	4.8	0.5	1.4	9.6	1.0	31.3	6.3	100.0
미혼 비경제활동	18.4	2.6	7.9	15.8	2.6	-	-	10.5	-	39.5	2.6	100.0
$\chi^2(df)$	49.63(40)											
학력												
고졸 이하	15.7	3.9	7.8	18.6	3.9	1.0	1.0	10.8	1.0	34.3	2.0	100.0
대졸	16.6	2.7	15.2	17.2	2.7	0.5	1.6	12.7	2.5	23.4	4.8	100.0
대학원 졸 이상	16.9	3.1	12.3	30.8	1.5	-	-	12.3	4.6	15.4	3.1	100.0
$\chi^2(df)$	23.399(20)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16.2	3.1	16.4	18.2	2.2	0.4	1.3	11.2	2.4	24.1	4.6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17.1	2.6	9.7	19.3	3.7	0.7	1.5	14.5	2.6	24.5	3.7	100.0
$\chi^2(df)$	9.504(10)											

주: ①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②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③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④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⑤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⑥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⑦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⑧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⑨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⑩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⑪기타

\*  $p < .05$ , \*\*  $p < .01$ , \*\*\*  $p < .001$ .

## 마. 양육 태도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를 물었다.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는 견해에 대하여 전체 평균이 100점 만점에 66.10점을 기록하여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가 없거나 수가 적을수록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52점을 기록했다. 즉 남자가, 학력이 높을수록 위의 견해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는 의견에는 전체 52.47점을 나타냈는데,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에 동의도가 높았다.

“자녀가 하기에 벅찬 일일지라도 혼자서 해보도록 해야한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67.45점으로 긍정적인 견해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49.61점의 동의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사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53.34점의 동의도를 보였는데, 여성이, 대도시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도를 보였다.

〈표 II-2-8〉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단위: 점

구분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자녀가 하기에 벅찬 일일지라도 혼자서 해보도록 해야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66.10	48.52	52.47	67.45	49.61	53.34
성별						
남자	65.20	50.83	54.01	67.96	51.83	52.15
여자	66.99	46.21	50.95	66.95	47.39	54.52
<i>t</i>	-2.23	5.60*	3.18	1.47*	5.59	-2.83***
연령						
20대 이하	69.92	44.31	54.88	69.51	43.90	48.78
30대	67.15	48.02	52.61	67.69	47.16	52.98
40대	64.96	49.47	52.48	66.94	52.79	54.82
50대 이상	61.26	49.37	50.09	67.39	56.22	49.91
<i>F</i>	5.94***	1.88	.73	.66	22.33***	4.01**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66.33	49.62	53.44	67.61	50.53	55.56
광역시/특별자치시	65.77	49.04	54.08	66.74	49.32	52.68
중소도시	66.32	47.49	50.42	68.09	49.29	52.86
군(읍면지역)	65.33	47.67	53.17	66.17	49.00	49.33
<i>F</i>	.21	1.68	3.71*	1.13	.69	5.03**
혼인 여부						
미혼	67.81	48.70	55.66	68.12	48.70	53.32
배우자 있음	65.71	48.43	51.81	67.25	49.72	53.37
배우자 없음	67.38	51.06	52.48	70.92	53.90	51.77
<i>F</i>	1.99	.32	4.53*	1.23	1.35	.11
자녀 유무						
자녀 무	68.03	48.71	55.85	68.03	48.63	53.11
1명	65.70	47.00	48.90	67.54	48.19	53.11
2명 이상	64.90	50.08	53.69	66.86	52.05	53.78
<i>F</i>	5.00**	4.98**	18.78***	.91	9.59***	.29
영유아유무						
자녀 무	68.03	48.71	55.85	68.03	48.63	53.11
영유아자녀 있음	64.49	49.33	51.06	66.97	54.02	54.28

구분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자녀가 하기에 벅찬 일일지라도 혼자서 해보도록 해야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유아자녀 없음	65.77	47.97	51.18	67.36	47.86	52.97
<i>F</i>	5.45**	.91	9.79***	.66	20.85***	.84
월 가구 소득						
379만원이하	66.99	48.46	53.51	66.67	48.27	50.18
380~549만원	66.27	48.42	53.10	67.23	50.03	54.05
550만원이상	65.05	48.67	50.86	68.44	50.51	55.75
<i>F</i>	2.02	.03	2.97	2.34	2.94	15.67***
맞벌이 여부						
외벌이	66.92	47.92	51.87	66.48	49.04	52.64
맞벌이	64.85	48.88	51.71	67.87	50.18	54.09
부부 비경제활동	63.33	45.56	54.44	65.56	52.22	45.56
미혼 경제활동	68.02	49.83	56.62	68.43	49.42	53.77
미혼 비경제활동	66.27	43.37	48.19	67.87	47.39	49.80
<i>F</i>	2.49*	1.83	3.96**	1.26	.73	1.96
학력						
고졸 이하	67.87	47.72	54.26	64.69	50.90	50.04
대졸	65.80	48.15	52.57	67.83	49.09	53.52
대학원 졸 이상	66.10	51.78	49.91	67.98	51.59	55.71
<i>F</i>	1.43	4.10*	2.52	4.64*	2.73	5.80**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65.34	49.58	53.09	67.55	50.44	53.90
불규칙적 출퇴근 등	67.41	46.67	51.40	67.29	48.15	52.35
<i>t</i>	-2.48	3.38	1.68	.37	2.77	1.78

\*  $p < .05$ , \*\*  $p < .01$ , \*\*\*  $p < .001$ .

### 바.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은 24.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이 22.8%,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어서가 15.1% 순으로 응답했다. 비용에 대한 부담은 남자,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9〉 자녀 양육의 어려움(1순위)

단위: %, (명)

구분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의 신체적 건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기타	수
전체	22.8	24.6	7.4	4.0	12.1	8.6	15.1	5.3	0.1	(3091)
성별										
남자	23.5	26.4	8.3	4.9	10.3	10.2	12.6	3.6	0.1	(1543)
여자	22.1	22.9	6.5	3.1	13.8	7.0	17.6	6.9	0.1	(1548)
$\chi^2(df)$	59.495***(8)									
연령										
20대 이하	14.6	23.2	6.1	3.7	13.4	9.8	20.7	8.5	0.0	( 82)
30대	23.5	23.2	6.7	2.5	11.9	8.8	17.5	5.8	0.1	(1729)
40대	22.8	26.4	8.6	4.9	11.6	8.9	12.4	4.3	0.1	(1095)
50대 이상	20.0	28.1	7.6	12.4	16.2	4.9	5.9	4.3	0.5	( 185)
$\chi^2(df)$	93.022***(24)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4.6	23.9	7.6	3.9	11.8	7.5	16.2	4.5	0.0	( 882)
광역시/특별자치시	22.6	22.2	7.6	4.7	13.4	10.2	14.0	5.2	0.2	( 853)
중소도시	22.6	27.2	6.4	3.4	11.3	8.3	15.1	5.5	0.2	(1149)
군(읍면지역)	17.0	23.0	10.5	5.5	12.0	8.5	15.5	8.0	0.0	( 200)
$\chi^2(df)$	30.675(24)									
혼인 여부										
미혼	22.8	30.2	6.3	1.3	14.8	4.2	14.2	6.1	0.2	( 527)
배우자 있음	22.9	23.4	7.6	4.5	11.4	9.6	15.5	4.9	0.1	(2517)
배우자 없음	17.0	27.7	6.4	6.4	17.0	4.3	6.4	14.9	0.0	( 47)
$\chi^2(df)$	55.664***(1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3.9	28.6	6.8	2.2	12.8	4.8	14.8	6.0	0.1	( 878)
1명	23.3	22.1	6.6	3.8	11.0	11.0	16.6	5.5	0.1	(1178)
2명 이상	21.3	24.2	8.7	5.8	12.8	9.1	13.7	4.3	0.2	(1035)
$\chi^2(df)$	61.572***(16)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23.9	28.6	6.8	2.2	12.8	4.8	14.8	6.0	0.1	( 878)
영유아자녀 없음	22.9	26.1	9.1	8.5	11.6	8.5	9.1	4.2	0.0	( 767)
영유아자녀 있음	22.1	21.4	6.8	2.8	11.9	11.0	18.5	5.4	0.2	(1446)
$\chi^2(df)$	126.937***(16)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의 신체적 건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기타	수
379만원 이하	17.7	28.2	7.8	2.6	13.2	8.5	15.9	5.9	0.2	(1029)
380~549만원	23.3	26.2	6.7	3.8	11.5	9.4	13.7	5.4	0.0	(1012)
550만원 이상	27.3	19.6	7.6	5.6	11.5	8.0	15.6	4.5	0.2	(1050)
$\chi^2(df)$	60.016***(16)									
맞벌이 여부										
외벌이	15.4	26.5	9.0	4.8	12.4	10.3	17.2	4.4	0.2	(1072)
맞벌이	28.8	20.7	6.6	4.4	10.5	9.3	14.3	5.3	0.1	(1415)
부부 비경제활동	16.7	40.0	10.0	3.3	16.7	-	6.7	6.7	0.0	( 30)
미혼 경제활동	21.6	29.9	6.1	2.0	15.1	4.5	14.1	6.7	0.0	( 491)
미혼 비경제활동	26.5	30.1	7.2	-	14.5	2.4	10.8	7.2	1.2	( 83)
$\chi^2(df)$	132.421***(32)									
학력										
고졸 이하	18.1	28.7	8.3	4.4	12.1	8.0	12.4	7.8	0.3	( 387)
대졸	23.2	24.6	7.1	3.9	11.8	8.6	15.8	5.0	0.1	(2348)
대학원 졸 이상	25.6	20.5	8.4	4.2	13.5	9.6	13.5	4.5	0.3	( 356)
$\chi^2(df)$	22.866(1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26.0	23.6	7.0	4.1	11.4	9.2	13.6	5.0	0.1	(1964)
불규칙적 출퇴근 등	17.2	26.4	8.0	3.9	13.2	7.5	17.7	5.8	0.3	(1127)
$\chi^2(df)$	42.976***(8)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

## 사. 자녀 교육관

자녀의 성공의 척도를 물었을 때 응답자는 주로 두 가지 답변으로 물렸다. 먼저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29.3%)이라고 택하거나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28.1%)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이러한 선택에는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연령별로는 20대, 자녀가 있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응답은 30대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 학력이 높은 경우에 높았다.

〈표 II-2-10〉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명문대 학에 진학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남	자녀가 경제적 으로 잘 삶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기타	수
전체	5.7	28.1	10.0	2.3	17.7	29.3	6.5	0.4	(3091)
성별									
남자	5.8	27.5	8.9	2.8	18.0	29.9	6.7	0.3	(1543)
여자	5.6	28.6	11.1	1.9	17.4	28.6	6.3	0.5	(1548)
$\chi^2(df)$					7.841(7)				
연령									
20대 이하	1.2	24.4	12.2	1.2	15.9	32.9	11.0	1.2	( 82)
30대	4.5	30.6	9.1	2.6	17.5	28.2	7.1	0.5	(1729)
40대	7.6	25.7	10.8	1.2	18.6	30.9	5.1	0.2	(1095)
50대 이상	7.6	20.5	13.5	7.0	15.1	28.6	7.6	0.0	( 185)
$\chi^2(df)$					69.905***(21)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6.9	27.2	11.1	2.5	18.1	28.5	5.2	0.5	( 882)
광역시/특별자치시	6.0	26.8	10.7	3.0	17.1	28.3	7.5	0.6	( 853)
중소도시	4.7	29.9	8.7	1.4	17.7	30.5	7.0	0.2	(1149)
군(읍면지역)	4.0	27.0	10.5	3.5	18.5	30.5	5.5	0.5	( 200)
$\chi^2(df)$					26.771(21)				
혼인 여부									
미혼	5.1	28.7	13.5	2.5	19.9	24.5	5.7	0.2	( 527)
배우자 있음	5.7	28.0	9.3	2.3	17.3	30.4	6.6	0.4	(2517)
배우자 없음	10.6	27.7	8.5	4.3	14.9	25.5	8.5	0.0	( 47)
$\chi^2(df)$					19.791(14)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5	30.5	11.3	2.1	19.7	24.9	5.8	0.2	( 878)
1명	4.9	28.0	9.0	2.0	16.4	31.6	7.6	0.6	(1178)
2명 이상	6.7	26.1	10.1	3.0	17.6	30.3	5.9	0.3	(1035)
$\chi^2(df)$					28.660*(14)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5.5	30.5	11.3	2.1	19.7	24.9	5.8	0.2	( 878)
영유아자녀 없음	7.4	23.1	12.4	2.3	17.6	32.6	4.6	0.0	( 767)
영유아자녀 있음	4.8	29.3	8.0	2.5	16.6	30.2	8.0	0.7	(1446)
$\chi^2(df)$					55.934***(14)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4.5	28.8	9.7	2.7	17.2	29.1	7.9	0.2	(1029)
380~549만원	5.4	27.4	10.4	2.0	17.6	30.3	6.5	0.4	(1012)
550만원 이상	7.0	28.1	10.0	2.3	18.4	28.5	5.1	0.6	(1050)
$\chi^2(df)$					16.953(14)				

구분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남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삶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기타	수
맞벌이 여부									
외벌이	5.4	27.7	8.5	2.3	16.3	32.8	6.6	0.3	(1072)
맞벌이	5.9	28.3	10.0	2.2	18.0	28.6	6.5	0.6	(1415)
부부 비경제활동	6.7	23.3	6.7	3.3	20.0	26.7	13.3	0.0	( 30)
미혼 경제활동	5.5	28.9	13.2	2.4	19.1	24.8	5.7	0.2	( 491)
미혼 비경제활동	6.0	26.5	12.0	3.6	21.7	22.9	7.2	0.0	( 83)
$\chi^2(df)$	27.054(28)								
학력									
고졸 이하	4.9	24.3	8.3	4.1	23.0	26.9	8.5	0.0	( 387)
대졸	5.5	27.8	10.5	2.1	17.5	29.9	6.1	0.4	(2348)
대학원 졸업 이상	7.3	34.0	8.7	1.7	13.2	27.5	6.7	0.8	( 356)
$\chi^2(df)$	35.509**(14)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5.5	28.2	10.2	2.1	18.1	28.6	6.8	0.5	(1964)
불규칙적 출퇴근 등	5.9	27.9	9.7	2.8	17.0	30.5	6.0	0.2	(1127)
$\chi^2(df)$	5.908(7)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자녀를 기르는 데 방향성을 경제적인 안정성과 열정에 따른 삶으로 양분하여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 성별로는 남자가, 자녀유무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열정적인 삶을 선호하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여성,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안정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표 II-2-11〉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호도-경제적 안정 vs 열정에 따른 삶

단위: %, 점

구분	경제적 안정		↔		열정에 따른 삶	계	평균
	1	2	3	4	5		
전체	25.1	22.5	25.1	19.4	7.9	100.0	40.61
성별							
남자	22.0	23.8	24.2	22.3	7.6	100.0	42.43
여자	28.2	21.3	25.9	16.6	8.1	100.0	38.79
$\chi^2(df)/t$	27.679***(4)						3.208**
연령							
20대 이하	18.3	22.0	29.3	22.0	8.5	100.0	45.12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경제적 안정		↔		열정에 따른 삶	계	평균
	1	2	3	4	5		
30대	23.8	24.2	26.8	17.7	7.6	100.0	40.28
40대	27.4	20.5	22.1	21.6	8.4	100.0	40.80
50대 이상	27.0	19.5	24.9	21.6	7.0	100.0	40.54
$\chi^2(dh)/F$	23.655*(12)						.63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0.3	26.8	23.5	21.1	8.4	100.0	42.63
광역시/특별자치시	26.3	20.3	28.1	18.5	6.8	100.0	39.83
중소도시	27.3	21.8	24.1	19.1	7.6	100.0	39.45
군(읍면지역)	27.5	17.5	25.0	18.0	12.0	100.0	42.38
$\chi^2(dh)/F$	35.105***(12)						2.103
혼인 여부							
미혼	23.5	23.0	26.4	16.5	10.6	100.0	41.94
배우자 있음	25.2	22.6	24.8	20.2	7.3	100.0	40.43
배우자 없음	36.2	14.9	27.7	12.8	8.5	100.0	35.64
$\chi^2(dh)/F$	15.063(8)						1.088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2.3	23.6	25.4	18.8	9.9	100.0	42.60
1명	24.6	23.4	26.8	18.0	7.1	100.0	39.90
2명 이상	28.0	20.6	22.8	21.6	7.0	100.0	39.73
$\chi^2(dh)/F$	23.119**(8)						2.434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22.3	23.6	25.4	18.8	9.9	100.0	42.60
영유아자녀 없음	30.9	20.7	20.7	19.8	7.8	100.0	38.23
영유아자녀 있음	23.7	22.8	27.2	19.6	6.6	100.0	40.66
$\chi^2(dh)/F$	31.723***(8)						3.914*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27.8	18.6	27.3	17.3	9.0	100.0	40.31
380~549만원	24.3	22.9	24.9	20.1	7.8	100.0	41.03
550만원 이상	23.2	26.0	23.0	21.0	6.8	100.0	40.50
$\chi^2(dh)/F$	28.631***(8)						.144
맞벌이 여부							
외벌이	26.9	22.4	25.5	17.7	7.6	100.0	39.18
맞벌이	23.8	22.8	24.2	22.1	7.1	100.0	41.50
부부 비경제활동	33.3	20.0	26.7	16.7	3.3	100.0	34.17
미혼 경제활동	23.8	22.2	26.9	16.9	10.2	100.0	41.85
미혼 비경제활동	28.9	22.9	24.1	12.0	12.0	100.0	38.86
$\chi^2(dh)/F$	23.250(16)						1.398
학력							
고졸 이하	37.7	15.2	24.0	14.5	8.5	100.0	35.21
대졸	23.6	23.4	25.3	20.0	7.8	100.0	41.26
대학원 졸 이상	21.6	24.7	24.7	21.1	7.9	100.0	42.21
$\chi^2(dh)/F$	45.448***(8)						6.629**
고용 형태별							

구분	경제적 안정		↔		열정에 따른 삶		계	평균
	1	2	3	4	5			
규칙적 출퇴근	23.0	24.2	24.8	20.6	7.3	100.0	41.24	
불규칙적 출퇴근 등	28.7	19.5	25.5	17.5	8.8	100.0	39.51	
$\chi^2(df)/t$	21.999***(4)						1.469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경제적 안정에 동의할 경우(1점)~열정에 따른 삶에 동의할 경우(5점)으로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낮을수록 열정에 따른 삶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선호함.

\*  $p < .05$ , \*\*  $p < .01$ , \*\*\*  $p < .001$ .

친구같은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에 대한 부모역할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권위 있는 부모상을 택한 경우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대도시에 살수록, 맞벌이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규칙적으로 출퇴근할 경우 권위적인 부모상을 선호했다. 반면 친구 같은 부모를 선호하는 경우는 여성일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소규모 도시에 살수록, 외벌이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불규칙적인 고용형태를 보일 경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2-12〉 부모역할 선호도-친구같은 부모 vs 권위 있는 부모

단위: %, 점

구분	친구		↔		권위		계	평균
	1	2	3	4	5			
전체	40.3	33.9	18.9	5.8	1.1	100.0	23.39	
성별								
남자	33.4	36.8	21.3	7.3	1.2	100.0	26.54	
여자	47.2	31.1	16.4	4.3	1.0	100.0	20.25	
$\chi^2(df)/t$	65.554***(4)						7.346***	
연령								
20대 이하	54.9	22.0	13.4	8.5	1.2	100.0	19.82	
30대	41.9	33.5	18.6	5.2	.8	100.0	22.40	
40대	36.8	35.8	19.9	5.8	1.6	100.0	24.93	
50대 이상	39.5	32.4	17.3	9.7	1.1	100.0	25.14	
$\chi^2(df)/F$	26.962**(12)						3.434*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5.0	35.0	21.5	7.0	1.4	100.0	26.16	
광역시/특별자치시	38.6	33.3	20.4	6.3	1.4	100.0	24.68	
중소도시	44.0	34.4	16.3	4.4	1.0	100.0	20.95	
군(읍면지역)	48.0	29.5	16.0	6.5	-	100.0	20.25	
$\chi^2(df)/F$	35.217***(12)						9.912***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친구		↔		권위	계	평균	
	1	2	3	4	5			
<b>혼인 여부</b>								
미혼	37.8	34.3	22.4	4.4	1.1	100.0	24.19	
배우자 있음	40.7	34.0	18.1	6.1	1.1	100.0	23.22	
배우자 없음	46.8	23.4	21.3	6.4	2.1	100.0	23.40	
$\chi^2(df)/F$							10.108(8)	.357
<b>자녀 유무</b>								
자녀 없음	37.0	35.6	22.0	4.2	1.1	100.0	24.20	
1명	43.2	30.7	18.3	6.5	1.2	100.0	22.94	
2명 이상	39.7	36.1	16.8	6.3	1.1	100.0	23.21	
$\chi^2(df)/F$							23.133**(8)	.738
<b>영유아 자녀유무</b>								
자녀 없음	37.0	35.6	22.0	4.2	1.1	100.0	24.20	
영유아자녀 없음	40.7	34.3	16.8	6.9	1.3	100.0	23.47	
영유아자녀 있음	42.0	32.7	18.0	6.2	1.0	100.0	22.86	
$\chi^2(df)/F$							17.709*(8)	.866
<b>월평균 가구 소득</b>								
379만원 이하	42.7	30.6	20.8	4.7	1.3	100.0	22.81	
380~549만원	40.1	34.6	18.8	5.4	1.1	100.0	23.20	
550만원 이상	38.1	36.6	17.0	7.2	1.0	100.0	24.14	
$\chi^2(df)/F$							18.718*(8)	.847
<b>맞벌이 여부</b>								
외벌이	43.4	32.9	18.3	4.6	.8	100.0	21.64	
맞벌이	38.4	35.2	17.9	7.2	1.3	100.0	24.49	
부부 비경제활동	53.3	20.0	20.0	6.7		100.0	20.00	
미혼 경제활동	36.5	34.6	23.0	4.7	1.2	100.0	24.90	
미혼 비경제활동	50.6	26.5	18.1	3.6	1.2	100.0	19.58	
$\chi^2(df)/F$							29.807*(16)	3.332**
<b>학력</b>								
고졸 이하	50.4	23.5	19.1	4.7	2.3	100.0	21.25	
대졸	39.9	34.5	19.0	5.7	.9	100.0	23.25	
대학원 졸 이상	31.5	41.6	17.7	7.6	1.7	100.0	26.62	
$\chi^2(df)/F$							46.103*** (8)	4.800**
<b>고용 형태별</b>								
규칙적 출퇴근	36.3	36.3	19.8	6.6	1.0	100.0	24.95	
불규칙적 출퇴근 등	47.2	29.9	17.2	4.3	1.3	100.0	20.67	
$\chi^2(df)/t$							39.187*** (4)	4.784***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친구같은 부모에 동의할 경우(1점)~권위 있는 부모에 동의할 경우(5점)으로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낮을 수록 권위 있는 부모보다는 친구같은 부모를 선호함.

\*  $p < .05$ , \*\*  $p < .01$ , \*\*\*  $p < .001$ .

자녀의 최종학력과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인 54.4%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력은 상관없다는 비중이 높아져 학력에 대한 연령별 생각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자녀의 학력이 상관없다는 비중이 40.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2-13〉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희망

단위: %

구분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석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	상관없다	계
전체	2.9	4.5	54.4	8.5	5.6	24.1	100.0
성별							
남자	3.2	4.1	53.7	8.4	6.1	24.5	100.0
여자	2.5	4.8	55.0	8.7	5.1	23.8	100.0
$\chi^2(df)$				4.281(5)			
연령							
20대 이하	9.8	9.8	35.4	2.4	2.4	40.2	100.0
30대	3.2	3.7	52.8	8.6	5.0	26.8	100.0
40대	2.1	5.7	57.2	8.6	6.6	19.9	100.0
50대 이상	1.6	2.2	61.1	10.8	7.0	17.3	100.0
$\chi^2(df)$				75.196***(15)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5	2.4	56.2	10.7	6.8	21.4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3.9	5.4	53.5	7.7	5.0	24.5	100.0
중소도시	2.3	4.7	54.7	7.9	5.2	25.2	100.0
군(읍면지역)	3.5	8.5	47.5	6.5	5.0	29.0	100.0
$\chi^2(df)$				39.890***(15)			
혼인 여부							
미혼	4.9	6.8	50.3	6.5	5.1	26.4	100.0
배우자 있음	2.3	3.9	55.5	9.1	5.7	23.6	100.0
배우자 없음	10.6	6.4	42.6	4.3	6.4	29.8	100.0
$\chi^2(df)$				39.259***(1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4.4	5.5	52.4	7.1	4.7	26.0	100.0
1명	2.5	3.7	52.1	10.3	7.0	24.4	100.0
2명 이상	1.9	4.5	58.6	7.8	4.8	22.2	100.0
$\chi^2(df)$				36.258***(10)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4.4	5.5	52.4	7.1	4.7	26.0	100.0
영유아자녀 없음	1.8	4.3	61.0	8.6	6.3	18.0	100.0
영유아자녀 있음	2.5	3.9	52.1	9.4	5.8	26.3	100.0
$\chi^2(df)$				43.889***(10)			

구분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석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	상관없다	계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4.2	6.9	50.1	5.4	4.1	29.3	100.0
380~549만원	2.7	3.8	57.8	8.4	4.6	22.7	100.0
550만원 이상	1.8	2.8	55.2	11.7	8.0	20.5	100.0
$\chi^2(df)$	96.200***(10)						
맞벌이 여부							
외벌이	2.3	4.7	55.1	7.4	5.2	25.3	100.0
맞벌이	2.1	3.4	55.8	10.3	6.1	22.2	100.0
부부 비경제활동	10.0	3.3	50.0	10.0		26.7	100.0
미혼 경제활동	5.5	7.1	49.9	6.1	5.3	26.1	100.0
미혼 비경제활동	4.8	4.8	48.2	7.2	4.8	30.1	100.0
$\chi^2(df)$	55.182***(20)						
학력							
고졸 이하	12.4	9.8	41.1	5.2	2.8	28.7	100.0
대졸	1.6	4.2	60.2	6.6	4.5	23.0	100.0
대학원 졸 이상	0.8	0.6	30.6	25.0	16.0	27.0	100.0
$\chi^2(df)$	455.311***(10)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3.2	3.8	54.1	9.1	6.5	23.4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4	5.7	54.9	7.6	4.0	25.4	100.0
$\chi^2(df)$	18.401**(5)						

\*\*  $p < .01$ , \*\*\*  $p < .001$ .

### 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 가. 육아행복감 및 가치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33.5%,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성취감 32.3%,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정 과하지 30.5%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중 성별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자는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성취감을 더 많이 선택한 반면, 여자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정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꼽았다. 연령에 있어서는 보다 젊을수록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는 성취감을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

〈표 II-3-1〉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

단위: %

구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자녀 돌봄과 지도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기타	계
전체	32.3	33.5	3.5	30.5	0.2	100.0
성별						
남자	36.8	32.8	5.4	25.0	0.0	100.0
여자	27.8	34.1	1.6	36.0	0.4	100.0
$\chi^2(df)$			87.735***(4)			
연령					0.0	
20대 이하	23.2	50.0	3.7	23.2	0.0	100.0
30대	30.9	33.4	3.7	31.7	0.3	100.0
40대	33.7	33.8	3.6	28.9	0.1	100.0
50대 이상	41.1	24.9	1.1	33.0	0.0	100.0
$\chi^2(df)$			27.829**(1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1.1	31.7	4.4	32.7	0.1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31.8	35.3	3.9	28.8	0.2	100.0
중소도시	33.4	33.7	2.8	29.9	0.2	100.0
군(읍면지역)	34.0	31.5	1.5	32.5	0.5	100.0
$\chi^2(df)$			13.304(12)			
혼인 여부						
미혼	30.2	32.3	3.8	33.4	0.4	100.0
배우자 있음	32.8	33.7	3.5	29.8	0.2	100.0
배우자 없음	31.9	31.9	-	36.2	0.0	100.0
$\chi^2(df)$			6.502(8)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8.5	33.9	3.6	33.7	0.2	100.0
1명	32.3	33.7	3.6	30.1	0.3	100.0
2명 이상	35.6	32.8	3.3	28.3	0.1	100.0
$\chi^2(df)$			13.235(8)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28.5	33.9	3.6	33.7	0.2	100.0
영유아자녀 없음	34.7	31.6	2.9	30.9	0.0	100.0
영유아자녀 있음	33.4	34.2	3.7	28.4	0.3	100.0
$\chi^2(df)$			15.226(8)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31.8	32.6	4.4	31.1	0.2	100.0
380~549만원	34.4	34.8	3.1	27.6	0.2	100.0
550만원 이상	30.9	33.0	3.0	32.9	0.2	100.0
$\chi^2(df)$			11.250(8)			
맞벌이 여부						

구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자녀 돌봄과 지도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기타	계
외벌이	34.3	32.3	2.7	30.6	0.1	100.0
맞벌이	31.7	34.7	4.1	29.3	0.2	100.0
부부 비경제활동	30.0	40.0	3.3	26.7	0.0	100.0
미혼 경제활동	30.1	32.8	4.1	32.6	0.4	100.0
미혼 비경제활동	31.3	28.9	-	39.8	0.0	100.0
$\chi^2(df)$			16.915(16)			
학력						
고졸 이하	33.9	31.8	3.9	30.0	0.5	100.0
대졸	32.0	34.1	3.7	30.1	0.1	100.0
대학원 졸 이상	32.9	31.2	1.4	34.3	0.3	100.0
$\chi^2(df)$			11.159(8)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33.8	34.3	3.8	28.0	0.2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9.8	32.0	2.9	35.0	0.2	100.0
$\chi^2(df)$			17.972**(4)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자녀 양육을 행복한일, 육체적으로 힘든 일, 심리적인 부담,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먼저 응답자중 가장 많은 긍정적 답변을 받은 항목은 자녀 양육을 행복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었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혼인 여부에 따라 미혼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자녀 양육을 행복한 일로 여기는 정도가 낮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두 번째로 자녀 양육을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한 비교를 하자면, 여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일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육체적 어려움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다.

세 번째로 자녀 양육을 심리적인부담으로 여기는지 물었을 때 여성이, 미혼이, 자녀가 없는 경우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꼈다.

네 번째로 자녀 양육을 경제적인 부담으로 느끼는지를 물었을 때, 여성이, 미혼이,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2〉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전체	74.60	69.31	58.72	68.58
성별				
남자	75.20	64.55	54.74	65.98
여자	74.01	74.05	62.68	71.17
<i>t</i>	1.507	-12.175***	-8.971***	-6.399***
연령				
20대 이하	73.58	70.73	56.10	67.07
30대	74.46	72.76	61.56	70.19
40대	74.92	65.14	55.40	66.54
50대 이상	74.59	61.08	52.97	66.13
<i>F</i>	.160	36.537***	17.805***	6.72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73.39	70.52	59.49	69.69
광역시/특별자치시	74.13	69.01	58.93	67.57
중소도시	75.63	68.90	58.14	68.55
군(읍면지역)	76.17	68.00	58.00	68.33
<i>F</i>	2.206	1.287	.562	1.280
혼인 여부				
미혼	66.10	74.26	66.79	76.15
배우자 있음	76.44	68.36	57.04	66.97
배우자 없음	71.63	64.54	58.16	69.50
<i>F</i>	50.340***	16.619***	34.105***	36.521***
자녀 유무				
자녀 무	66.63	74.56	65.72	75.09
1명	77.76	68.96	56.96	65.99
2명 이상	77.78	65.25	54.78	65.99
<i>F</i>	85.304***	43.159***	52.131***	52.261***
영유아유무				
자녀 무	66.63	74.56	65.72	75.09
영유아자녀 있음	76.49	60.71	53.28	65.45
영유아자녀 없음	78.45	70.68	57.35	66.27
<i>F</i>	87.524***	89.645***	57.044***	52.615***
월 가구 소득				
379만원이하	72.14	70.78	60.22	71.43
380~549만원	76.02	67.59	57.84	67.65
550만원이상	75.65	69.52	58.10	66.67
<i>F</i>	9.829***	5.359**	2.830	12.770***
맞벌이 여부				
외벌이	77.71	68.25	56.75	66.98
맞벌이	75.55	68.39	57.34	66.97

구분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부부 비경제활동	73.33	71.11	53.33	66.67
미혼 경제활동	66.53	73.05	65.78	75.02
미혼 비경제활동	66.67	75.90	67.87	79.12
<i>F</i>	26.156***	6.624***	16.085***	17.887***
학력				
고졸 이하	71.32	67.44	56.24	68.30
대졸	74.84	69.48	58.76	68.75
대학원 졸 이상	76.59	70.22	61.14	67.70
<i>F</i>	5.952**	1.739	3.600*	.367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74.73	67.60	57.77	67.77
불규칙적 출퇴근 등	74.39	72.29	60.37	69.98
<i>t</i>	.417	-5.675***	-2.788**	-2.607**

주: 1)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  $p < .01$ , \*\*\*  $p < .001$ .

## 나. 양육의 경제적 가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사회 경제적인 가치를 물었을 때 전체 월 평균 240.92만원의 가치로 보고하였다. 그 중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표 II-3-3>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월 평균)

단위: 만원

구분	경제적 가치
전체	240.92
성별	
남자	238.30
여자	243.52
<i>t</i>	-1.268
연령	
20대 이하	251.22
30대	249.11
40대	233.39
50대 이상	204.29
<i>F</i>	11.213***

구분	경제적 가치
지역규모	.
서울특별시	246.96
광역시/특별자치시	239.64
중소도시	237.01
군(읍면지역)	240.51
<i>F</i>	1.307
혼인 여부	.
미혼	238.50
배우자 있음	241.66
배우자 없음	227.98
<i>F</i>	.472
자녀 유무	.
자녀 무	242.01
1명	238.62
2명 이상	242.61
<i>F</i>	.392
영유아유무	.
자녀 무	242.01
영유아자녀 있음	222.50
영유아자녀 없음	250.02
<i>F</i>	14.728***
월 가구 소득	.
379만원이하	236.84
380~549만원	242.56
550만원이상	243.33
<i>F</i>	.995
맞벌이 여부	.
외벌이	243.65
맞벌이	240.92
부부 비경제활동	205.67
미혼 경제활동	238.37
미혼 비경제활동	233.35
<i>F</i>	1.019
학력	.
고졸 이하	233.63
대졸	241.49
대학원 졸 이상	245.08
<i>F</i>	1.053
고용 형태별	.
규칙적 출퇴근	239.99
불규칙적 출퇴근 등	242.52
<i>t</i>	-.592

\*\*\*  $p < .001$ .

### 다. 양육의 책임

자녀 양육의 책임을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72.2%가 부모가 우선 책임을 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배경 변인별 차이는 일부 검출되었으나 뚜렷한 경향성을 띄지는 않았다.

〈표 II-3-4〉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기타	계
전체	8.9	72.2	15.9	2.8	0.2	100.0
성별						
남자	8.0	72.4	15.9	3.6	0.1	100.0
여자	9.8	72.0	15.8	2.1	0.3	100.0
$\chi^2(df)$			8.811(4)			
연령						
20대 이하	8.5	68.3	17.1	6.1	0.0	100.0
30대	9.0	70.8	16.8	3.1	0.2	100.0
40대	8.5	74.8	14.4	2.1	0.2	100.0
50대 이상	10.3	71.9	14.6	3.2	0.0	100.0
$\chi^2(df)$			11.412(1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0.3	70.9	15.3	3.4	0.1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7.3	72.8	17.0	2.7	0.2	100.0
중소도시	8.9	72.8	16.0	2.2	0.2	100.0
군(읍면지역)	9.5	73.0	12.5	4.5	0.5	100.0
$\chi^2(df)$			13.415(12)			
혼인 여부						
미혼	11.8	70.0	15.9	2.1	0.2	100.0
배우자 있음	8.1	72.9	15.8	3.1	0.1	100.0
배우자 없음	17.0	61.7	17.0	-	4.3	100.0
$\chi^2(df)$			54.692***(8)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0.3	70.4	16.6	2.5	0.2	100.0
1명	7.3	73.9	15.9	2.8	0.2	100.0
2명 이상	9.6	71.9	15.2	3.2	0.2	100.0
$\chi^2(df)$			8.080(8)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10.3	70.4	16.6	2.5	0.2	100.0

구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기타	계
영유아자녀 없음	9.3	74.7	13.6	2.5	0.0	100.0
영유아자녀 있음	7.9	72.0	16.6	3.3	0.3	100.0
$\chi^2(df)$			11.649(8)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10.5	69.4	16.4	3.3	0.4	100.0
380~549만원	7.4	73.5	16.3	2.7	0.1	100.0
550만원 이상	8.8	73.7	14.9	2.6	0.1	100.0
$\chi^2(df)$			12.351(8)			
맞벌이 여부						
외벌이	9.0	75.2	13.1	2.6	0.2	100.0
맞벌이	7.4	71.4	17.8	3.3	0.1	100.0
부부 비경제활동	13.3	60.0	20.0	6.7	0.0	100.0
미혼 경제활동	12.2	68.6	16.7	1.8	0.6	100.0
미혼 비경제활동	12.0	73.5	12.0	2.4	0.0	100.0
$\chi^2(df)$			34.535**(16)			
학력						
고졸 이하	12.9	68.5	15.8	2.6	0.3	100.0
대졸	8.0	72.9	16.2	2.8	0.2	100.0
대학원 졸 이상	10.7	71.9	13.8	3.7	0.0	100.0
$\chi^2(df)$			14.409(8)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8.5	73.2	15.2	3.0	0.2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9.6	70.5	17.0	2.6	0.3	100.0
$\chi^2(df)$			4.132(4)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응답자들은 자녀의 양육이 가장 힘든 시기로 영아기를 가장 많이 선택(35.7%)하였다. 이를 배경 변인별로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찾아보면,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영유아가 가장 힘들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인 유아를, 30대 이상은 영아를 가장 힘든 시기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30대에 영아 양육 세대가 많은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자녀수에 있어서 자녀가 2 이상일 경우 영아가 힘들다는 응답이 자녀가 1명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도 더 낮았다. 즉 자녀가 없거나 한 자녀만 있는 경우 영아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자녀를 많이 키운 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영아기 양육을 가장 힘든 시기라고 꼽은 점이다.

〈표 II-3-5〉 자녀 양육이 가장 힘든 시기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임신기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 저학년 (1~3학년)	초등 고학년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모르겠음	계
전체	0.9	35.7	27.0	8.9	3.9	7.1	8.7	7.7	100.0
성별									
남자	0.8	34.8	26.5	9.7	4.3	7.1	9.5	7.3	100.0
여자	1.0	36.6	27.5	8.1	3.6	7.2	7.8	8.2	100.0
$\chi^2(df)$					8.218(7)				
연령									
20대 이하	3.7	23.2	46.3	2.4		8.5	4.9	11.0	100.0
30대	0.9	40.5	26.5	8.4	3.2	5.4	6.0	9.0	100.0
40대	0.8	30.8	26.9	10.1	4.9	9.3	11.0	6.1	100.0
50대 이상	0.5	25.4	23.2	8.6	6.5	9.2	22.2	4.3	100.0
$\chi^2(df)$					153.143***(21)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1	35.6	28.3	8.7	3.5	5.7	7.3	9.8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1.1	35.2	27.1	10.2	3.4	8.6	8.1	6.4	100.0
중소도시	0.7	36.8	25.8	8.3	4.4	7.3	9.5	7.3	100.0
군(읍면지역)	1.0	32.5	28.0	7.5	5.5	6.5	12.0	7.0	100.0
$\chi^2(df)$					26.872(21)				
혼인 여부									
미혼	0.6	34.9	25.6	6.6	3.0	7.4	9.9	12.0	100.0
배우자 있음	1.0	35.9	27.3	9.4	4.1	7.1	8.4	6.9	100.0
배우자 없음	2.1	34.0	29.8	6.4	4.3	6.4	10.6	6.4	100.0
$\chi^2(df)$					23.734*(14)				
자녀 유무									
자녀 없음	0.9	36.2	27.9	6.3	3.0	6.9	8.1	10.7	100.0
1명	0.8	39.3	26.5	9.3	3.8	5.9	6.9	7.6	100.0
2명 이상	1.1	31.2	26.9	10.7	4.8	8.7	11.2	5.4	100.0
$\chi^2(df)$					62.039***(14)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0.9	36.2	27.9	6.3	3.0	6.9	8.1	10.7	100.0
영유아자녀 없음	0.9	27.5	22.6	12.0	6.5	11.6	15.5	3.4	100.0
영유아자녀 있음	1.0	39.8	28.8	8.9	3.1	4.8	5.4	8.2	100.0
$\chi^2(df)$					182.846***(14)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임신기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 저학년 (1~3학년)	초등 고학년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모르겠음	계
379만원 이하	1.1	31.9	28.1	8.2	3.3	7.7	8.9	10.9	100.0
380~549만원	0.8	35.4	27.2	9.7	4.5	7.1	8.6	6.7	100.0
550만원 이상	1.0	39.8	25.8	8.9	3.9	6.6	8.5	5.6	100.0
$\chi^2(df)$				35.643**(14)					
맞벌이 여부									
외벌이	0.8	35.2	26.3	8.2	4.0	8.4	8.7	8.4	100.0
맞벌이	1.1	36.4	28.1	10.1	4.2	6.1	8.2	5.8	100.0
부부 비경제활동	-	40.0	20.0	20.0	3.3	6.7	6.7	3.3	100.0
미혼 경제활동	0.6	36.3	26.5	6.5	3.7	7.5	8.6	10.4	100.0
미혼 비경제활동	1.2	26.5	22.9	7.2		6.0	18.1	18.1	100.0
$\chi^2(df)$				58.064*** (28)					
학력									
고졸 이하	2.6	23.8	27.9	7.8	6.2	12.4	11.6	7.8	100.0
대졸	0.8	36.7	27.2	9.0	3.7	6.4	8.4	7.8	100.0
대학원 졸 이상	0.3	42.4	24.7	9.6	2.8	6.2	7.0	7.0	100.0
$\chi^2(df)$				65.049*** (14)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1.0	36.5	26.9	9.1	3.9	6.3	9.3	7.1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0.8	34.4	27.2	8.5	4.0	8.5	7.6	8.9	100.0
$\chi^2(df)$				11.627(7)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다음으로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인식을 물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았다.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도 찬성비율이 높았다.

〈표 II-3-6〉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

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음	계
전체	53.8	22.9	23.3	100.0
성별				
남자	55.2	23.0	21.8	100.0
여자	52.5	22.9	24.7	100.0
$\chi^2(df)$			3.724(2)	
연령				
20대 이하	43.9	23.2	32.9	100.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음	계
30대	52.6	22.5	24.9	100.0
40대	55.4	24.3	20.3	100.0
50대 이상	59.5	18.9	21.6	100.0
$\chi^2(df)$	15.534*(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54.8	21.2	24.0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53.5	22.3	24.3	100.0
중소도시	54.1	24.3	21.6	100.0
군(읍면지역)	48.5	25.5	26.0	100.0
$\chi^2(df)$	6.663(6)			
혼인 여부				
미혼	63.0	11.6	25.4	100.0
배우자 있음	51.8	25.5	22.7	100.0
배우자 없음	57.4	12.8	29.8	100.0
$\chi^2(df)$	51.567***(4)			
자녀 유무				
자녀 없음	65.8	10.6	23.6	100.0
1명	49.7	25.8	24.5	100.0
2명 이상	48.3	30.1	21.5	100.0
$\chi^2(df)$	121.345***(4)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65.8	10.6	23.6	100.0
영유아자녀 없음	52.4	26.9	20.7	100.0
영유아자녀 있음	47.2	28.4	24.4	100.0
$\chi^2(df)$	120.432***(4)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52.9	21.3	25.9	100.0
380~549만원	51.1	24.1	24.8	100.0
550만원 이상	57.3	23.4	19.2	100.0
$\chi^2(df)$	17.238**(4)			
맞벌이 여부				
외벌이	51.2	25.7	23.1	100.0
맞벌이	52.2	25.3	22.5	100.0
부부 비경제활동	53.3	30.0	16.7	100.0
미혼 경제활동	62.9	11.8	25.3	100.0
미혼 비경제활동	60.2	10.8	28.9	100.0
$\chi^2(df)$	52.492***(8)			
학력				
고졸 이하	57.4	19.1	23.5	100.0
대졸	53.2	23.5	23.3	100.0
대학원 졸 이상	53.9	23.6	22.5	100.0

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음	계
$\chi^2(df)$			3.998(4)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54.2	23.1	22.7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53.1	22.6	24.2	100.0
$\chi^2(df)$			.921(2)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가.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 순위에 대한 질문에 전체적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다. 이를 배경 변인별 경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여자가, 소득별로는 고소득인 경우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4-1〉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 순위

단위: %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계
전체	31.3	18.2	43.5	6.5	0.5	100.0
성별						
남자	27.0	20.8	45.1	6.7	0.4	100.0
여자	35.6	15.7	41.9	6.3	0.6	100.0
$\chi^2(df)$			31.823***(4)			
연령						
20대 이하	31.7	18.3	40.2	8.5	1.2	100.0
30대	34.1	16.8	42.8	5.9	0.5	100.0
40대	27.9	19.8	45.3	6.4	0.5	100.0
50대 이상	25.4	22.7	40.5	11.4	0.0	100.0
$\chi^2(df)$			27.498**(12)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3.8	18.5	40.8	6.3	0.6	100.0
광역시/특별시자치시	30.6	18.6	43.0	7.4	0.4	100.0
중소도시	30.8	17.7	45.9	5.0	0.6	100.0
군(읍면지역)	26.5	19.0	43.5	11.0	0.0	100.0
$\chi^2(df)$			19.644(12)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아이의 행복	기타	계
혼인 여부						
미혼	34.5	14.2	44.8	6.1	0.4	100.0
배우자 있음	30.8	19.0	43.3	6.5	0.5	100.0
배우자 없음	25.5	25.5	40.4	8.5	0.0	100.0
$\chi^2(df)$			10.383(8)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3.8	15.5	44.6	5.7	0.3	100.0
1명	32.5	17.5	42.3	7.2	0.5	100.0
2명 이상	27.8	21.4	43.9	6.3	0.6	100.0
$\chi^2(df)$			19.345*(8)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33.8	15.5	44.6	5.7	0.3	100.0
영유아자녀 없음	24.1	23.1	43.9	8.3	0.5	100.0
영유아자녀 있음	33.6	17.4	42.5	5.9	0.6	100.0
$\chi^2(df)$			37.703*** (8)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28.0	19.2	46.6	5.7	0.5	100.0
380~549만원	29.5	16.2	46.9	6.9	0.4	100.0
550만원 이상	36.3	19.2	37.1	6.8	0.6	100.0
$\chi^2(df)$			32.719*** (8)			
맞벌이 여부						
외벌이	26.9	19.6	46.5	6.6	0.4	100.0
맞벌이	33.9	18.7	40.6	6.3	0.6	100.0
부부 비경제활동	23.3	10.0	50.0	13.3	3.3	100.0
미혼 경제활동	34.8	15.7	43.4	5.9	0.2	100.0
미혼 비경제활동	27.7	12.0	50.6	8.4	1.2	100.0
$\chi^2(df)$			34.811** (16)			
학력						
고졸 이하	22.5	20.2	49.4	8.0	0.0	100.0
대졸	31.8	18.1	43.4	6.1	0.6	100.0
대학원 졸 이상	37.9	17.1	37.4	7.0	0.6	100.0
$\chi^2(df)$			26.089** (8)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32.9	18.7	41.6	6.3	0.5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8.6	17.4	46.8	6.8	0.4	100.0
$\chi^2(df)$			9.791*(4)			

주: 1) 가구소득은 2018년 2/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453만원)을 100%로 함.

2)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육아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 (51.0%)은 0-5세의 무상 보육 교육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연령에 있어서 젊을수록

록 0-5세의 무상 보육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chi^2=56.452$ ,  $p<.001$ ), 자녀가 영유아기를 이미 지난 경우에는 무상 보육교육에 대한 요구가 낮았으며( $\chi^2=128.357$ ,  $p<.001$ ). 학력이 높을수록 무상 보육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chi^2=19.849$ ,  $p<.001$ ).

〈표 II-4-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 순위

단위: %, (명)

구분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모르겠음	기타	수
전체	37.0	51.0	9.5	2.5	(3091)
성별					
남자	36.8	52.7	8.4	2.1	(1543)
여자	37.2	49.4	10.5	2.9	(1548)
$\chi^2(df)$			7.073(3)		
연령					
20대 이하	22.0	57.3	17.1	3.7	(82)
30대	32.5	54.1	10.4	3.0	(1729)
40대	43.6	46.8	7.6	2.1	(1095)
50대 이상	45.9	44.3	9.2	0.5	(185)
$\chi^2(df)$			56.452***(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4.9	50.5	12.0	2.6	(882)
광역시/특별자치시	38.0	51.9	8.1	2.0	(853)
중소도시	37.9	51.1	8.4	2.6	(1149)
군(읍면지역)	35.5	50.5	10.0	4.0	(200)
$\chi^2(df)$			14.094(9)		
혼인 여부					
미혼	35.7	47.1	15.0	2.1	(527)
배우자 있음	37.0	52.0	8.3	2.7	(2517)
배우자 없음	46.8	40.4	12.8	0.0	(47)
$\chi^2(df)$			27.748***(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4.1	49.9	14.3	1.7	(878)
1명	35.5	54.1	7.4	3.0	(1178)
2명 이상	41.1	48.4	7.8	2.7	(1035)
$\chi^2(df)$			43.968***(6)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34.1	49.9	14.3	1.7	(878)
영유아자녀 없음	51.4	38.9	7.0	2.7	(767)
영유아자녀 있음	31.1	58.1	7.9	2.9	(1446)
$\chi^2(df)$			128.357***(6)		
월평균 가구 소득					

구분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모르겠음	기타	수
379만원 이하	33.8	50.5	13.2	2.4	(1029)
380~549만원	38.8	49.4	8.7	3.1	(1012)
550만원 이상	38.3	53.0	6.6	2.1	(1050)
$\chi^2(df)$			32.976***(6)		
맞벌이 여부					
외벌이	38.0	49.5	10.2	2.3	(1072)
맞벌이	36.3	54.2	6.6	2.8	(1415)
부부 비경제활동	40.0	36.7	16.7	6.7	(30)
미혼 경제활동	35.8	47.3	14.9	2.0	(491)
미혼 비경제활동	41.5	42.7	14.6	1.2	(83)
$\chi^2(df)$			43.378***(12)		
학력					
고졸 이하	36.8	47.2	14.5	1.6	(387)
대졸	37.6	50.7	8.9	2.8	(2348)
대학원 졸업 이상	33.1	57.0	7.9	2.0	(356)
$\chi^2(df)$			19.849**(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37.6	51.8	8.4	2.2	(1964)
불규칙적 출퇴근 등	35.9	49.6	11.5	3.0	(1127)
$\chi^2(df)$			10.201*(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누리과정의 개정방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잘 노는 것은 미래 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42.0%). 다음으로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라는 응답을 택해(28.6%)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긍정적인 답변(73.0%)이 남성 응답자(68.1%)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i^2=20.054$ ,  $p<.01$ ). 다만 자녀의 수에 있어서 2명이 상인 경우 다른 응답자에 비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다.

〈표 II-4-3〉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정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잘 노는 것은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기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놀이만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유아들의 전반적인 학습능력이 저하되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	기타	모르 겠다	계
전체	42.0	12.8	10.7	28.6	0.7	5.2	100.0
성별							
남자	40.8	13.4	12.6	27.3	0.3	5.6	100.0
여자	43.2	12.3	8.9	29.8	1.0	4.8	100.0
$\chi^2(df)$	20.054**(5)						
연령							
20대 이하	35.4	9.8	11.0	39.0	0.0	4.9	100.0
30대	41.3	12.6	10.2	29.0	0.9	5.9	100.0
40대	42.9	14.2	11.5	26.8	0.5	4.1	100.0
50대 이상	45.4	8.1	10.8	30.3	0.0	5.4	100.0
$\chi^2(df)$	21.421(15)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40.7	12.9	12.4	27.9	0.5	5.7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40.7	14.4	11.0	27.3	0.5	6.1	100.0
중소도시	44.0	12.3	9.5	29.3	1.0	4.0	100.0
군(읍면지역)	42.0	9.0	10.0	31.5	1.0	6.5	100.0
$\chi^2(df)$	19.727(15)						
혼인 여부							
미혼	39.1	10.6	8.2	30.7	0.2	11.2	100.0
배우자 있음	42.6	13.4	11.4	28.0	0.8	3.9	100.0
배우자 없음	40.4	8.5	6.4	36.2	2.1	6.4	100.0
$\chi^2(df)$	59.501***(1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40.7	9.7	8.5	30.3	0.5	10.4	100.0
1명	41.3	13.8	11.9	29.1	0.8	3.1	100.0
2명 이상	43.9	14.4	11.3	26.5	0.8	3.2	100.0
$\chi^2(df)$	82.889***(10)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40.7	9.7	8.5	30.3	0.5	10.4	100.0
영유아자녀 없음	41.5	14.2	12.0	28.0	0.7	3.7	100.0
영유아자녀 있음	43.0	14.0	11.4	27.8	0.8	2.9	100.0
$\chi^2(df)$	81.576***(10)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41.4	12.6	9.6	28.8	0.4	7.2	100.0
380~549만원	40.1	13.5	12.4	28.5	0.6	4.9	100.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잘 노는 것은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놀이만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유아들의 전반적인 학습능력이 저하되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	기타	모르겠다	계
550만원 이상	44.3	12.4	10.3	28.5	1.0	3.5	100.0
$\chi^2(df)$	23.824**(10)						
맞벌이 여부							
외벌이	44.2	12.1	10.4	27.9	0.8	4.6	100.0
맞벌이	41.4	14.3	12.1	28.0	0.7	3.5	100.0
부부 비경제활동	40.0	13.3	13.3	30.0	0.0	3.3	100.0
미혼 경제활동	38.5	11.4	9.4	29.7	0.4	10.6	100.0
미혼 비경제활동	43.4	4.8	-	39.8	0.0	12.0	100.0
$\chi^2(df)$	73.276*** (20)						
학력							
고졸 이하	36.4	11.1	10.3	33.1	0.3	8.8	100.0
대졸	42.4	12.9	10.7	28.5	0.7	4.7	100.0
대학원 졸 이상	44.9	14.3	11.5	23.9	0.8	4.5	100.0
$\chi^2(df)$	23.086*(10)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41.0	13.1	11.5	28.3	0.6	5.5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43.7	12.4	9.4	29.0	0.9	4.6	100.0
$\chi^2(df)$	6.862(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는 전체의 과반이 (57.8%)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답하였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4-4>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국공립 기관의 확대는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해칠 것 같다.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다.	국공립 기관을 확대하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40%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타	모르겠다	계
전체	57.8	11.2	11.3	13.3	0.6	5.8	100.0
성별							

구분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국공립 기관의 확대는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해칠 것 같다.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다.	국공립 기관을 확대하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40%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타	모르 겠다	계
남자	57.3	12.8	11.4	12.7	0.6	5.2	100.0
여자	58.4	9.7	11.2	13.8	0.6	6.3	100.0
$\chi^2(df)$	9.012(5)						
연령							
20대 이하	50.0	11.0	12.2	14.6	0.0	12.2	100.0
30대	55.6	11.0	10.6	14.7	0.9	7.3	100.0
40대	61.2	11.1	12.7	11.7	0.3	3.0	100.0
50대 이상	62.7	14.1	9.2	8.6	0.0	5.4	100.0
$\chi^2(df)$	50.817***(15)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55.8	13.3	12.2	13.6	0.7	4.4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56.6	10.9	12.5	13.0	0.7	6.2	100.0
중소도시	60.2	10.2	10.2	13.0	0.4	6.0	100.0
군(읍면지역)	59.5	10.0	8.0	13.0	0.5	9.0	100.0
$\chi^2(df)$	19.610(15)						
혼인 여부							
미혼	55.4	8.2	13.3	13.1	0.2	9.9	100.0
배우자 있음	58.4	11.8	10.9	13.3	0.7	4.9	100.0
배우자 없음	53.2	14.9	8.5	14.9	0.0	8.5	100.0
$\chi^2(df)$	30.482***(1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55.6	9.3	13.2	12.8	0.6	8.5	100.0
1명	58.8	11.3	9.5	14.1	0.6	5.7	100.0
2명 이상	58.6	12.8	11.7	12.8	0.6	3.6	100.0
$\chi^2(df)$	33.626***(10)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55.6	9.3	13.2	12.8	0.6	8.5	100.0
영유아자녀 없음	59.2	13.3	11.6	12.5	0.1	3.3	100.0
영유아자녀 있음	58.5	11.3	10.0	14.0	0.8	5.5	100.0
$\chi^2(df)$	37.541***(10)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55.4	9.4	11.9	13.3	0.2	9.8	100.0
380~549만원	57.2	12.6	10.7	14.1	0.7	4.6	100.0
550만원 이상	60.9	11.6	11.3	12.4	0.9	3.0	100.0
$\chi^2(df)$	59.464***(10)						
맞벌이 여부							

구분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국공립 기관의 확대는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해칠 것 같다.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인 것 같다.	국공립 기관을 확대하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40%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타	모르 겠다	계
외벌이	60.2	10.5	9.3	13.2	0.5	6.3	100.0
맞벌이	57.5	12.7	11.9	13.3	0.8	3.7	100.0
부부 비경제활동	43.3	13.3	20.0	13.3	0.0	10.0	100.0
미혼 경제활동	55.2	8.8	13.4	13.4	0.2	9.0	100.0
미혼 비경제활동	55.4	8.4	9.6	12.0	0.0	14.5	100.0
$\chi^2(df)$	52.607***(20)						
학력							
고졸 이하	49.1	9.8	14.2	16.8	0.0	10.1	100.0
대졸	58.7	11.5	10.9	12.8	0.5	5.5	100.0
대학원 졸 이상	61.8	11.0	10.4	12.4	1.7	2.8	100.0
$\chi^2(df)$	42.774***(10)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58.2	11.9	11.0	12.8	0.8	5.2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57.1	10.0	11.8	14.1	0.2	6.7	100.0
$\chi^2(df)$	11.558*(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한편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절반에 가까운 46.4%의 응답자는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표 II-4-5〉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담임교사의 업무가 줄어든 것이다	담임교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서 보육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담임 교사와 전담 교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영유아 들이 일과 중 여러 교사를 만나게 되어 혼란스러 울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기타	모르겠다	계
전체	9.7	16.6	46.4	8.8	14.0	0.5	4.1	100.0
성별								
남자	11.1	17.6	43.6	8.9	13.7	0.5	4.6	100.0

구분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담임교사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다	담임교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서 보육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영유아들이 일과 중 여러 교사를 만나게 되어 혼란스러울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기타	모르겠다	계
여자	8.3	15.6	49.2	8.6	14.3	0.5	3.6	100.0
$\chi^2(df)$	15.715*(6)							
연령								
20대 이하	8.5	17.1	47.6	8.5	14.6	0.0	3.7	100.0
30대	9.1	15.2	47.3	8.7	14.4	0.7	4.7	100.0
40대	11.1	18.0	45.3	9.1	13.2	0.3	3.0	100.0
50대 이상	8.1	21.1	44.3	7.6	14.1	0.0	4.9	100.0
$\chi^2(df)$	19.611(18)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9.3	18.0	44.7	9.1	14.9	0.3	3.7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9.6	16.4	47.1	8.7	13.1	0.6	4.5	100.0
중소도시	10.7	16.0	46.9	8.6	13.6	0.5	3.7	100.0
군(읍면지역)	7.0	14.0	47.0	8.5	16.5	0.5	6.5	100.0
$\chi^2(df)$	12.335(18)							
혼인 여부								
미혼	8.3	13.5	45.2	7.4	18.2	0.2	7.2	100.0
배우자 있음	10.1	17.2	46.6	9.1	13.1	0.5	3.4	100.0
배우자 없음	6.4	14.9	51.1	6.4	14.9	2.1	4.3	100.0
$\chi^2(df)$	35.166***(12)							
자녀 유무								
자녀 없음	7.9	14.0	47.3	6.3	17.4	0.5	6.7	100.0
1명	10.4	17.0	46.3	9.8	13.2	0.5	2.9	100.0
2명 이상	10.6	18.3	45.7	9.8	12.0	0.5	3.2	100.0
$\chi^2(df)$	51.052***(12)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7.9	14.0	47.3	6.3	17.4	0.5	6.7	100.0
영유아자녀 없음	11.2	18.4	42.8	9.5	14.3	0.5	3.3	100.0
영유아자녀 있음	10.1	17.2	47.8	9.9	11.7	0.5	2.9	100.0
$\chi^2(df)$	56.335***(12)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8.9	15.9	45.1	9.1	13.8	0.6	6.5	100.0
380~549만원	11.2	15.7	45.1	9.0	15.0	0.5	3.6	100.0
550만원 이상	9.1	18.0	49.0	8.2	13.1	0.4	2.2	100.0
$\chi^2(df)$	34.597***(12)							

구분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전담교사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다	담임교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서 보육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영유아들이 일과 중 여러 교사를 만나게 되어 혼란스러울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기타	모르겠다	계
맞벌이 여부								
외벌이	9.3	17.3	47.7	8.5	12.3	0.7	4.3	100.0
맞벌이	10.6	17.3	45.9	9.4	13.6	0.4	2.8	100.0
부부 비경제활동	13.3	13.3	40.0	16.7	13.3	0.0	3.3	100.0
미혼 경제활동	7.5	13.6	46.6	7.3	17.9	0.4	6.5	100.0
미혼 비경제활동	12.0	13.3	39.8	7.2	18.1	0.0	9.6	100.0
$\chi^2(df)$	44.132**(24)							
학력								
고졸 이하	11.4	14.5	41.9	9.6	16.5	0.0	6.2	100.0
대졸	9.8	16.6	47.0	8.6	13.5	0.6	3.9	100.0
대학원 졸 이상	7.6	18.8	47.5	9.0	14.0	0.3	2.8	100.0
$\chi^2(df)$	17.972(12)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10.1	16.2	46.0	8.8	14.2	0.4	4.2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9.1	17.1	47.0	8.7	13.7	0.6	3.8	100.0
$\chi^2(df)$	2.456(6)							

\*\*  $p < .01$ , \*\*\*  $p < .001$ .

## 나. 아동학대 관련 의견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었다(28.5%). 그 다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16.2%), 예방 및 조기발견(15.1%), 그리고 부모와 교직원에 대한 교육(13.3%) 순으로 드러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별로 비교할 때 응답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표 II-4-6〉 아동학대 관련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

단위: %, (명)

구분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영유아 학대 위험아 동 조기 발견 노력	아동학 대 신고의 무자 확대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아동 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유치원 과 어린이 집 교사의 근로환 경 개선	지속적 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유치원 과 어린이 집 교사양 성과정 강화	기타	수
전체	13.3	15.1	5.4	28.5	5.9	16.2	8.2	6.8	0.7	(3091)
성별										
남자	14.6	15.4	5.6	23.1	7.6	17.4	9.3	6.3	0.7	(1543)
여자	12.0	14.8	5.1	33.9	4.2	15.1	7.0	7.3	0.7	(1548)
$\chi^2(df)$					59.319***(8)					
연령										
20대 이하	6.1	11.0	7.3	46.3	2.4	13.4	6.1	6.1	1.2	( 82)
30대	12.3	14.1	4.9	31.1	4.5	17.5	8.6	6.1	1.0	(1729)
40대	14.7	16.3	5.8	24.6	7.9	14.9	7.7	8.0	0.2	(1095)
50대 이상	17.3	18.9	7.0	19.5	8.6	13.5	8.1	5.9	1.1	( 185)
$\chi^2(df)$					74.401***(24)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4.9	15.4	5.3	26.5	6.6	15.9	7.9	6.3	1.1	( 882)
광역시/특별자치시	12.7	15.2	6.2	27.2	5.5	17.5	8.9	6.4	0.4	( 853)
중소도시	12.7	14.4	4.5	31.0	5.9	15.4	8.0	7.5	0.6	(1149)
군(읍면지역)	11.5	16.5	7.0	28.5	4.5	18.0	7.0	6.0	1.0	( 200)
$\chi^2(df)$					21.089(24)					
혼인 여부										
미혼	12.0	14.2	5.7	28.3	4.7	17.8	9.9	6.6	0.8	( 527)
배우자 있음	13.5	15.2	5.4	28.6	6.2	15.9	7.8	6.8	0.7	(2517)
배우자 없음	17.0	17.0	2.1	27.7	2.1	14.9	8.5	10.6	0.0	( 47)
$\chi^2(df)$					10.165(1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2.5	13.9	6.0	27.8	4.8	17.3	9.6	6.8	1.3	( 878)
1명	13.1	14.7	4.7	32.1	5.1	16.1	7.4	6.0	0.8	(1178)
2명 이상	14.1	16.5	5.6	25.0	7.7	15.5	7.8	7.6	0.1	(1035)
$\chi^2(df)$					39.805***(16)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12.5	13.9	6.0	27.8	4.8	17.3	9.6	6.8	1.3	( 878)
영유아자녀 없음	15.1	17.1	5.3	23.7	9.9	14.0	7.7	6.9	0.3	( 767)
영유아자녀 있음	12.7	14.7	5.0	31.5	4.4	16.8	7.5	6.7	0.6	(1446)
$\chi^2(df)$					58.058***(1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13.4	14.4	4.1	31.8	4.4	16.2	7.9	7.0	0.9	(1029)
380~549만원	14.3	14.3	5.6	28.3	5.9	16.2	8.7	5.9	0.7	(1012)
550만원 이상	12.1	16.5	6.4	25.5	7.3	16.3	7.9	7.4	0.6	(1050)
$\chi^2(df)$					27.268*(16)					

구분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영유아 학대 위험아 동 조기 발견 노력	아동학 대 신고의 무자 확대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아동 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유치원 과 어린이 집 교사의 근로환 경 개선	지속적 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유치원 과 어린이 집 교사양 성과정 강화	기타	수
맞벌이 여부										
외벌이	13.2	16.0	3.9	31.4	5.9	14.5	7.9	6.9	0.3	(1072)
맞벌이	13.6	14.4	6.5	26.4	6.6	17.2	7.7	6.6	1.0	(1415)
부부 비경제활동	13.3	26.7	3.3	30.0	-	6.7	6.7	10.0	3.3	( 30)
미혼 경제활동	12.2	14.1	5.7	28.9	3.9	18.1	9.8	6.5	0.8	( 491)
미혼 비경제활동	13.3	16.9	3.6	24.1	8.4	14.5	9.6	9.6	0.0	( 83)
$\chi^2(df)$					44.162(32)					
학력										
고졸 이하	15.5	11.9	4.4	31.5	4.7	15.0	9.6	7.0	0.5	( 387)
대졸	13.6	14.8	5.4	28.4	6.5	15.7	8.2	6.7	0.7	(2348)
대학원 졸 이상	8.7	20.2	6.5	25.6	3.4	21.1	6.2	7.3	1.1	( 356)
$\chi^2(df)$					36.009**(1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14.1	15.3	5.8	26.0	6.4	16.9	8.6	6.4	0.6	(1964)
불규칙적 출퇴근 등	11.9	14.6	4.6	32.8	5.1	15.1	7.5	7.5	0.9	(1127)
$\chi^2(df)$					23.129**(8)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영유아 자녀에 대한 사교육 실시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는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가 31.6%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26.0%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미혼인 응답자의 경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가 45.4%로 다른 응답자에 비하여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높은 불안감 때문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에 대한 응답이 26.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4-7〉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에 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다른 아이들 이 하니까 뒤쳐질 까봐	다른 친구들 과 어울리 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집· 유치원 특별활 동만으 로는 부족해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수
전체	2.5	10.3	26.0	31.6	4.8	8.2	16.2	0.4	(3091)
성별									
남자	2.9	10.0	22.7	35.1	5.5	8.6	14.7	0.5	(1543)
여자	2.1	10.5	29.3	28.2	4.1	7.9	17.6	0.3	(1548)
$\chi^2(df)$									34.571***(7)
연령									
20대 이하	4.9	12.2	26.8	22.0	7.3	6.1	20.7	0.0	( 82)
30대	2.4	10.4	25.5	30.9	5.6	7.7	17.2	0.3	(1729)
40대	2.6	10.3	26.6	32.1	3.8	9.3	14.8	0.4	(1095)
50대 이상	0.5	8.1	27.0	39.5	2.7	8.1	12.4	1.6	( 185)
$\chi^2(df)$									35.494*(21)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6	9.3	25.2	32.3	3.9	9.1	17.1	0.6	( 882)
광역시/특별자치시	2.8	11.1	25.4	30.2	5.6	8.0	16.4	0.4	( 853)
중소도시	2.1	10.7	27.4	31.1	4.7	8.2	15.6	0.3	(1149)
군(읍면지역)	2.0	8.5	24.0	38.0	6.0	6.5	14.5	0.5	( 200)
$\chi^2(df)$									15.879(21)
혼인 여부									
미혼	1.3	7.6	22.8	45.4	4.6	5.1	12.9	0.4	( 527)
배우자 있음	2.7	10.7	26.7	28.8	4.9	8.9	17.0	0.4	(2517)
배우자 없음	4.3	14.9	27.7	29.8	2.1	10.6	10.6	0.0	( 47)
$\chi^2(df)$									63.389***(14)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5	8.5	22.8	40.5	4.8	6.2	15.4	0.3	( 878)
1명	3.2	11.0	27.1	27.3	4.9	8.4	17.7	0.3	(1178)
2명 이상	2.4	10.9	27.5	29.0	4.7	9.9	15.1	0.5	(1035)
$\chi^2(df)$									57.219***(14)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1.5	8.5	22.8	40.5	4.8	6.2	15.4	0.3	( 878)
영유아자녀 없음	2.6	9.9	28.2	30.6	5.0	8.7	14.3	0.7	( 767)
영유아자녀 있음	3.0	11.5	26.8	26.8	4.8	9.3	17.6	0.3	(1446)
$\chi^2(df)$									60.645***(14)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3.2	8.6	24.1	35.3	5.2	8.5	15.1	0.2	(1029)
380~549만원	2.5	11.2	27.9	28.2	4.9	8.4	16.5	0.5	(1012)
550만원 이상	1.7	11.0	26.1	31.4	4.4	7.9	17.0	0.5	(1050)
$\chi^2(df)$									23.710*(14)

구분	자녀가 원해서	자녀에 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다른 아이들 이 하니까 뒤쳐질 까봐	다른 친구들 과 어울리 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집· 유치원 특별활 동만으 로는 부족해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기타	수
맞벌이 여부									
외벌이	2.7	10.2	26.4	31.5	5.2	9.9	13.9	0.2	(1072)
맞벌이	2.5	11.3	26.9	26.8	4.6	7.8	19.4	0.6	(1415)
부부 비경제활동	6.7	3.3	23.3	26.7	10.0	20.0	10.0	0.0	( 30)
미혼 경제활동	1.6	8.8	24.2	42.2	4.3	5.5	13.0	0.4	( 491)
미혼 비경제활동	1.2	4.8	16.9	55.4	4.8	6.0	10.8	0.0	( 83)
$\chi^2(df)$					94.297***(28)				
학력									
고졸 이하	3.9	10.1	22.5	32.8	5.4	10.1	14.5	0.8	( 387)
대졸	2.3	10.4	26.1	31.7	4.9	7.9	16.4	0.3	(2348)
대학원 졸 이상	2.0	9.6	28.9	29.8	3.9	8.7	16.3	0.8	( 356)
$\chi^2(df)$					15.770(14)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2.3	10.5	24.7	31.4	4.9	8.0	17.6	0.5	(1964)
불규칙적 출퇴근 등	2.8	9.8	28.3	32.0	4.6	8.7	13.7	0.2	(1127)
$\chi^2(df)$					14.244*(7)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85.1%)의 응답자가 그럴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교육 과열에 대한 전망은 배경변인에 크게 관계없이 고르게 응답하였다.

<표 II-4-8>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85.1	6.9	8.0	100.0
성별				
남자	83.4	9.3	7.3	100.0
여자	86.8	4.5	8.7	100.0
$\chi^2(df)$			28.915***(2)	
연령				
20대 이하	82.9	7.3	9.8	100.0
30대	84.7	6.8	8.5	100.0
40대	86.0	6.9	7.0	100.0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
50대 이상	83.8	8.1	8.1	100.0
$\chi^2(df)$	2.825(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84.1	8.4	7.5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83.6	7.5	8.9	100.0
중소도시	87.3	5.7	7.0	100.0
군(읍면지역)	83.5	5.0	11.5	100.0
$\chi^2(df)$	13.487*(6)			
혼인 여부				
미혼	86.7	4.2	9.1	100.0
배우자 있음	84.7	7.6	7.7	100.0
배우자 없음	85.1	2.1	12.8	100.0
$\chi^2(df)$	11.613*(4)			
자녀 유무				
자녀 없음	85.8	4.6	9.7	100.0
1명	83.7	8.1	8.1	100.0
2명 이상	86.1	7.5	6.4	100.0
$\chi^2(df)$	17.213**(4)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85.8	4.6	9.7	100.0
영유아자녀 없음	87.4	7.2	5.5	100.0
영유아자녀 있음	83.5	8.2	8.3	100.0
$\chi^2(df)$	21.075***(4)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83.0	7.0	10.0	100.0
380~549만원	85.7	6.3	8.0	100.0
550만원 이상	86.6	7.4	6.0	100.0
$\chi^2(df)$	12.220*(4)			
맞벌이 여부				
외벌이	85.5	6.3	8.2	100.0
맞벌이	84.3	8.5	7.2	100.0
부부 비경제활동	76.7	13.3	10.0	100.0
미혼 경제활동	86.6	4.1	9.4	100.0
미혼 비경제활동	86.7	3.6	9.6	100.0
$\chi^2(df)$	17.787*(8)			
학력				
고졸 이하	81.4	7.5	11.1	100.0
대졸	85.9	6.9	7.3	100.0
대학원 졸 이상	84.0	6.7	9.3	100.0
$\chi^2(df)$	7.966(4)			
고용 형태별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
규칙적 출퇴근	85.6	6.9	7.5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84.2	7.0	8.8	100.0
$\chi^2(df)$	1.578(2)			

\*  $p < .05$ , \*\*  $p < .01$ , \*\*\*  $p < .001$ .

## 라. 세금 추가 부담 의사

만약 영유아 재정 지원정책의 확대에 따라 세금이 추가된다면 이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 답변이 42.6%로 긍정적 답변 35.8%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성별로는 남녀 간 의견이 엇갈렸다. 여자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우세했지만, 남자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우세했다. 20대 이하, 미혼, 자녀가 없는 응답자, 소득이 적은 응답자, 불규칙한 근로를 하는 응답자의 긍정적 의견이 적었다.

〈표 II-4-9〉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35.8	42.6	21.6	100.0
성별				
남자	44.3	38.6	17.1	100.0
여자	27.5	46.5	26.0	100.0
$\chi^2(df)$	100.719***(2)			
연령				
20대 이하	25.6	45.1	29.3	100.0
30대	36.0	40.4	23.6	100.0
40대	36.3	45.1	18.5	100.0
50대 이상	35.7	47.0	17.3	100.0
$\chi^2(df)$	18.884**(6)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5.1	44.1	20.7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34.2	43.4	22.4	100.0
중소도시	37.9	41.6	20.5	100.0
군(읍면지역)	34.5	37.0	28.5	100.0
$\chi^2(df)$	10.232(6)			
혼인 여부				
미혼	29.6	43.1	27.3	100.0
배우자 있음	37.3	42.3	20.4	100.0
배우자 없음	27.7	51.1	21.3	100.0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chi^2(df)$		18.713***(4)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1.4	42.6	26.0	100.0
1명	40.1	40.5	19.4	100.0
2명 이상	34.8	44.9	20.3	100.0
$\chi^2(df)$		24.629***(4)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31.4	42.6	26.0	100.0
영유아자녀 없음	31.6	50.5	18.0	100.0
영유아자녀 있음	40.8	38.4	20.8	100.0
$\chi^2(df)$		48.584***(4)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29.7	43.8	26.4	100.0
380~549만원	36.5	42.9	20.7	100.0
550만원 이상	41.2	41.0	17.7	100.0
$\chi^2(df)$		39.221***(4)		
맞벌이 여부				
외벌이	34.0	43.0	22.9	100.0
맞벌이	40.0	41.6	18.4	100.0
부부 비경제활동	26.7	50.0	23.3	100.0
미혼 경제활동	31.2	44.4	24.4	100.0
미혼 비경제활동	19.3	39.8	41.0	100.0
$\chi^2(df)$		43.142***(8)		
학력				
고졸 이하	26.4	45.7	27.9	100.0
대졸	36.4	42.5	21.2	100.0
대학원 졸 이상	42.7	39.9	17.4	100.0
$\chi^2(df)$		26.309***(4)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40.0	40.7	19.2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8.6	45.8	25.6	100.0
$\chi^2(df)$		44.057***(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세금의 추가 부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33.1%가 현재의 세금도 이미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정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의 선행 26.7%,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가 21.7%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 이하는 지금의 세금도 부담스

렵다는 의견이 과반인 56.8%에 달했다.

〈표 II-4-10〉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음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기타	계
전체	21.7	12.9	26.7	33.1	4.0	1.5	100.0
성별							
남자	21.3	13.3	28.0	31.9	4.4	1.2	100.0
여자	22.1	12.6	25.7	34.0	3.8	1.8	100.0
$\chi^2(df)$				2.459(5)			
연령							
20대 이하	24.3	5.4	10.8	56.8	-	2.7	100.0
30대	25.6	11.7	27.1	30.2	4.3	1.0	100.0
40대	17.0	13.8	27.9	35.4	3.6	2.2	100.0
50대 이상	16.1	20.7	24.1	32.2	5.7	1.1	100.0
$\chi^2(df)$				36.650** (15)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1.9	13.1	26.2	32.6	4.4	1.8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23.0	13.2	25.9	32.7	4.6	0.5	100.0
중소도시	20.5	12.6	27.6	33.7	3.6	2.1	100.0
군(읍면지역)	23.0	13.5	28.4	31.1	2.7	1.4	100.0
$\chi^2(df)$				5.823(15)			
혼인 여부							
미혼	16.7	24.2	27.8	26.0	2.2	3.1	100.0
배우자 있음	23.1	10.7	26.5	34.4	4.3	1.0	100.0
배우자 없음	8.3	4.2	29.2	41.7	8.3	8.3	100.0
$\chi^2(df)$				53.985*** (10)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7.4	24.3	28.6	24.6	2.9	2.1	100.0
1명	25.4	7.5	27.5	33.5	4.8	1.3	100.0
2명 이상	21.5	9.2	24.5	39.4	4.1	1.3	100.0
$\chi^2(df)$				77.705*** (10)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17.4	24.3	28.6	24.6	2.9	2.1	100.0
영유아자녀 없음	19.1	12.4	26.6	35.4	4.7	1.8	100.0
영유아자녀 있음	26.5	5.6	25.6	37.1	4.3	0.9	100.0
$\chi^2(df)$				87.559*** (10)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23.3	16.9	23.3	30.8	3.5	2.2	100.0
380~549만원	19.8	8.5	29.0	37.3	4.1	1.2	100.0

구분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음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기타	계
550만원 이상	22.0	13.2	28.1	31.1	4.4	1.2	100.0
$\chi^2(df)$	22.529*(10)						
맞벌이 여부							
외벌이	20.4	13.2	24.9	36.2	4.1	1.1	100.0
맞벌이	24.8	8.8	27.5	33.3	4.6	1.0	100.0
부부 비경제활동	40.0	6.7	33.3	20.0	-	-	100.0
미혼 경제활동	16.1	21.6	27.5	28.0	3.2	3.7	100.0
미혼 비경제활동	15.2	27.3	30.3	24.2	-	3.0	100.0
$\chi^2(df)$	52.536*** (20)						
학력							
고졸 이하	23.2	18.6	22.6	31.6	3.4	0.6	100.0
대졸	21.2	12.1	27.8	33.3	3.7	1.9	100.0
대학원 졸 이상	23.9	11.3	24.6	33.1	7.0	-	100.0
$\chi^2(df)$	15.625(10)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21.8	12.6	27.6	32.8	4.3	1.0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1.7	13.4	25.4	33.5	3.7	2.3	100.0
$\chi^2(df)$	4.658(5)						

주: 독립변수에 따라 사례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마.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정부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르게 했을 때, “비용 지원 (유아원비, 양육수당 등)”이 34.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다음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21.5%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비용지원에 대해서 연령별 선호도가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20대 이하는 56.5%를 기록하여 과반을 기록하였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선순위에서 밀려 50대 이상은 25.5%에 그쳤다. 지역에 있어서는 작은 도시로 갈수록 비용지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비용지원을 더 원하였다.

〈표 II-4-11〉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1순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전체	21.5	3.0	13.8	34.4	7.5	7.8	7.3	3.9	0.7	100.0
성별										
남자	17.8	2.9	16.6	33.0	8.7	8.8	7.2	4.3	0.8	100.0
여자	25.1	3.1	11.1	35.8	6.3	6.9	7.4	3.6	0.7	100.0
$\chi^2(df)$	42.568***(8)									
연령										
20대 이하	18.8	5.8	2.9	56.5	4.3	4.3	2.9	4.3	-	100.0
30대	23.6	2.9	11.2	36.3	7.1	7.3	7.2	3.6	0.9	100.0
40대	18.5	3.2	17.2	31.2	8.0	8.8	7.9	4.6	0.6	100.0
50대 이상	20.9	2.0	24.2	25.5	9.2	9.2	6.5	2.6	-	100.0
$\chi^2(df)$	73.742***(24)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1.2	3.2	17.3	31.5	8.8	6.2	6.7	4.4	0.7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22.1	3.5	13.3	33.3	6.4	8.0	7.5	5.1	0.9	100.0
중소도시	21.7	2.6	12.4	36.1	7.6	8.4	7.5	2.8	0.8	100.0
군(읍면지역)	19.1	2.8	10.1	40.4	5.6	11.2	7.9	2.8	-	100.0
$\chi^2(df)$	35.083(24)									
혼인 여부										
미혼	29.0	4.1	13.0	30.1	6.9	8.2	6.1	1.9	0.6	100.0
배우자 있음	20.1	2.8	13.8	35.2	7.6	7.8	7.6	4.4	0.8	100.0
배우자 없음	12.5	5.0	25.0	40.0	5.0	7.5	2.5	2.5	-	100.0
$\chi^2(df)$	35.119**(1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6.6	4.0	13.8	31.9	6.8	7.6	6.3	2.3	0.8	100.0
1명	21.2	2.8	13.4	35.3	8.4	6.5	7.4	4.2	0.8	100.0
2명 이상	17.5	2.4	14.4	35.5	7.0	9.5	8.0	4.9	0.7	100.0
$\chi^2(df)$	38.945**(16)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26.6	4.0	13.8	31.9	6.8	7.6	6.3	2.3	0.8	100.0
영유아자녀 없음	17.8	2.6	16.9	30.0	7.3	10.2	10.1	4.1	0.9	100.0
영유아자녀 있음	20.3	2.7	12.3	38.1	8.0	6.8	6.5	4.8	0.6	100.0
$\chi^2(df)$	59.165***(1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21.0	2.3	11.7	39.3	6.4	7.2	8.1	3.2	0.7	100.0
380~549만원	19.8	1.9	14.2	34.2	7.1	9.9	7.2	4.7	1.0	100.0
550만원 이상	23.6	4.8	15.6	29.7	8.9	6.5	6.6	3.8	0.5	100.0
$\chi^2(df)$	51.914***(16)									
맞벌이 여부										
외벌이	17.5	2.2	13.4	39.1	5.2	9.3	7.7	4.8	0.8	100.0
맞벌이	21.9	3.3	14.2	32.3	9.4	6.7	7.4	4.1	0.7	100.0
부부 비경제활동	29.2		8.3	29.2	12.5	4.2	16.7		0.0	100.0
미혼 경제활동	28.3	4.7	14.5	31.1	6.8	7.7	5.1	1.4	0.5	100.0
미혼 비경제활동	24.3	1.4	10.8	29.7	6.8	10.8	9.5	5.4	1.4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
$\chi^2(df)$	73.826***(32)									
학력										
고졸 이하	15.0	3.5	10.6	41.3	7.7	11.8	7.1	2.7	0.3	100.0
대졸	22.0	3.1	13.6	34.0	7.5	7.1	7.9	4.1	0.8	100.0
대학원 졸 이상	25.2	2.3	19.0	29.7	6.8	8.4	3.5	4.2	1.0	100.0
$\chi^2(df)$	43.427***(1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21.5	3.4	14.9	32.4	8.6	8.0	6.6	4.0	0.7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1.5	2.4	11.9	37.8	5.5	7.6	8.5	3.9	0.8	100.0
$\chi^2(df)$	22.938**(8)									

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②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③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④ 비용 지원(유아원 비, 양육수당 등), ⑤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연장, ⑥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 교통안전 등), ⑧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⑨ 기타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1$ , \*\*\*  $p < .001$ .

### 바. 저출산 대응 정책과 사회 안전도에 대한 의견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정책이 실제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전체 평균 48.63점을 기록하여 정부의 정책 영향력에 대하여 크게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특히 여자가 더 부정적이었다. 한편 우리 사회가 영유아 키우기 안전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47.75점을 기록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여성이 더 부정적이었으며, 연령으로는 젊을수록 더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더 부정적이었다.

〈표 II-4-12〉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과 사회 안전도에 대한 의견

단위: 점

구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제 출생률에 영향		영유아 키우기 안전한 사회	
	영향 없음 <---->	많은 영향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전체	48.63		47.75	
성별				
남자	50.02		51.94	
여자	47.25		43.57	
$t$	2.882**		10.253***	
연령				
20대 이하	49.70		41.16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제 출생율에 영향		영유아 키우기 안전한 사회	
	영향 없음 <---->	많은 영향	그렇지 않다 <---->	그렇다
30대		48.32		45.19
40대		48.97		51.53
50대 이상		49.05		52.30
<i>F</i>		.196		21.973***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47.19		48.67
광역시/특별자치시		50.23		48.33
중소도시		48.30		46.78
군(읍면지역)		50.13		46.75
<i>F</i>		2.153		1.448
혼인 여부				
미혼		48.15		46.73
배우자 있음		48.74		47.99
배우자 없음		48.40		46.28
<i>F</i>		.108		.754
자녀 유무				
자녀 무		48.12		46.73
1명		49.66		47.11
2명 이상		47.90		49.35
<i>F</i>		1.429		3.801*
영유아유무				
자녀 무		48.12		46.73
영유아자녀 있음		48.40		52.80
영유아자녀 없음		49.07		45.70
<i>F</i>		.381		25.380***
월 가구 소득				
379만원이하		49.61		45.46
380~549만원		48.27		47.88
550만원이상		48.02		49.88
<i>F</i>		1.060		9.625***
맞벌이 여부				
외벌이		48.11		47.43
맞벌이		49.17		48.48
부부 비경제활동		50.83		45.00
미혼 경제활동		48.52		46.84
미혼 비경제활동		46.08		45.78
<i>F</i>		.488		.851
학력				
고졸 이하		51.55		46.19
대졸		48.28		47.41
대학원 졸 이상		47.82		51.69

구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제 출생율에 영향		영유아 키우기 안전한 사회	
	영향 없음 <---->	많은 영향	그렇지 않다 <---->	그렇다
<i>F</i>	2.695		6.335**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49.07		48.93	
불규칙적 출퇴근 등	47.87		45.70	
<i>t</i>	1.205		3.758***	

\*  $p < .05$ , \*\*  $p < .01$ , \*\*\*  $p < .001$ .

### 사. COVID-19 대응 관련 의견

올해 갑작스런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경험과 의견을 물었다. 우선 감염병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물었을 때, “유사 시 부모가 직접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38.2%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자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23.3%로 응답했다.

<표 II-4-13> 감염병 유행 시 영유아 교육 보육 우선 지원 정책(1순위)

단위: %

구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격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유사 시 부모가 직접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가정에 놀이자료나 자료를 지원해야 한다	가정과 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앱	기타	모르겠다	계
전체	17.0	9.1	38.2	23.3	8.4	0.4	3.7	100.0
성별								
남자	18.0	11.1	37.8	20.2	8.9	0.4	3.6	100.0
여자	16.0	7.2	38.6	26.4	7.9	0.3	3.7	100.0
$\chi^2(df)$	28.550***(6)							
연령								
20대 이하	15.9	4.9	30.5	40.2	6.1	0.0	2.4	100.0
30대	15.0	8.2	40.3	24.6	7.8	0.3	3.8	100.0
40대	19.1	10.4	36.7	20.6	9.3	0.5	3.4	100.0
50대 이상	22.7	12.4	31.4	18.9	10.3	0.0	4.3	100.0
$\chi^2(df)$	45.758***(18)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9.7	10.9	36.2	20.3	7.1	0.7	5.1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16.1	8.8	37.7	24.6	9.4	0.2	3.2	100.0
중소도시	15.8	7.9	40.0	24.0	8.7	0.1	3.5	100.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구분	등원할 수 없는 경우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	원격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유사 시 부모가 직접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가정에 놀이자료나 재료를 지원해야 한다	가정과 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앱	기타	모르겠다	계
군(읍면지역)	15.0	9.5	39.5	27.0	7.5	1.0	.5	100.0
$\chi^2(df)$	40.073**(18)							
혼인 여부								
미혼	16.3	10.6	36.6	21.1	8.5	0.6	6.3	100.0
배우자 있음	17.1	8.7	38.7	23.8	8.3	0.3	3.1	100.0
배우자 없음	17.0	17.0	27.7	19.1	12.8	0.0	6.4	100.0
$\chi^2(df)$	24.196*(12)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7.2	9.8	37.4	20.7	8.5	0.5	5.9	100.0
1명	16.1	8.7	40.8	23.4	8.3	0.5	2.1	100.0
2명 이상	17.7	9.1	35.9	25.3	8.4	0.1	3.5	100.0
$\chi^2(df)$	32.541**(12)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17.2	9.8	37.4	20.7	8.5	0.5	5.9	100.0
영유아자녀 없음	19.2	11.5	35.9	18.9	11.3	0.5	2.7	100.0
영유아자녀 있음	15.6	7.5	40.0	27.2	6.8	0.2	2.8	100.0
$\chi^2(df)$	65.216*** (12)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18.0	6.8	34.9	26.5	8.3	0.4	5.2	100.0
380~549만원	16.6	10.0	37.4	22.9	9.3	0.4	3.5	100.0
550만원 이상	16.3	10.6	42.3	20.5	7.7	0.3	2.4	100.0
$\chi^2(df)$	39.134*** (12)							
맞벌이 여부								
외벌이	18.1	7.6	33.4	30.0	7.6	0.3	3.0	100.0
맞벌이	16.4	9.5	42.6	19.3	8.8	0.4	3.0	100.0
부부 비경제활동	13.3	6.7	46.7	16.7	10.0	0.0	6.7	100.0
미혼 경제활동	15.5	11.4	36.5	20.2	9.8	0.6	6.1	100.0
미혼 비경제활동	21.7	9.6	32.5	25.3	3.6	0.0	7.2	100.0
$\chi^2(df)$	78.262*** (24)							
학력								
고졸 이하	17.6	6.7	30.7	29.2	12.1	0.0	3.6	100.0
대졸	16.8	9.3	38.4	23.1	8.1	0.4	3.9	100.0
대학원 졸 이상	17.4	10.7	44.9	18.3	6.5	0.3	2.0	100.0
$\chi^2(df)$	36.523*** (12)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17.4	9.4	39.4	20.2	9.4	0.4	3.9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16.2	8.6	36.2	28.7	6.7	0.3	3.3	100.0
$\chi^2(df)$	33.164*** (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코로나로 인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할 때 양육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고르게 하였다. 이에 약 절반에 달하는 49.2% 응답자가 영아를 먼저 선정했고 이어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이어져 어린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원해야한다는 생각에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지급 규모를 묻는 질문에 전체 평균은 160.25만원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는 193.99만원이라고 답하였으나 여자는 126.62만원에 그쳤다. 소득별 비교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금 규모도 더 크게 지급할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4〉 코로나로 인한 자녀 양육비 지원 관련

단위: 점, 만원, %

구분	양육비 지원 적절성	연간 지급 규모 (만원)	지급 대상 우선순위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졸 이상 성인	
전체	66.10	160.25	49.2	27.2	13.5	2.7	5.4	2.0	
성별									
남자	67.97	193.99	52.8	25.5	12.8	2.8	4.2	2.0	
여자	64.24	126.62	45.6	28.9	14.1	2.6	6.6	2.1	
<i>t</i>				4.150***					
연령									
20대 이하	66.77	114.60	46.3	31.7	11.0	3.7	3.7	3.7	
30대	67.55	165.00	51.8	28.5	11.6	2.0	4.2	1.9	
40대	65.07	158.42	44.9	25.1	16.9	3.9	7.0	2.1	
50대 이상	58.38	146.95	50.8	25.9	11.4	1.6	7.6	2.7	
<i>F</i>				8.527***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62.98	164.15	49.7	29.0	11.1	1.8	5.6	2.8	
광역시/특별자치시	66.47	159.02	47.7	27.4	14.1	3.6	5.3	1.9	
중소도시	67.99	156.08	50.3	25.3	14.5	2.9	5.3	1.7	
군(읍면지역)	67.88	169.16	46.0	29.0	15.5	2.0	6.0	1.5	
<i>F</i>				7.224***					
혼인 여부									
미혼	61.15	168.93	59.0	22.6	9.3	2.1	4.2	2.8	
배우자 있음	67.28	159.19	47.0	28.2	14.5	2.9	5.6	1.9	
배우자 없음	58.51	119.79	55.3	25.5	6.4	2.1	8.5	2.1	
<i>F</i>				15.450***					
자녀 유무									
자녀 무	61.62	168.77	55.2	25.7	9.7	2.2	4.2	3.0	
1명	68.61	164.69	51.6	28.9	11.7	2.1	4.6	1.0	

구분	양육비 지원 적절성	연간 지급 규모 (만원)	지급 대상 우선순위						
			영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졸 이상 성인	
2명 이상	67.05	147.98	41.3	26.5	18.6	3.9	7.3	2.4	
<i>F</i>				21.067***					
영유아유무									
자녀 무	61.62	168.77	55.2	25.7	9.7	2.2	4.2	3.0	
영유아자녀 있음	63.17	135.48	38.6	19.9	23.1	4.6	10.7	3.1	
영유아자녀 없음	70.38	168.22	51.1	32.0	10.7	2.1	3.3	.9	
<i>F</i>				41.652***					
월 가구 소득									
379만원이하	67.27	156.37	50.8	28.8	10.6	2.7	5.0	2.1	
380~549만원	66.11	160.03	48.8	25.2	15.5	3.4	5.6	1.5	
550만원이상	64.95	164.27	47.9	27.6	14.3	2.1	5.6	2.5	
<i>F</i>				2.241					
맞벌이 여부									
외벌이	68.38	151.40	46.8	29.4	14.1	2.7	5.6	1.4	
맞벌이	66.34	164.85	47.2	27.3	14.6	3.0	5.7	2.2	
부부 비경제활동	72.50	170.33	43.3	30.0	20.0	3.3	-	3.3	
미혼 경제활동	60.79	163.03	58.0	23.2	9.0	1.8	5.3	2.6	
미혼 비경제활동	61.75	175.98	62.7	20.5	9.6	3.6	-	3.6	
<i>F</i>				8.990***					
학력									
고졸 이하	65.44	154.37	47.5	27.6	10.3	4.1	6.7	3.6	
대졸	66.32	158.77	49.1	26.7	14.0	2.7	5.5	2.0	
대학원 졸 이상	65.38	176.43	51.1	29.8	13.2	1.4	3.7	.8	
<i>F</i>				.37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65.80	168.35	50.5	26.7	13.2	2.4	5.2	2.0	
불규칙적 출퇴근 등	66.64	146.14	46.9	28.1	13.9	3.2	5.8	2.0	
<i>t</i>				-.899					

\*\*\*  $p < .001$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등에 비하여 긴급보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에 따라 코로나 전후로 큰 차이 없는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는 초중등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제일 많은 38.3%를 기록했다 바로 뒤를 이어 오히려 초중등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35.2%를 기록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동일한 기준이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원하는 경

우가 76.9%에 달해 여성의 70.2%보다 더 많았다. 한편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영유아보다 더 나은 자녀가 있는 경우 의견이 조금 달랐는데, 아이들이 영유아보다 큰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영유아 자녀의 부모보다 더 높았다.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경우에는 긴급보육이 상대적으로 요긴할 수 있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비영유아 자녀 부모의 걱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표 II-4-15〉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유치원, 어린이집)

단위: %

구분	보다 엄격한 기준(비율 축소 또는 폐쇄)이 적용되어야 한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다 느슨한 기준(비율 확대 적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방역 노력은 기울이되 인원 제한 없이 원하는 모두에게 양육지원을 해야한다	계
전체	35.2	38.3	10.1	16.4	100.0
성별					
남자	36.9	40.0	9.7	13.4	100.0
여자	33.5	36.7	10.5	19.4	100.0
$\chi^2(df)$	21.932***(3)				
연령					
20대 이하	20.7	52.4	17.1	9.8	100.0
30대	35.7	35.5	10.4	18.4	100.0
40대	35.4	41.6	9.3	13.7	100.0
50대 이상	35.1	39.5	9.2	16.2	100.0
$\chi^2(df)$	32.272***(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36.7	35.9	11.5	15.9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34.5	39.7	9.8	15.9	100.0
중소도시	35.5	38.9	9.1	16.5	100.0
군(읍면지역)	29.0	40.0	11.0	20.0	100.0
$\chi^2(df)$	9.851(9)				
혼인 여부					
미혼	39.8	35.7	9.5	15.0	100.0
배우자 있음	34.0	39.0	10.4	16.7	100.0
배우자 없음	46.8	34.0	2.1	17.0	100.0
$\chi^2(df)$	11.702(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8.8	37.8	9.6	13.8	100.0

구분	보다 엄격한 기준(비율 축소 또는 폐쇄)이 적용되어야 한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다 느슨한 기준(비율 확대 적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방역 노력은 기울이되 인원 제한 없이 원하는 모두에게 양육지원을 해야한다	계
1명	34.2	37.5	11.4	16.9	100.0
2명 이상	33.1	39.7	9.1	18.1	100.0
$\chi^2(df)$			14.464*(6)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38.8	37.8	9.6	13.8	100.0
영유아자녀 없음	37.5	42.4	7.6	12.5	100.0
영유아자녀 있음	31.7	36.5	11.8	20.1	100.0
$\chi^2(df)$			45.771*** (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35.3	38.9	9.2	16.6	100.0
380~549만원	34.7	38.5	10.5	16.3	100.0
550만원 이상	35.5	37.6	10.6	16.3	100.0
$\chi^2(df)$			1.521(6)		
맞벌이 여부					
외벌이	36.0	36.8	9.2	17.9	100.0
맞벌이	32.6	40.2	11.2	16.0	100.0
부부 비경제활동	26.7	56.7	10.0	6.7	100.0
미혼 경제활동	41.1	36.0	8.4	14.5	100.0
미혼 비경제활동	36.1	32.5	12.0	19.3	100.0
$\chi^2(df)$			23.813*(12)		
학력					
고졸 이하	32.3	42.1	9.0	16.5	100.0
대졸	35.3	38.7	10.0	15.9	100.0
대학원 졸 이상	37.1	31.7	11.8	19.4	100.0
$\chi^2(df)$			10.583(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36.2	38.7	9.9	15.1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33.4	37.6	10.4	18.6	100.0
$\chi^2(df)$			7.406(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각종 시설 등의 정상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먼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4.4%는 제한된 인원과 시간에 대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입장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28.1%로 많았다. 물론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23.1%로 적지는 않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

쇄해야 한다고 한 의견이 남성보다 5.5% 포인트 더 높았다. 도시 규모에 있어서는 작을수록 더 폐쇄적 운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6〉 실내 시설: 실내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운영

단위: %

구분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운영해야 한다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영 시간 등)만 허용한다	가급적 폐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
전체	14.4	28.1	34.4	23.1	100.0
성별					
남자	16.7	31.4	31.6	20.3	100.0
여자	12.1	24.8	37.2	25.8	100.0
$\chi^2(df)$			39.848*** <sup>(3)</sup>		
연령					
20대 이하	7.3	26.8	41.5	24.4	100.0
30대	13.5	26.0	35.3	25.1	100.0
40대	16.2	31.0	33.6	19.3	100.0
50대 이상	15.1	30.8	27.6	26.5	100.0
$\chi^2(df)$			27.831** <sup>(9)</sup>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16.6	30.2	33.7	19.6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14.0	28.0	37.0	21.0	100.0
중소도시	13.2	27.3	33.2	26.2	100.0
군(읍면지역)	13.5	22.5	34.5	29.5	100.0
$\chi^2(df)$			24.894** <sup>(9)</sup>		
혼인 여부					
미혼	16.1	23.9	37.8	22.2	100.0
배우자 있음	14.0	29.1	33.7	23.2	100.0
배우자 없음	14.9	21.3	38.3	25.5	100.0
$\chi^2(df)$			8.962 <sup>(6)</sup>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5.8	26.2	37.1	20.8	100.0
1명	14.1	28.3	34.0	23.7	100.0
2명 이상	13.5	29.5	32.7	24.3	100.0
$\chi^2(df)$			9.401 <sup>(6)</sup>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15.8	26.2	37.1	20.8	100.0
영유아자녀 없음	17.2	32.2	32.1	18.5	100.0
영유아자녀 있음	12.0	27.0	34.0	26.9	100.0
$\chi^2(df)$			38.528*** <sup>(6)</sup>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14.1	25.6	35.6	24.8	100.0

구분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운영해야 한다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영 시간 등)만 허용한다	가급적 폐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
380~549만원	14.2	29.0	34.1	22.7	100.0
550만원 이상	14.9	29.7	33.6	21.8	100.0
$\chi^2(df)$			6.542(6)		
맞벌이 여부					
외벌이	12.4	27.1	34.0	26.5	100.0
맞벌이	15.0	30.7	33.4	20.9	100.0
부부 비경제활동	26.7	20.0	36.7	16.7	100.0
미혼 경제활동	16.3	25.3	37.3	21.2	100.0
미혼 비경제활동	14.5	14.5	41.0	30.1	100.0
$\chi^2(df)$			33.247***(12)		
학력					
고졸 이하	17.1	24.0	33.3	25.6	100.0
대졸	13.6	28.4	35.1	22.9	100.0
대학원 졸 이상	16.9	30.1	31.5	21.6	100.0
$\chi^2(df)$			10.043(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14.8	30.2	33.8	21.2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13.7	24.4	35.5	26.4	100.0
$\chi^2(df)$			18.385***(3)		

\*\*  $p < .01$ , \*\*\*  $p < .001$ .

한편 이번에는 옥외 시설에 대한 개방 의견을 물었다. 옥외시설에 대해서는 제한된 인원과 시간에 허용하는 것이 32.2%, 입장인원만 제한하고 정상 운영하는 것이 32.0%였다. 옥외시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표 II-4-17〉 옥외 시설: 공원, 광장 등 등의 운영

단위: %

구분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운영해야 한다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영 시간 등)만 허용한다	가급적 폐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
전체	22.3	32.0	32.2	13.5	100.0
성별					

구분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운영해야 한다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한된 인원만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영 시간 등)만 허용한다	가급적 폐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
남자	24.5	33.2	30.1	12.2	100.0
여자	20.1	30.8	34.4	14.7	100.0
$\chi^2(df)$	16.305*** (3)				
연령					
20대 이하	14.6	32.9	36.6	15.9	100.0
30대	21.7	30.0	34.0	14.3	100.0
40대	24.2	34.2	30.7	10.9	100.0
50대 이상	19.5	37.8	23.2	19.5	100.0
$\chi^2(df)$	30.093*** (9)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23.0	33.0	31.6	12.4	100.0
광역시/특별자치시	23.4	30.2	33.4	12.9	100.0
중소도시	21.3	33.7	31.3	13.7	100.0
군(읍면지역)	20.0	25.0	36.0	19.0	100.0
$\chi^2(df)$	14.079 (9)				
혼인 여부					
미혼	23.1	26.2	33.6	17.1	100.0
배우자 있음	22.1	33.3	31.9	12.6	100.0
배우자 없음	21.3	29.8	31.9	17.0	100.0
$\chi^2(df)$	14.384* (6)				
자녀 유무					
자녀 없음	24.5	27.4	32.8	15.3	100.0
1명	22.4	33.0	32.5	12.1	100.0
2명 이상	20.3	34.8	31.4	13.5	100.0
$\chi^2(df)$	16.521* (6)				
영유아 자녀유무					
자녀 없음	24.5	27.4	32.8	15.3	100.0
영유아자녀 없음	24.3	35.7	28.8	11.2	100.0
영유아자녀 있음	19.9	32.8	33.7	13.6	100.0
$\chi^2(df)$	25.017*** (6)				
월평균 가구 소득					
379만원 이하	22.2	29.0	33.0	15.8	100.0
380~549만원	22.7	33.0	31.5	12.7	100.0
550만원 이상	22.0	34.1	32.1	11.8	100.0
$\chi^2(df)$	12.075 (6)				
맞벌이 여부					
외벌이	21.4	32.6	32.2	13.9	100.0
맞벌이	22.5	34.0	31.9	11.5	100.0
부부 비경제활동	30.0	26.7	23.3	20.0	100.0
미혼 경제활동	22.0	27.5	33.8	16.7	100.0

구분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운영해야 한다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영 시간 등)만 허용한다	가급적 폐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계
미혼 비경제활동	28.9	20.5	31.3	19.3	100.0
$\chi^2(df)$			23.741*(12)		
학력					
고졸 이하	20.4	30.0	30.5	19.1	100.0
대졸	21.6	32.2	33.4	12.8	100.0
대학원 졸 이상	28.9	33.1	26.4	11.5	100.0
$\chi^2(df)$			24.865*** (6)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22.3	33.8	30.9	13.0	100.0
불규칙적 출퇴근 등	22.3	29.0	34.5	14.2	100.0
$\chi^2(df)$			8.644*(3)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  $p < .001$ .

### 아.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인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100점 만점에 총 53.37 점 정도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18>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단위: 점

구분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
전체	53.37
성별	
남자	52.64
여자	54.10
$t$	-1.903
연령	
20대 이하	54.57
30대	52.36
40대	54.13
50대 이상	57.84
$F$	4.564**
지역규모	

구분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
서울특별시	51.30
광역시/특별자치시	53.34
중소도시	54.79
군(읍면지역)	54.88
<i>F</i>	4.784**
혼인 여부	
미혼	50.81
배우자 있음	53.85
배우자 없음	56.38
<i>F</i>	4.923**
자녀 유무	
자녀 무	51.28
1명	54.03
2명 이상	54.40
<i>F</i>	5.980**
영유아유무	
자녀 무	51.28
영유아자녀 있음	53.94
영유아자녀 없음	54.34
<i>F</i>	5.986**
월 가구 소득	
379만원이하	54.28
380~549만원	52.74
550만원이상	53.10
<i>F</i>	1.451
맞벌이 여부	
외벌이	54.92
맞벌이	53.06
부부 비경제활동	53.33
미혼 경제활동	50.36
미혼 비경제활동	56.63
<i>F</i>	4.436**
학력	
고졸 이하	55.88
대졸	53.17
대학원 졸 이상	51.97
<i>F</i>	3.545*
고용 형태별	
규칙적 출퇴근	51.90
불규칙적 출퇴근 등	55.94
<i>t</i>	-5.093***

\*  $p < .05$ , \*\*  $p < .01$ , \*\*\*  $p < .001$ .



## 5. 소결

부모됨에 대한 여론은 주요한 배경변인별로 부모-자식 관계에 관한 가치관이 구조적인 혹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각기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는지 그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한 차이가 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되어야 한다. 본 장의 분석은 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의 규모, 혼인 여부, (영유아) 자녀 유무, 소득, 학력, 고용형태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변인에 의한 분석을 통해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남성, 고연령 응답자, 소도시 거주자, 기혼, 자녀가 있는 부모, 소득이 낮은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등은 상대적으로 전통적 부모됨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설문 내용에 따라 조금씩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일반화하여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유념하며 대상별로 살펴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경우 가사 및 양육의 분담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부모됨이나 양육관에 머물러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육 및 가사를 분담하고자 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양육과 가사의 담당은 구체적으로 물으면 물을수록 여전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양육정책에 있어서 성평등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여전히 중요한 접근법이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일을 그만두거나 업무시간을 줄이는 측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의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성의 경우 당연하게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육아의 권리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남성보호에 대한 입장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평등적 관점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오히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미혼의 응답자의 경우 부모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국민에 비하여 부모됨을 덜 행복하게 인식하고 있고, 인생의 목표로서 부모가 되는 것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더 깊이 공감하고, 대신 자녀의 양육은 영아라고 할지라도 꼭 부모만 담당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미혼의 국민은 또한 부부간의 가사 및 양육 분담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응답자들

에 비하여 부부 간에 보다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서 이해할 때 미혼 국민들은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는 국민에 비하여 부모됨 혹은 육아에 대하여 보다 큰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있어서 미혼의 국민은 이혼, 별거,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국민만큼은 아니지만 배우자가 있는 국민에 비하여 결혼에 대하여 하지 않는 편이 낫다 혹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택한 경우가 약 70%에 달해 긍정적인 응답은 약 30%에 불과하였다. 미혼 응답자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결혼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은 최근의 초저출산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소득과 학력, 그리고 종사상 지위의 변인은 종종 겹쳐서 유사한 패턴으로 읽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갈수록 우리 사회가 교육-직업-소득이 고착화되어 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는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정책에 대해 다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집단으로 대립하는 경향을 떨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다 면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단 대 집단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이해의 폭이 확장되는 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얻은 시사점은 지금까지 추진된 정부의 비용지원, 공공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확대 등에 대하여 홍보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고 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로 대응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올해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최대 40+20만원 지원한 액수보다 더 많은 160만원 정도 연간 지원하기를 바라는 의견에 상대적으로 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감염병 대응 정책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를 바라지만, 이로 인해 가중되는 가정내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의 운영을 제한된 규모일 지라도 탄력적으로 개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수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III

## 1~4차년도 KICCE 여론조사 추이분석

- 0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0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03 육아 행복감에 대한 여론
- 0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05 소결



### Ⅲ. 1~4차년도 KICCE 여론조사 추이분석

Ⅲ장에서는 1~4차년도(2017~2020년) 동일 조사내용에 대한 여론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 1. 부모됨에 대한 여론

##### 가. 부모됨의 인식 및 가치

〈표 Ⅲ-1-1〉은 부모됨에 대한 7개 문항(4점 척도)에 대한 1, 3, 4차년도(2017, 2019, 2020년)의 여론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부모됨 관련 동의점도에는 큰 인식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항목에서는 1차년도 3.27점에 비해 3차년도 3.22점으로 약간 낮아졌으나 4차년도에는 3.23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문항에서는 1, 3차년도(3.53점)에 비해 4년도에는 3.40점으로 약간 낮아졌으며 그 외에도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항목과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항목에서 3차년도에 비해 점수가 낮아져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와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항목은 1차년도 및 3차년도에 비해 점수가 높아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남녀로 나누어서 비교해보았을 때, 남녀 모두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나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는 항목에 남자의 경우 3점대의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2점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부모됨 관련 동의 정도 추이(2017, 2019, 2020)

단위: 점

구분	2017	2019	2020	남자			여자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3.27	3.22	3.23	3.32	3.29	3.27	3.23	3.15	3.19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3.53	3.53	3.40	3.43	3.42	3.30	3.64	3.64	3.49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3.45	3.47	3.39	3.40	3.42	3.33	3.50	3.53	3.44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3.35	3.30	3.15	3.35	3.32	3.18	3.34	3.28	3.13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2.64	2.68	2.61	2.57	2.62	2.57	2.70	2.74	2.64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2.92	2.89	2.96	3.01	3.00	3.07	2.82	2.77	2.85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3.00	3.00	3.18	2.98	3.03	3.11	3.02	2.97	3.25
사례수	3,000	3,000	3,091	1,522	1,522	1,543	1,478	1,478	1,548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표 III-1-2〉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추이를 나타낸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였고, 3차년도에는 이 인식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4차년도에는 소폭 줄어든 대신,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32.1%로 늘었다.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1차년도(63.7%)부터 4차년도(74.7%)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0
<b>부모의 역할</b>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68.8	69.4	67.9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31.2	30.6	32.1
계	100.0(3,000)	100.0(3,000)	100.0(3,091)
<b>자녀의 역할</b>			

구분	2017	2019	2020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36.3	28.9	25.3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	63.7	71.1	74.7
계	100.0(3,000)	100.0(3,000)	100.0(3,091)

〈표 III-1-3〉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4차년도에도 여전히 대학 졸업할 때까지라는 여론이 42.7%로 가장 높았으나, 이전과 비교하여 약간 감소된 수치이며, 이는 특히 3차년도 남자의 응답(45.0%)이 4차년도 39.5%로 5.5%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는 인식은 4차년도에는 21.5%로 이전 1, 3차년도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아졌으며,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이라는 인식도 3차년도에 비해 높아졌다. 그러나 취업할 때까지라는 인식은 3차년도에 약간 증가하였다가 4차년도에는 21.3%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III-1-3〉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간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0	남자			여자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9.8	17.2	21.5	19.2	15.2	20.4	20.4	19.1	22.7
대학 졸업할 때까지	45.1	45.7	42.7	42.4	45.0	39.5	47.9	46.4	45.8
취업할 때까지	20.9	23.5	21.3	21.6	23.7	23.1	20.2	23.4	19.5
결혼할 때까지	8.3	7.8	7.8	9.7	9.1	8.7	7.0	6.5	7.0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4.5	4.0	4.2	5.3	4.7	5.6	3.7	3.4	2.8
평생 동안	1.4	1.8	2.5	1.9	2.4	2.7	0.9	1.2	2.3
계	100.0 (3,000)	100.0 (3,000)	100.0 (3,091)	100.0 (1,522)	100.0 (1,522)	100.0 (1,543)	100.0 (1,478)	100.0 (1,478)	100.0 (1,548)

〈표 III-1-4〉는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고등학생이 가장 양육비용이 든다는 인식은 3차년도와 동일하나, 소폭 줄어들었고, 영유아에게 양육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초등 전 학년과 중학생의 경우 양육비용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증가하여 이 시기에 대한 적절한 비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표 III-1-4〉 양육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에 대한 인식(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9	2020	남자		여자	
			2019	2020	2019	2020
영아(0~2세)	2.7	1.9	2.8	1.9	2.7	1.9
유아(3~5세)	8.9	5.9	10.2	6.2	7.5	5.6
초등 저(1~3학년)	4.2	5.2	4.5	5.2	4.0	5.3
초등 고(4~6학년)	6.5	9.6	5.8	8.8	7.1	10.3
중학생	6.4	8.9	6.9	7.4	5.8	10.3
고등학생	71.3	68.5	69.8	70.4	72.9	66.5
계	100.0 (3,000)	100.0 (3,091)	100.0 (1,522)	100.0 (1,543)	100.0 (1,478)	100.0 (1,548)

〈표 III-1-5〉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성역할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는 1차년도부터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직장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문항 역시 동일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드는 것이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1, 3차년도에는 큰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도에 소폭 상승하였다.

〈표 III-1-5〉 가정 내 부모의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 추이(2017, 2019, 2020)

단위: 점, 명

구분	2017	2019	2020	남자			여자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2.87	2.74	2.54	2.93	2.84	2.62	2.81	2.65	2.46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2.94	2.92	2.83	2.93	2.94	2.81	2.94	2.89	2.84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드는 것이다	2.48	2.46	2.61	2.61	2.61	2.72	2.35	2.30	2.50
사례수	3,000	3,000	3,091	1,522	1,522	1,543	1,478	1,478	1,548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나. 부모역할의 실제

자녀 양육시 이상적인 양육분담과 가사분담 비의 추이를 나타낸 <표 III-1-6>을 살펴보면, '자녀 양육 분담'과 '가사 분담' 모두 아버지의 이상적 분담비가 1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4차년도에 다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상적 가사 분담비의 경우 응답자가 남자인 경우에도 아버지의 분담 비중이 1차년도 4.13에서 3차년도 4.28, 4차년도 4.32로 점점 높아지고 있어 가사 분담에 대한 남성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III-1-6> 이상적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비, (명)

구분	자녀 양육 분담비		가사 분담비		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2017	5.74	4.26	5.85	4.16	(3,000)
2019	5.60	4.40	5.67	4.33	(3,000)
2020	5.74	4.26	5.73	4.27	(3,091)
성별					
남자					
2017	5.83	4.17	5.87	4.13	(1,522)
2019	5.70	4.30	5.72	4.28	(1,522)
2020	5.78	4.22	5.68	4.32	(1,543)
여자					
2017	5.65	4.35	5.82	4.18	(1,478)
2019	5.50	4.50	5.61	4.39	(1,478)
2020	5.69	4.31	5.78	4.22	(1,548)

<표 III-1-7>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제 자녀 양육과 가사 분담 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녀 양육 분담에 있어서 1차년도에는 어머니 6.86, 아버지 3.14에서 3차년도 어머니 6.65:아버지 3.35로 아버지 분담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가 4차년도에 어머니 6.70: 아버지 3.30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특히 남자 응답자의 경우에는 3차년도에 비해 아버지의 분담비가 커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가사 분담의 경우에도 1차 어머니 6.81: 아버지 3.19, 3차년도 어머니 6.60: 아버지 3.40, 4차년도 어머니 6.55: 아버지 3.45로 아버지의 분담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영유아 자녀 부모)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 비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비, (명)

구분	자녀 양육 분담비		가사 분담비		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2017	6.86	3.14	6.81	3.19	( 501)
2019	6.65	3.35	6.60	3.40	( 510)
2020	6.70	3.30	6.55	3.45	(1,319)
성별					
남자					
2017	6.51	3.49	6.30	3.70	( 261)
2019	6.51	3.49	6.31	3.69	( 317)
2020	6.37	3.63	5.99	4.01	( 606)
여자					
2017	7.25	2.75	7.36	2.64	( 240)
2019	6.90	3.10	7.08	2.92	( 193)
2020	6.97	3.03	7.02	2.98	( 713)

〈표 III-1-8〉은 가사 및 양육 활동의 주 담당자에 대한 3차년도와 4차년도의 응답을 비교해 본 것이다. 3차년도에 비하여 4차년도에는 집안일(식사준비, 빨래 등), 자녀 밥먹고 옷입는 것 도와주기 활동은 아버지의 비율이 높아졌지만, 자녀와 놀아주기 및 책읽어주기,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의 활동에서는 어머니가 담당한다는 비율이 더 높아진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한 기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8〉 (영유아 자녀 부모) 가사 및 양육 활동별 주 담당자(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9			계	2020			계
	아버지	어머니	기타		아버지	어머니	기타	
집안일(식사준비, 빨래 등)	12.0	84.5	3.5	100.0(510)	14.2	80.1	5.7	100.0(1,319)
자녀 밥먹고, 옷입는 것 도와주기	14.5	82.2	3.3	100.0(510)	15.6	77.8	6.6	100.0(1,319)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43.3	51.2	5.5	100.0(510)	36.2	55.2	8.6	100.0(1,319)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	22.0	68.0	10.0	100.0(510)	19.0	67.5	13.5	100.0(1,319)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21.2	76.1	2.7	100.0(510)	12.4	84.3	3.3	100.0(1,319)

조부모의 정기적 손자녀 돌봄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은 3차년도와 4차년도 모두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4차년도에는 소폭 감소하였고,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인식이 약간 증가하였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를 위해가 3차년도 29.9%, 4차년도 3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조부모를 위해서라는 응답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손자녀를 위해서 정기적 손자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3차년도 20.1%에 비해서 4차년도 16.0%로 감소하였다.

〈표 III-1-9〉 조부모의 정기적 손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2019, 2020)

단위: %(명)

구분	필요하다			계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계
	손자녀를 위해	자녀를 위해	조부모를 위해				
2019	20.1	29.9	5.8	55.8	25.7	18.5	100.0(3,000)
2020	16.0	31.5	7.4	54.9	28.7	16.4	100.0(3,091)
성별							
남자							
2019	21.5	29.8	7.0	58.3	23.3	18.4	100.0(1,522)
2020	17.9	32.6	8.0	58.5	27.0	14.6	100.0(1,543)
여자							
2019	18.7	30.1	4.5	53.3	28.1	18.5	100.0(1,478)
2020	14.1	30.4	6.9	51.4	30.5	18.2	100.0(1,548)

〈표 III-1-10〉은 자녀 생애주기별로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의 추이를 나타낸다.

〈표 III-1-10〉 자녀 양육시기별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추이(2017, 2019, 2020)

단위: %

구분	영유아기				초등학생 시기			중·고등학생 시기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영아	유아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74.7	70.1	82.1	57.1	27.6	26.8	24.3	11.1	10.1	9.6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15.9	17.8	10.8	27.6	47.5	44.7	40.5	29.5	25.9	21.8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0.9	1.4	0.9	3.0	1.2	1.8	3.4	1.4	1.3	3.0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8.5	10.7	6.2	12.3	23.6	26.7	31.8	57.9	62.7	6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좋은 부모로서 역할 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이라는 인식이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40.7%에서 52.3%로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다음으로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를 꼽았으나, 1차년도 35.8%에서 3차년도 24.2%, 4차년도 18.7%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학업지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양육지식이 좋은 부모 역할수행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은 3차년도에 감소하였다가 4차년도에 13.8%로 증가하였다. 반면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1차년도에 비하여 3차년도에 증가하였다가, 4차년도에 다시 감소하였다.

〈표 III-1-11〉 좋은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해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양육지식	정서적 지원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학업지도	경제적 지원	기타	계
2017	10.0	40.7	35.8	0.5	12.8	0.2	100.0(3,000)
2019	7.8	51.6	24.2	0.6	15.6	0.2	100.0(3,000)
2020	13.8	52.3	18.7	1.1	13.9	0.2	100.0(3,094)
성별							
남자							
2017	10.4	33.4	40.3	0.8	14.8	0.3	100.0(1,522)
2019	9.6	44.5	25.3	0.9	19.3	0.3	100.0(1,522)
2020	15.3	46.5	20.8	1.5	15.6	0.3	100.0(1,543)
여자							
2017	9.6	48.2	31.2	0.2	10.7	0.1	100.0(1,478)
2019	5.9	58.9	23.0	0.3	11.8	0.1	100.0(1,478)
2020	12.3	58.0	16.7	0.7	12.1	0.1	100.0(1,548)

〈표 III-1-12〉는 부모로서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부모의 자녀 체벌에 3차년도에서는 체벌 할 수 있다는 여론이 53.0%로 절반 이상 응답하였으나 4차년도 조사에서는 체벌은 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46.4%로 체벌 할 수 있다는 응답을 넘어, 부모의 자녀체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12〉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2019, 2020)

단위: %(명)

구분	체벌 할 수 있다	체벌은 하면 안 된다	모르겠다	계
2019	53.0	38.7	8.3	100.0(3,000)
2020	44.3	46.4	9.3	100.0(3,091)
성별				
남자				
2019	54.3	37.1	8.5	100.0(1,522)
2020	44.1	47.8	8.1	100.0(1,543)
여자				
2019	51.7	40.3	8.1	100.0(1,478)
2020	44.5	45.0	10.5	100.0(1,548)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살펴보면, 3, 4차년도 모두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편이라는 응답이 각 53.9%, 47.1%로 가장 높았고,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40.6%, 38.5%로 나타나 아직까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3차년도에 비해 4차년도에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줄어들고 보통, 쉬운 편임, 매우 쉬움의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어려움의 인식 정도를 평균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4.35점에서 4.22점으로 낮아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해 소폭이나마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2019, 2020)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쉬움	쉬운 편임	보통	어려운 편임	매우 어려움	계	평균
2019	0.0	0.2	5.2	53.9	40.6	100.0(3,000)	4.35
2020	0.2	1.9	12.2	47.1	38.5	100.0(3,091)	4.22
성별							
남자							
2019	0.1	0.4	6.4	56.3	36.8	100.0(1,522)	4.29
2020	0.1	2.9	15.6	48.2	33.2	100.0(1,543)	4.12
여자							
2019	0.0	0.1	4.0	51.5	44.5	100.0(1,478)	4.40
2020	0.3	1.0	8.8	46.1	43.8	100.0(1,548)	4.32

〈표 III-1-14〉는 영유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할 때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3차년도와 4차년도 모두 자녀와 함께

놀이할 때 보통정도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안한다, 사용하는 편이다, 전혀 안한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 순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보았을 때, 3차년도 2.81에서 4차년도 2.83점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성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3차년도에 비해 4차년도에 사용 정도가 줄어들었으나, 여자의 경우 3차년도보다 4차년도에 스마트폰 사용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III-1-14〉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_자녀와 함께 놀이할 때 (2019, 2020)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안한다		⇔		매우 많이 사용한다	계	평균
	①	②	③	④	⑤		
2019	10.7	29.8	31.5	23.9	4.2	100.0(524)	2.81
2020	13.4	23.9	35.0	21.8	5.9	100.0(1,325)	2.83
성별							
남자							
2019	10.8	29.4	30.7	24.5	4.6	100.0(323)	2.83
2020	16.4	24.1	34.3	20.9	4.3	100.0(609)	2.72
여자							
2019	10.4	30.3	32.8	22.9	3.5	100.0(201)	2.79
2020	10.8	23.7	35.6	22.6	7.3	100.0(716)	2.92

주: 평균은 '전혀 안한다(1점)-매우 많이 사용한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표 III-1-15〉는 자녀와 함께 식사할 때 전화나 문자 사용, 동영상 시청, 게임, 검색 등을 위해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한 추이를 조사한 결과이다. 3차년도(29.4%)에 비하여 4차년도(36.5%)에는 전혀 안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며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매우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낮아져,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경우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5〉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_자녀와 함께 식사할 때(2019, 2020)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안한다		↔		매우 많이 사용한다	계	평균
	①	②	③	④	⑤		
2019	29.4	27.1	26.1	14.3	3.1	100.0(524)	2.35
2020	36.5	23.8	25.3	12.5	1.5	100.0(1,325)	2.20
성별							
남자							
2019	23.2	27.9	28.2	17.0	3.7	100.0(323)	2.50
2020	34.3	23.6	27.3	12.5	2.3	100.0(609)	2.25
여자							
2019	39.3	25.9	22.9	10.0	2.0	100.0(201)	2.09
2020	38.3	23.9	23.6	12.4	1.8	100.0(716)	2.16

주: 평균은 '전혀 안한다(1점)-매우 많이 사용한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표 III-1-16〉은 영유아 자녀를 재울 때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3차년도에 비하여 4차년도에 전혀 안한다는 응답률이 34.2%에서 40.7%로 높아졌으며, 평균 점수도 2.26점에서 2.15점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16〉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 시 스마트폰 사용 정도\_자녀를 재울 때(2019, 2020)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안한다		↔		매우 많이 사용한다	계	평균
	①	②	③	④	⑤		
2019	34.2	26.9	21.8	12.8	4.4	100.0(524)	2.26
2020	40.7	23.2	19.2	14.0	2.9	100.0(1,325)	2.15
성별							
남자							
2019	33.1	24.5	22.3	15.8	4.3	100.0(323)	2.34
2020	38.6	24.6	20.2	14.1	2.5	100.0(609)	2.17
여자							
2019	35.8	30.8	20.9	8.0	4.5	100.0(201)	2.14
2020	42.5	21.9	18.4	13.8	3.4	100.0(716)	2.14

주: 평균은 '전혀 안한다(1점)-매우 많이 사용한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표 III-1-17〉은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추이를 분석한 표이다. 3차년도에 비해 4차년도에 근무시간은 8.80시간에서 6.69시간으로 줄어들었으며, 집에 머무는 시간(5.14시간 → 6.83시간)과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2.74시간 → 4.51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사용 만족도는 3차년도에 비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집에 머무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10% 이상 증가하였다.

〈표 III-1-17〉 영유아 부모의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2019, 2020)

단위: 시간, %(명)

구분	2019					2020				
	사용시간 평균	시간사용 만족도			계	사용시간 평균	시간사용 만족도			계
		너무 길다	적절 하다	부족 하다			너무 길다	적절 하다	부족 하다	
근무시간	8.80	48.7	48.1	3.2	100.0 (462)	6.69	39.4	49.0	11.6	100.0 (951)
집에 머무는 시간	5.14	4.8	34.5	60.7	100.0 (524)	6.83	13.4	41.3	45.4	100.0 (1,325)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2.74	3.2	24.8	71.9	100.0 (524)	4.51	8.6	34.8	56.6	100.0 (1,325)

## 2. 결혼 및 자녀 양육관에 대한 여론

### 가. 결혼 가치관

〈표 III-2-1〉은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추이를 나타낸다.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편이 좋다)은 1차년도 56.6%에서 3차년도 53.0% 3차년도 43.1%로 점점 감소하여 결혼 필요성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아졌다. 특히 남자에 비해 여자 응답자는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인식이 4차년도에 들어서며 급격하게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남자는 1차년도 29.6%, 3차년도 32.9%, 4차년도 38.7%였으나, 여자는 1차년 50.9%에서 3차년도 52.9%, 4차년도 62.5%로 증가하였다.

〈표 III-2-1〉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게 낫다	계
2017	13.6	43.0	40.1	3.2	100.0(3,000)
2019	12.4	40.6	42.7	4.2	100.0(3,000)
2020	7.0	36.1	50.6	6.3	100.0(3,091)
성별					
남자					
2017	19.8	48.0	29.6	2.6	100.0(1,522)
2019	17.3	47.4	32.9	2.4	100.0(1,522)
2020	11.1	45.9	38.7	4.3	100.0(1,543)
여자					
2017	7.2	37.9	50.9	3.9	100.0(1,478)
2019	7.4	33.7	52.9	6.0	100.0(1,478)
2020	2.8	26.3	62.5	8.4	100.0(1,548)

### 나. 결혼과 출산의 관계

〈표 III-2-2〉는 결혼시 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동의정도를 살펴본 결과 1차년도 2.00점, 3차년도 2.08점, 4차년도 2.17점으로 소폭이지만 동의도가 증가하였고,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1차년도 3.07점, 3차년도 3.00점, 4차년도 2.92점으로 동의도가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는 1차년도 2.59점, 3차년도 2.48점, 4차년도 2.46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III-2-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동의정도 추이(2017, 2019, 2020)

단위: 점, (명)

구분	2017	2019	2020	남자			여자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00	2.08	2.17	2.00	2.08	2.21	1.99	2.08	2.14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	3.07	3.00	2.92	3.14	3.07	2.96	3.00	2.92	2.89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	2.59	2.48	2.46	2.71	2.64	2.61	2.46	2.32	2.32
사례수	(3,000)	(3,000)	(3,901)	(1,522)	(1,522)	(1,543)	(1,478)	(1,478)	(1,548)

주: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다. 자녀에 대한 필요성

〈표 III-2-3〉은 자녀 존재의 필요성 여부 추이를 나타낸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1차년도 32.7%, 3차년도 31.9%, 4차년도 30.8%로 점점 감소하였고,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1차년도 19.2%, 3차년도 22.2%, 4차년도 23.5%로 점차 증가하여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감소하고 없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의 경우 1차년도에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8.3%,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 22.8% 보다 높았으나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각각 28.1%, 28.4%로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아졌다.

〈표 III-2-3〉 자녀존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방함	모르겠음	계
2017	32.7	45.6	19.2	2.5	100.0(3,000)
2019	31.9	42.7	22.2	3.2	100.0(3,000)
2020	30.8	42.7	23.5	3.0	100.0(3,091)
성별					
남자					
2017	36.9	45.5	15.7	1.9	100.0(1,522)
2019	37.5	43.6	16.6	2.4	100.0(1,522)
2020	35.2	43.9	18.6	2.3	100.0(1,543)
여자					
2017	28.3	45.8	22.8	3.0	100.0(1,478)
2019	26.2	41.7	28.1	4.1	100.0(1,478)
2020	26.5	41.5	28.4	3.7	100.0(1,548)

〈표 III-2-4〉는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를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1, 3, 4차년도 모두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4차년도에는 1, 3차년도에 비하여 응답률이 줄어들었다. 또한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어서

순으로 바뀌었다. 이는 1, 3차년도에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순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가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2-4〉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0	남자			여자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20.7	23.2	16.5	25.5	30.2	17.8	17.2	19.0	15.7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1.0	2.4	2.9	-	0.8	1.0	1.8	3.4	4.1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13.4	8.8	13.9	18.0	13.5	20.6	10.1	6.0	9.6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17.0	14.1	18.6	13.4	12.3	13.2	19.6	15.2	22.1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1.7	3.0	2.8	1.3	2.0	3.8	2.1	3.6	2.1
배우자가 아이를 싫어해서	0.2	0.1	0.6	-	0.0	1.0	0.3	0.2	0.2
유전병 등 질환 때문에	1.0	0.4	1.4	1.3	0.8	1.4	0.9	0.2	1.4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많이 되어서	12.3	12.1	12.4	14.2	11.9	15.0	11.0	12.3	10.7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불임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0.9	1.3	2.5	-	1.6	3.8	1.5	1.2	1.6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26.4	29.2	24.2	21.3	23.0	18.5	30.0	33.0	28.0
기타	5.4	5.1	4.3	5.0	4.0	3.8	5.6	5.8	4.6
계	100.0 (576)	100.0 (667)	100.0 (726)	100.0 (239)	100.0 (252)	100.0 (287)	100.0 (337)	100.0 (415)	100.0 (439)

## 라. 양육 태도

〈표 III-2-5〉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태도에 대한 동의정도를 추이분석한 것이다.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는 인식이 1차년도 3.06점부터 3차년도 3.00점, 4차년도 2.98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자녀가 잘못된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하여서도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소폭이지만 동의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대해서는 1차년도 2.37점, 3차년도 2.45점 4차년도 2.60점으로 동의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2-5〉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정도 추이(2017, 2019, 2020)

단위: 점, 명

구분	2017	2019	2020	남자			여자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3.06	3.00	2.98	3.05	2.99	2.96	3.07	3.02	3.01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빠르게 키울 수 있다	2.56	2.49	2.46	2.64	2.58	2.53	2.48	2.40	2.38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2.82	2.66	2.57	2.85	2.73	2.62	2.78	2.60	2.53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스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해야 한다	3.15	3.09	3.02	3.16	3.09	3.04	3.14	3.08	3.01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4	2.53	2.49	2.61	2.61	2.55	2.47	2.44	2.42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37	2.45	2.60	2.32	2.39	2.56	2.42	2.50	2.64
사례수	3,000	3,000	3,091	1,522	1,522	1,543	1,478	1,478	1,548

주: 점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마.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1, 3차년도에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이 가장 어렵다고 인식했던 것에 비하여 4차년도에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어렵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자녀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우려와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에, 배우자의 무관심이나 부재에 대한 어려움이 4차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여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표 III-2-6〉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1순위)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0	남자			여자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32.5	37.8	22.8	30.2	34.5	23.5	34.8	41.1	22.1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31.9	28.7	24.6	36.2	33.2	26.4	27.5	24.1	22.9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7.3	6.7	7.4	8.5	8.5	8.3	6.2	4.9	6.5

구분	2017	2019	2020	남자			여자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6.1	4.9	4.0	6.8	6.3	4.9	5.3	3.4	3.1
자녀의 심리적 안정	10.3	12.1	12.1	9.3	10.3	10.3	11.4	14.0	13.8
자녀의 신체적 건강	3.1	2.2	8.6	3.6	2.6	10.2	2.6	1.8	7.0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5.5	5.1	15.1	3.8	3.4	12.6	7.2	6.8	17.6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3.0	2.3	5.3	1.3	1.0	3.6	4.7	3.6	6.9
기타	0.2	0.3	0.1	0.3	0.3	0.2	0.2	0.3	0.2
계	100.0 (3,000)	100.0 (3,000)	100.0 (3,091)	100.0 (1,522)	100.0 (1,522)	100.0 (1,543)	100.0 (1,478)	100.0 (1,478)	100.0 (1,548)

### 바. 자녀 교육관

〈표 III-2-7〉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한 인식 추이를 나타낸다. 1, 3, 4차년도 모두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자녀교육의 성공이라고 꼽았으나 4차년도에는 그 비중이 소폭 감소하고, 대신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자녀교육 성공이라는 인식은 1차년도에 비해 3, 4차년도에 모두 증가하였으며, 반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1차년도에 비해 3, 4차년도 모두 줄어들었다.

〈표 III-2-7〉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0
자녀가 명문대학에 진학	6.1	7.0	5.7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	26.8	25.2	28.1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	12.7	12.1	10.0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남	2.1	1.7	2.3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살	14.9	15.8	17.7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음	32.6	32.8	29.3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4.5	4.9	6.5
기타	0.3	0.5	0.2
계	100.0(3,000)	100.0(3,000)	100.0(3,091)

〈표 III-2-8〉은 자녀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는 가르는 것과 열정에 따라 살도록 기르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녀로 기르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1+2)이 1차년도 32.4%, 3차년도는 40.4%, 4차년도 47.6%로 점점 증가하였으며 열정에 따라 사는 자녀로 기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4+5)은 1차년도 34.1%, 3차년도 35.2%, 4차년도 27.3%로 3차년도 소폭 상승하였지만 4차년도에 급격하게 떨어졌다.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1차년도 3.00점에서 3차년도 2.89점, 4차년도 2.62점으로 점점 자녀의 미래에 대하여 열정에 따른 삶보다 경제적 안정이 있는 삶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자녀의 미래에 대한 선호도 추이(2017, 2019, 2020)-경제적 안정 vs 열정에 따른 삶  
단위: %(명), 점

구분	경제적 안정		⇔		열정에 따른 삶		계	평균
	1	2	3	4	5			
2017	10.4	22.0	33.6	25.3	8.8	100.0(3,000)	3.00	
2019	13.9	26.5	24.4	26.7	8.5	100.0(3,000)	2.89	
2020	25.1	22.5	25.1	19.4	7.9	100.0(3,091)	2.62	
성별								
남자								
2017	9.8	21.0	31.2	27.9	10.1	100.0(1,522)	3.07	
2019	12.7	24.9	22.6	31.0	8.8	100.0(1,522)	2.98	
2020	22.0	23.8	24.2	22.3	7.6	100.0(1,543)	2.70	
여자								
2017	11.0	23.0	36.1	22.6	7.4	100.0(1,478)	2.92	
2019	15.2	28.2	26.3	22.2	8.1	100.0(1,478)	2.80	
2020	28.2	21.3	25.9	16.6	8.1	100.0(1,548)	2.55	

주: 평균은 경제적 안정에 동의할 경우(1점)-열정에 따른 삶에 동의할 경우(5점)으로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낮을수록 열정에 따른 삶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선호함.

〈표 III-2-9〉는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와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부모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차년도에는 친구 같은 부모(1+2)라는 응답이 1차년도 69.4%, 3차년도는 76.4% 4차년도 74.2%였으며,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부모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4+5)은 1차년도

5.3%, 3차년도 4.8% 4차년도 6.9%로 나타나, 친구같은 부모로서의 역할 선호도가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9〉 부모역할 선호도 추이(2017, 2019, 2020)-친구같은 부모 vs 권위 있는 부모

단위: %(명), 점

구분	친구		⇔		권위		계	평균
	1	2	3	4	5			
2017	28.1	41.3	25.3	4.2	1.1	100.0(3,000)	2.09	
2019	35.1	41.3	18.8	3.7	1.1	100.0(3,000)	1.94	
2020	40.3	33.9	18.9	5.8	1.1	100.0(3,091)	1.94	
성별								
남자								
2017	23.8	40.5	29.6	4.9	1.2	100.0(1,522)	2.19	
2019	28.1	43.4	22.2	4.9	1.4	100.0(1,522)	2.08	
2020	33.4	36.8	21.3	7.3	1.2	100.0(1,543)	2.06	
여자								
2017	32.5	42.1	20.9	3.5	1.0	100.0(1,478)	1.99	
2019	42.4	39.1	15.2	2.5	0.8	100.0(1,478)	1.80	
2020	47.2	31.1	16.4	4.3	1.0	100.0(1,548)	1.81	

주: 평균은 친구같은 부모에 동의할 경우(1점)~권위 있는 부모에 동의할 경우(5점)으로 산출한 결과로 점수가 낮을수록 권위 있는 부모보다는 친구같은 부모를 선호함.

자녀의 적정 교육수준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살펴보면, 3차년도에는 4년제 대졸 55.1%, 상관없다 24.6% 석사 8.0%, 박사 5.0%, 고졸 3.7%, 전문대졸 3.6% 순이었고 4차년도에는 비슷한 양상이었지만 석사가 8.5%, 박사가 5.6%, 전문대졸이 4.5%로 소폭 상승하였고, 4년제 대졸 54.4%, 상관없다 24.1%, 고졸 2.9%를 적정 교육수준으로 보는 인식은 약간 줄어들었다.

〈표 III-2-10〉 자녀의 최종학력에 대한 희망(2019, 2020)

단위: %(명)

구분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석사학위 취득	박사학위 취득	상관없다	계
2019	3.7	3.6	55.1	8.0	5.0	24.6	(3,000)
2020	2.9	4.5	54.4	8.5	5.6	24.1	(3,091)
성별							
남자							
2019	3.0	3.2	54.7	8.1	4.5	26.5	(1,522)
2020	3.2	4.1	53.7	8.4	6.1	24.5	(1,543)
여자							
2019	4.5	4.0	55.6	7.8	5.5	22.7	(1,478)
2020	2.5	4.8	55.0	8.7	5.1	23.8	(1,548)

### 3. 육아행복감에 대한 여론

#### 가. 육아행복감 및 가치

〈표 III-3-1〉은 부모로서 자녀 양육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1, 3차년도에는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이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라는 응답이 각 40.1%, 38.0%로 가장 높았으나 4차년도에는 32.3%로 다소 감소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가 33.5%로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 돌봄과 지도,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가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응답도 꾸준히 늘고 있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3-1〉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에 대한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0	남자			여자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40.1	38.0	32.3	41.5	42.1	36.8	38.6	33.7	27.8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30.3	29.7	33.5	32.7	30.6	32.8	27.9	28.8	34.1
자녀 돌봄과 지도	1.9	2.1	3.5	3.0	3.2	5.4	0.9	1.1	1.6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27.6	30.1	30.5	22.7	24.1	25.0	32.6	36.3	36.0
기타	0.1	0.1	0.2	0.1	0.1	-	0.1	0.1	0.4
계	100.0 (3,000)	100.0 (3,000)	100.0 (3,091)	100.0 (1,522)	100.0 (1,522)	100.0 (1,543)	100.0 (1,478)	100.0 (1,478)	100.0 (1,548)

자녀 양육에 대한 4가지 문항에 대한 조사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먼저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1차년도에는 3.16점, 3차년도에는 3.14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4차년도에는 3.24점으로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도를 나타내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1차년도 2.97점에 비하여 3차년도 3.03점, 4차년도 3.08점으로 점차 동의도가 높아졌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다'는 문항에서는 1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4차년도에 다시 하락하였으나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3-2〉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단위: 점, (명)

구분	2017	2019	2020	남자			여자		
				2017	2019	2020	2017	2019	2020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3.16	3.14	3.24	3.20	3.17	3.26	3.12	3.10	3.22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2.97	3.03	3.08	2.83	2.90	2.94	3.12	3.17	3.22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2.75	2.79	2.76	2.63	2.69	2.64	2.88	2.90	2.88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3.07	3.09	3.06	2.98	3.00	2.98	3.16	3.17	3.14
계	(3,000)	(3,000)	(3,091)	(1,522)	(1,522)	(1,543)	(1,478)	(1,478)	(1,548)

주: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전적으로 동의함(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나. 양육의 책임

〈표 III-3-3〉은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 3, 4차년도 모두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고, 대신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한다,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도가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3〉 영유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0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7.6	8.0	8.9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76.1	77.0	72.2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14.6	13.0	15.9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1.5	1.6	2.8
기타	0.2	0.3	0.2
계	100.0(3,000)	100.0(3,000)	100.0(3,091)

〈표 III-3-4〉는 자녀 양육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차년도 조사에서는 영아기 28.9%, 유아기 26.9%, 고등학생 12.6%, 중학생 11.3%, 초등저학년 6.8%, 초등고학년 4.0% 임신기 1.2% 순으로 나타났으나 4차년도 조사에서는 영아기 35.7%, 유아기 27.0%, 초등저학년 8.9%, 고등학생 8.7%, 중학생 7.1%, 초등고학년 3.9% 임신기 0.9% 순으로 나타나 영아기와 초등저학년 시기가 자녀 양육이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표 III-3-4〉 자녀 양육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인식 추이(2019, 2020)

단위: %(명)

구분	임신기	영아 (0~2세)	유아 (3~5세)	초등 저학년 (1~3학년)	초등 고학년 (4~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모르겠음	계
2019	1.2	28.9	26.9	6.8	4.0	11.3	12.6	8.3	(3,000)
2020	0.9	35.7	27.0	8.9	3.9	7.1	8.7	7.7	(3,091)
성별									
남자									
2019	1.2	27.8	28.9	6.4	3.7	9.3	15.2	7.3	(1,522)
2020	0.8	34.8	26.5	9.7	4.3	7.1	9.5	7.3	(1,543)
여자									
2019	1.1	30.0	24.8	7.2	4.3	13.4	9.8	9.3	(1,478)
2020	1.0	36.6	27.5	8.1	3.6	7.2	7.8	8.2	(1,548)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 추이를 살펴보면, 3차년도 조사에서는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이 55.8%, 반대가 21.9%로 나타났으나 4차년도에는 찬성 53.8%, 반대 22.9%로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이 아직 높으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의 응답에서 3차년도 찬성 55.6%에 비해 4차년도 찬성이라는 응답이 52.5%로 하락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I-3-5〉 노키즈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음	계
2019	55.8	21.9	22.3	100.0(3,000)
2020	53.8	22.9	23.3	100.0(3,091)
성별				
남자				
2019	55.9	23.5	20.6	100.0(1,522)
2020	55.2	23.0	21.8	100.0(1,543)
여자				
2019	55.6	20.2	24.2	100.0(1,478)
2020	52.5	22.9	24.7	100.0(1,548)

## 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 가.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

〈표 III-4-1〉은 국가 차원에서 육아정책 설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1차년도에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아이의 행복 순으로 응답하였고 2차년도에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행복 순으로 바뀌었다. 3차년도에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이 공동으로 1순위로 응답하였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아이의 행복 순이었고 4차년도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부모의 일·가정 양립,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아이의 행복 순으로 응답하여 매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은 다르지만, 대체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정부의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4-1〉 국가 차원 육아정책 설계 시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부모의 일·가정 양립	31.2	26.5	36.4	31.3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23.2	34.2	22.1	18.2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39.7	27.4	36.4	43.5

구분	2017	2018	2019	2020
아이의 행복	5.8	11.4	5.0	6.5
기타	0.1	0.5	0.1	0.5
계	100.0(3,000)	100.0(3,000)	100.0(3,000)	100.0(3,091)

〈표 III-4-2〉는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순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다.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국가 개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나 4차년도에는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을 우선 순위로 꼽아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III-4-2〉 정부의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설계 시 우선 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48.8	51.0	50.1	37.0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42.1	39.1	40.0	51.0
모르겠음	7.8	8.5	8.1	9.5
기타	1.4	1.4	1.8	2.5
계	100.0(3,000)	100.0(3,000)	100.0(3,000)	100.0(3089)

## 나. 아동학대 관련 의견

〈표 III-4-3〉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추이분석결과이다. 1, 3, 4차년도 모두 영유아 학대 시 처벌 확대를 우선순위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은 계속 증가해왔다. 다음으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1차년도와 3차년도에 비해 4차년도에는 비중이 조금 낮아졌으며, 대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등에 응답률이 높아져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 III-4-3〉 아동학대 관련 정부가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0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19.4	18.9	13.3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12.1	13.5	15.1

구분	2017	2019	202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4.8	4.7	5.4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25.8	28.2	28.5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7.1	7.8	5.9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17.5	14.2	16.2
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3.8	4.4	8.2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9.3	7.5	6.8
기타	0.2	0.8	0.7
계	100.0(3,000)	100.0(3,000)	100.0(3,091)

### 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 의견

〈표 III-4-4〉는 영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다. 1차, 3차, 4차년도 모두 다른 아이들이 하나까 뒤쳐질까봐에 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하원 후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계속 높아졌으며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역시 높아져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4-4〉 영유아 사교육 이유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9	2020
자녀가 원해서	1.6	2.1	2.5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1.0	9.4	10.3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32.0	30.9	26.0
다른 아이들이 하나까 뒤쳐질까봐	39.4	40.1	31.6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3.2	3.4	4.8
어린이집·유치원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3.5	3.1	8.2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9.0	10.1	16.2
기타	0.3	0.9	0.4
계	100.0(3,000)	100.0(3,000)	100.0(3,091)

〈표 III-4-5〉는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될지에 대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차년도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79.2%, 3차년도에는 86.1%로 증가하였으



나 4차년도에는 85.1%로 소폭 하락하여 사교육이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사교육 과열 현상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계
2017	79.2	7.1	13.7	100.0(3,000)
2019	86.1	3.9	10.1	100.0(3,000)
2020	85.1	6.9	8.0	100.0(3,091)

## 라. 세금 추가 부담 의사

〈표 III-4-6〉은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이다. 2차년도에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3, 4차년도에 계속 증가하여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4-6〉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추이(2017~2020)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2017	32.3	39.3	28.4	100.0(3,000)
2018	29.7	46.2	24.1	100.0(3,000)
2019	32.6	44.2	23.2	100.0(3,000)
2020	35.8	42.6	21.6	100.0(3,091)

〈표 III-4-7〉는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이다. 1차년도에서 3차년도까지는 먼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에 대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4차년도에는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33.1%로 가장 높은 이유로 꼽혔다. 반면 세금이 적절한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1차년도 26.9%에서 4차년도 21.7%로 매년 감소하였다.

〈표 III-4-7〉 세금 추가 부담의사가 없는 이유 추이(2017~2020)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26.9	28.5	25.6	21.7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11.8	10.0	12.4	12.9
먼저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38.1	35.3	37.3	26.7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15.1	18.3	17.1	33.1
다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6.0	5.4	3.5	4.0
기타	2.1	2.5	4.1	1.5
계	100.0(1,179)	100.0(1,386)	100.0(1,327)	100.0(1,316)

### 마. 육아지원 정책 희망에 대한 의견

〈표 III-4-8〉은 정부가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 3차년도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각 33.6%, 38.5%로 가장 높았으나 4차년도 조사에서는 비용 지원이 3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2차년도 조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이었던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25.4%)은 3차년도에는 19.1%, 4차년도에는 13.8%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표 III-4-8〉 정부의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추이(1순위)(2018~2020)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남자			여자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33.6	38.5	21.5	29.4	32.6	17.8	38.0	44.6	25.1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3.5	4.6	3.0	3.3	4.1	2.9	3.7	5.2	3.1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25.4	19.1	13.8	28.8	21.8	16.6	21.8	16.2	11.1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18.2	22.2	34.4	21.7	26.4	33.0	14.5	17.9	35.8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연장	3.7	5.0	7.5	2.8	4.6	8.7	4.5	5.4	6.3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5.6	4.1	7.8	4.8	4.2	8.8	6.4	4.0	6.9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 교통안전 등)	7.8	5.0	7.3	7.1	5.0	7.2	8.4	5.1	7.4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0.9	0.7	3.9	0.7	0.6	4.3	1.1	0.7	3.6
기타	1.2	0.8	0.7	1.0	0.7	0.8	1.4	0.8	0.7
계	100.0 (2,765)	100.0 (2,732)	100.0 (2,704)	100.0 (1,414)	100.0 (1,390)	100.0 (1,338)	100.0 (1,351)	100.0 (1,342)	100.0 (1,336)

## 바. 비용지원 정책

〈표 III-4-9〉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대한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차년도에는 바람직한 편(약간 바람직+매우 바람직)이 49.9%, 2차년도 50.4%, 3차년도에는 42.1%, 4차년도 61.8%로 3차년도에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인식(약간 바람직+매우 바람직)이 1차년도에는 47.4%, 2차년도 47.2%, 3차년도 39.8%, 4차년도 57.8%로 1, 2차년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차년도에는 하락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다시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표 III-4-9〉 보육료·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20)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	보통	약간 바람직	매우 바람직	계	평균
2017	7.0	17.3	25.8	32.6	17.3	100.0(3,000)	3.36
2018	6.5	18.3	24.7	34.5	15.9	100.0(3,000)	3.35
2019	7.6	21.1	29.2	30.1	12.0	100.0(3,000)	3.18
2020	3.3	9.4	25.5	39.3	22.5	100.0(3,091)	3.68

주: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1점)~매우 바람직(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표 III-4-10〉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20)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음	보통	약간 바람직	매우 바람직	계	평균
2017	8.1	17.5	26.9	30.1	17.3	100.0(3,000)	3.31
2018	8.3	19.8	24.6	31.1	16.1	100.0(3,000)	3.27
2019	8.8	22.5	28.8	28.0	11.8	100.0(3,000)	3.12
2020	3.4	10.4	28.4	37.4	20.4	100.0(3,091)	3.61

주: 평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1점)~매우 바람직(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사.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표 III-4-11〉은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영향을 미침(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에 대해서 1차년도에는 38.8%, 3차년도에는 41.2%로 다소 높아졌다가 4차년도에는 33.6%로 다시 줄어들어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1〉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의 출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계	평균
2017	6.7	28.3	26.2	33.3	5.5	100.0(3,000)	3.03
2019	7.2	28.9	22.8	32.0	9.2	100.0(3,000)	3.07
2020	8.5	28.2	29.6	27.6	6.0	100.0(3,091)	3.05

주: 평균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1점)~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아. 안전한 사회

〈표 III-4-12〉는 우리 사회가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사회인지에 대한 인식추이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1차년도에는 그런편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20.4%, 2차년도에는 15.5%, 3차년도 24.4%, 4차년도 27.1%로 아직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는 작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I-4-12〉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추이(2017~2020)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2017	7.1	32.7	39.7	18.6	1.8	100.0(3,000)	2.75
2018	11.0	36.0	37.5	14.1	1.4	100.0(3,000)	2.59
2019	7.0	28.9	39.7	21.9	2.5	100.0(3,000)	2.84
2020	6.5	25.6	40.8	24.7	2.4	100.0(3,091)	2.91

주: 평균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자. 전반적 만족도

〈표 III-4-13〉은 영유아 육아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이다. 잘하고 있다(약간 잘하고 있음+매우 잘하고 있음)는 응답은 1차년도에는 17.7%, 3차년도에는 27.3%, 4차년도 30.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여론의 인식이 점차 늘고 있다. 한편,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하고 있음+약간 잘못하고 있음)는 응답은 1차년도 27.1%, 3차년도 23.2%, 4차년도 17.0%로 매 조사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다.

〈표 III-4-13〉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 추이(2017, 2019, 2020)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잘못하고 있음	약간 잘못하고 있음	보통임	약간 잘하고 있음	매우 잘하고 있음	계	평균
2017	2.6	24.5	55.2	13.5	4.2	100.0(3,000)	3.08
2019	6.7	16.5	49.5	23.7	3.6	100.0(3,000)	3.01
2020	4.5	12.5	53.0	25.3	4.8	100.0(3,091)	3.13

주: 평균은 '매우 잘못하고 있음(1점)~매우 잘하고 있음(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5. 소결

2017년부터 3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최근의 역동적인 사회 변화로 인하여서 추이분석이 다음과 같은 주요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 있다.

첫째, 자녀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 꾸준히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초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뜨거운 주제였고, 다양한 정책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왔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을 드러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있어서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한 결혼 및 출산의 기피는 저출산의 문제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것임을 알게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난 여파가 양육의 어려움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꾸준히 부모가 우선이고 국가가 지원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갈수록 그 외의 의견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늘어가고 있는 점은 유의할만하다. 전반적인 양육의 지형의 변화를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넷째,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갈수록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다. 오랫동안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을 화두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의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정책수요자가 무력감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올해 특히 정부의 비용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 코로나 대응 비용지원 정책을 경험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한다. 올해 큰 폭으로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부분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추세의 변화인지는 추후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꾸준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 수시 여론조사

- 01 수시 여론조사의 배경
- 02 수시 여론조사의 목적
- 03 1~2차 수시 여론조사의 결과
- 04 1차 수시 여론조사와 미국 조사의 주요 결과 비교
- 05 소결



## IV. 수시 여론조사<sup>1)</sup>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그리고 가정 내 육아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에 대응한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수차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최윤경 외, 2020).

### 1. 수시 여론조사의 배경<sup>2)</sup>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 그리고 가정 내 육아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대응 정책을 제안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휴원과 방역강화를 위한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긴급돌봄과 가정돌봄과 함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하였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유치원 휴원 지침을 전달하였다. 여성가족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 가. 보건복지부

##### 1) 어린이집 예방수칙(2020. 1. 28.)

2019년말 중국발 판데믹의 소식이 2020년이 시작되며 언제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 28일

---

1) 여론조사 문항은 부록 1 참고

2) 본 절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전국 어린이집이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를 강조하고,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오거나 어린이집 원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한 방문을 삼가 하도록 하는 방역수칙 및 대응요령을 전파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1. 28).

### 2)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대응책(2020. 2. 3. ~ 2020. 2. 28.)

확진자가 수가 빠르게 늘어나자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휴원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고, 휴원 시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어린이집의 방역 상황 및 휴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2. 18).

또한 보건복지부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개인이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통하여 어린이집에 방역물품 지원하여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2. 18).

### 3) 전국 어린이집 휴원 및 긴급보육(2020. 2. 27. ~ 2020. 4. 5.)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어린이집을 2020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모두 휴원하게 하되, 긴급보육을 실시하여 부득이한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자 이후 휴원 기간은 3월 22일, 그리고 4월 5일까지로 연속적으로 연장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3. 17).

그러나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며 초기 긴급보육 이용률이 10.0% 수준에 머물던 것이 3월 9일 17.5%이던 것을 거쳐 3월 16일에는 23.2%, 3월 30일에는 31.5%에 달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3. 31).

### 4) 방역물품 지원 및 지자체의 어린이집 방역 관리(2020. 4. 20)

코로나 확산세가 지역별로 상이해짐에 따라 중앙 지침에 따라 방역관리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지역별로 관리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어린이집의 방역 관리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점검표를 제출하되 전체의 10%는 지자체에서 직접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4. 22).

또한 방역물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에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긴급 지원하고, 비축용 마스크, 체온계 등을 지원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결석 시 보육일수가 부족하더라도 보육료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육아동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관보육료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4. 22).

#### 5) 전국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2020. 6. 1.)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유지되어오던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을 6월 1일부로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의 개원·휴원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수도권 등의 지자체는 휴원 조치를 계속 이어갔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5. 29).

#### 6) 아동돌봄쿠폰 지급(2020. 4. 13.)

보건복지부는 약 9,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동 약 230만 명을 기준으로 4월 13일 신용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돌봄포인트’를 전액 국비로 지급하였다(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4. 13). 돌봄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지역(아동 수 기준 5.3%)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돌봄쿠폰’이 지급되었다(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4. 13).

### 나. 교육부

#### 1) 유치원 예방수칙(2020. 1. 28.)

질병관리본부가 2020년 1월 27일(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육부는 1월 20일(월)부터 운영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단장: 교육부 차관)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에 대응지침을 전파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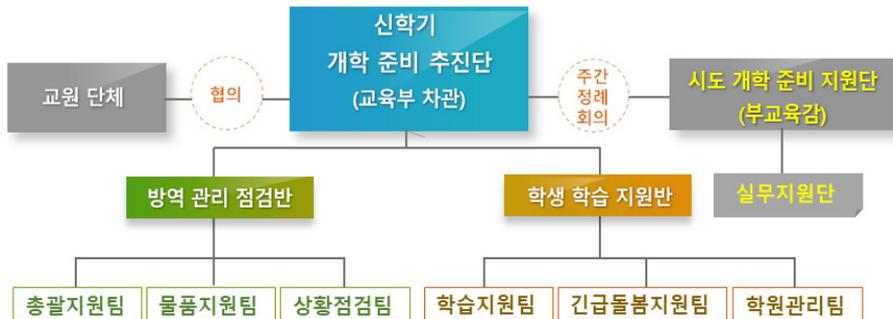
한편 3월 21일(토)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24a).

## 2) 유치원 개학 지연 및 긴급돌봄 ( ~ 2020. 5. 20.)

급속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며 2주 간격의 개학 연기가 거듭 이루어지다 초중등은 4월 초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으나 유치원은 온라인 개학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방과후과정 대상자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하다, 지역별로 추가 신청자에 한하여 긴급돌봄을 확대하는 등 긴급돌봄 이용률이 높아져갔다.

교육부는 거듭된 개학 지연과 코로나19 확산세에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17a).

[그림 IV-1-1]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구성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17a, p3 그림

교육부는 긴급돌봄 운영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고, 유치원에서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개학 준비를 하였다(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 2. 28). 그러나 거듭된 개학 연기에 따라 유치원 휴원이 장기화되자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수차례 진행하여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일상 소독

·방역, 돌봄공간에 방역물품을 우선적 배치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12).

한편 유치원별로 돌봄수요 여건에 따라 방역관리 인력 등을 배치하여 교직원의 업무부담을 완화시키고, 돌봄수요가 많은 경우 추가 돌봄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12).

### 3) 예산 지원(2020. 2. 27. ~ 2020. 4. 5.)

교육부는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49억 원을 활용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시설소독약품, 의료용 장갑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2. 7). 교육부는 또한 추가경정예산 2,872억원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과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17b). 특히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 320억원은 개학 연기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하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17b). 또한 학부모 지원 뿐 아니라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나 사립 유치원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24b).

## 다. 여성가족부

### 1) 아이돌봄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하여 1:1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아이돌보미에 ‘감염병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을 제공하고 관련 지침을 전달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1. 30). 어린이집·유치원의 휴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한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이용 가정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1. 30).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위한 방역용품을 안정적으로 제공, 지원하도록 하였다(부처통합 보도자료. 2020. 2. 28).

## 2) 긴급돌봄 대응

교육부의 개학연기가 지속되며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역시 확대하였다. 특히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 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하였다(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 2. 28).

한편 전국 68개(3.20.기준) 공동육아나눔터를 긴급 돌봄 시설로 일시 전환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한 유아와 초등학교 자녀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되, 아동들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소 당 10인 이내로 제한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3. 24).

## 3) 기타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족 문제에 대한 전화를 통한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를 5월 18일(월)부터 운영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5. 15). 상담원은 상황별 대처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기도 하고, 정부의 관련 서비스 정보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며,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219개소의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상담을 연계하도록 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5. 15).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노동, 돌봄, 젠더폭력 분야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6. 10).

## 2. 수시 여론조사의 목적

수시 여론조사는 감염병 그 자체에 대한 기관의 대응과 돌봄 공백에 대한 기존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이어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육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 대한 실태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의 협력기관인 NIEER와 공통문항을 구성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첫째, COVID-19 감염병 기간 동안 영유아가 가정에서의 양육 및 학습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COVID-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던 영유아가 실제 기관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COVID-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원 자제 및 금지 조치가 있었으며,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떠한 원격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 3. 1~2차 수시 여론조사의 결과

수시 여론조사는 2020년 6월과 11월 모두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767명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중 67.5%인 총 518명이 2차 설문에 참여하여 최종적인 설문의 분석은 1차와 2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518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자녀와의 지난 한 주간의 책읽기 활동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1차에는 평균 6.69회라고 응답하였으나 2차에는 이보다 조금 상승한 7.38회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특이한 점은 부모들이 유아(5.71회)보다는 영아(10.85회)에게 더 많이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26.040$ ,  $p<.001$ ). 그러나 영아부모의 경우 여전히 유아부모에 비하여 더 자주 책을 읽어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1차 조사 시보다는 2차 조사 시에 책을 읽어준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도 한 주간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847$ ,  $p<.05$ ) 사후검증에 따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표 IV-3-1〉 지난 한 주간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 횟수

단위: 명, 회

구분	사례수	인쇄된 책읽기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전체	518	6.69	7.38				
자녀 연령							
영아	133	12.18	9.52	26.040 ***	5.012*	4.973*	-
유아	385	5.72	5.71				
자녀 수							
자녀1명	297	8.48	6.97	2.354	.014	1.729	-
자녀2명	185	6.31	6.64				
자녀3명 이상	36	3.72	4.64				
성별							
남성	236	7.60	6.11	.126	2.063	1.967	-
여성	282	7.19	7.17				
연령							
20대	12	12.58	7.50	1.062	3.142	.901	-
30대	367	7.49	7.02				
40대 이상	139	6.64	5.76				
지역							
수도권	317	8.06	7.85	2.847*	1.940	.729	-
충청권	51	7.90	5.41				
호남권	33	3.64	3.61				
영남권	117	6.34	4.96				

\*  $p < .05$ , \*\*\*  $p < .001$ .

한편 연구진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한 주간 이야기 들려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글자나 숫자 가르치기, 미술 및 공작활동을 하였는가 물었다. 먼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1회 이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답한 부모가 영아의 경우 1차에 비하여 2차 조사에서 86.47에서 90.23%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미미하지만 89.62%에서 87.8%로 조금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야기 들려주기, 노래부르기가 더 활동이 많았고, 숫자나 글자를 가르치기, 미술 및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활동이 더 적었다. 특이한 점은 숫자나 글 가르치기와 미술 및 만들기에 있어서 1, 2차 조사 시 꾸준했던 유아부모와 달리 영아 부모의 경우 공히 1차 조사에 비하여 2차 조사에서 활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3-2〉 자녀 연령별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단위: %, 명

구분		1차			2차			합계			수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이야기 들려주기	영아	13.53	30.08	56.39	9.77	35.34	54.89	11.9	33.3	54.8	133
	유아	10.39	44.94	44.68	12.21	43.12	44.68	11.2	43.9	44.9	385
함께 노래 부르기	영아	12.03	23.31	64.66	17.29	18.80	63.91	14.8	21.9	63.3	133
	유아	9.35	44.16	46.49	8.83	47.27	43.90	9.0	45.6	45.4	385
숫자나 글 가르치기	영아	32.33	35.34	32.33	44.36	28.57	27.07	39.6	31.9	28.5	133
	유아	9.87	40.52	49.61	11.17	43.64	45.19	9.9	42.2	47.9	385
미술 및 만들기	영아	34.59	36.09	29.32	45.86	33.08	21.05	41.5	34.8	23.7	133
	유아	15.84	58.18	25.97	16.10	57.92	25.97	15.4	58.1	26.5	385

다음으로 연구진은 자녀의 수에 따라 영유아 부모가 한 주간 이야기 들려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글자나 숫자 가르치기, 미술 및 공작활동의 실태와 1, 2차 조사 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 이야기 들려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줄었으나 노래부르기, 숫자나 글자 가르치기, 미술 및 만들기는 늘어나 자녀가 1명인 경우 이야기 들려주기를 한번 이상 한 경우가 늘어난 반면 다른 활동은 1회 이상 활동한 경우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자녀가 2명이나 그 이상 있는 경우는 이야기 들려주기 활동은 조금 줄어든 반면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숫자나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증가하여, 보다 다양한 활동이 가정에서 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3〉 자녀 수에 따른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단위: %, 명

구분		1차			2차			합계			수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이야기 들려주기	1명	10.10	35.69	54.21	7.74	40.40	51.85	9.0	37.8	53.2	289
	2명	12.43	45.95	41.62	16.22	43.24	40.54	14.0	44.4	41.6	193
	3명이상	13.89	61.11	25.00	19.44	36.11	44.44	16.7	50.0	33.3	36
함께 노래 부르기	1명	7.41	32.32	60.27	11.11	34.34	54.55	9.0	33.9	57.2	289
	2명	14.05	45.95	40.00	11.89	44.86	43.24	13.2	44.2	42.6	193
	3명이상	11.11	55.56	33.33	5.56	61.11	33.33	8.3	58.3	33.3	36
숫자나 글 가르치기	1명	17.85	39.39	42.76	24.24	35.35	40.40	21.4	36.6	42.0	289
	2명	11.35	40.54	48.11	12.97	44.86	42.16	11.9	43.9	44.2	193
	3명이상	19.44	30.56	50.00	16.67	50.00	33.33	18.1	38.9	43.1	36

구분	1차			2차			합계			수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미술 및 만들기	1명	24.24	47.47	28.28	27.61	46.80	25.59	25.7	47.5	26.8	289
	2명	15.68	58.38	25.95	18.92	57.84	23.24	17.9	57.4	24.7	193
	3명이상	16.67	63.89	19.44	16.67	58.33	25.00	16.7	59.7	23.6	36

응답자의 성별 비교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 지난 한 주간 이야기 들려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글자나 숫자 가르치기, 미술 및 공작활동을 1회 이상 참여한 경우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V-3-4〉 응답자 성별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단위: %, 명

구분	1차			2차			합계			수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이야기 들려주기	남성	11.44	47.03	41.53	10.59	41.53	47.88	11.0	44.4	44.6	237
	여성	10.99	36.17	52.84	12.41	40.78	46.81	11.7	38.4	49.9	281
함께 노래 부르기	남성	13.14	43.22	43.64	12.29	44.07	43.64	12.7	43.8	43.6	237
	여성	7.45	35.11	57.45	9.93	36.52	53.55	8.7	35.7	55.6	281
숫자나 글 가르치기	남성	13.14	44.49	42.37	17.37	42.80	39.83	15.2	43.8	41.0	237
	여성	17.73	34.75	47.52	21.63	37.23	41.13	19.7	35.9	44.4	281
미술 및 만들기	남성	19.49	52.54	27.97	20.76	52.54	26.69	20.1	52.4	27.5	237
	여성	21.63	52.48	25.89	26.24	50.71	23.05	24.0	51.7	24.3	281

응답자의 연령별 비교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 지난 한 주간 이야기 들려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글자나 숫자 가르치기, 미술 및 공작활동에 대하여 20대 부모는 표본이 작아 비교가 어려웠다. 30대 부모와 40대 이상을 비교해보면 이야기 들려주기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함께 노래 부르기, 글자나 숫자 가르치기, 미술 및 공작활동에 대하여 30대 부모는 1회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늘었으나 40대 이상 부모는 줄어들어 40대 이상 부모의 자녀가 전반적으로 다양한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 IV-3-5〉 응답자 연령에 따른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단위: %, 명

구분		1차			2차			합계			수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이야기 들려주기	20대	8.33	25.00	66.67	0.00	50.00	50.00	4.2	37.5	58.3	12
	30대	10.35	39.78	49.86	10.90	40.60	48.50	10.6	40.2	49.2	367
	40대이상	13.67	46.04	40.29	14.39	41.73	43.88	14.0	43.9	42.1	139
함께 노래 부르기	20대	0.00	16.67	83.33	8.33	25.00	66.67	4.2	20.8	75.0	12
	30대	8.45	38.96	52.59	10.90	38.69	50.41	9.7	38.8	51.5	367
	40대이상	15.11	40.29	44.60	11.51	44.60	43.88	13.3	42.4	44.2	139
숫자나 글 가르치기	20대	16.67	41.67	41.67	25.00	50.00	25.00	20.8	45.8	33.3	12
	30대	15.80	38.69	45.50	22.62	35.97	41.42	19.2	37.3	43.5	367
	40대이상	15.11	40.29	44.60	11.51	48.92	39.57	13.3	44.6	42.1	139
미술 및 만들기	20대	33.33	33.33	33.33	25.00	66.67	8.33	29.2	50.0	20.8	12
	30대	22.07	51.50	26.43	26.43	50.41	23.16	24.3	51.0	24.8	367
	40대이상	15.83	56.83	27.34	16.55	53.24	30.22	16.2	55.0	28.8	139

응답자의 지역별 비교에 있어서는 여성의 경우 지난 한 주간 이야기 들려주기, 함께 노래 부르기, 글자나 숫자 가르치기, 미술 및 공작활동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수도권 부모들이 이야기 들려주기 활동에 전반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6〉 지역별 지난 한 주간 자녀와 한 활동의 횟수

단위: %, 명

구분		1차			2차			합계			수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이야기 들려주기	수도권	9.15	37.85	53.00	7.89	41.32	50.79	8.4	39.6	52.0	316
	충청권	23.53	35.29	41.18	25.49	35.29	39.22	25.0	34.6	40.4	52
	호남권	12.12	57.58	30.30	18.18	51.52	30.30	15.4	53.8	30.8	33
	영남권	11.11	47.86	41.03	13.68	40.17	46.15	12.3	44.5	43.2	118
함께 노래 부르기	수도권	7.89	37.22	54.89	10.73	36.28	53.00	9.2	37.1	53.7	316
	충청권	17.65	41.18	41.18	13.73	43.14	43.14	16.3	41.3	42.3	52
	호남권	9.09	42.42	48.48	3.03	48.48	48.48	6.2	44.6	49.2	33
	영남권	12.82	41.03	46.15	12.82	46.15	41.03	12.7	43.2	44.1	118
숫자나 글 가르치기	수도권	15.14	35.96	48.90	18.93	37.85	43.22	16.6	36.9	46.4	316
	충청권	17.65	50.98	31.37	25.49	45.10	29.41	22.1	47.1	30.8	52
	호남권	21.21	42.42	36.36	9.09	48.48	42.42	13.8	46.2	40.0	33
	영남권	14.53	41.88	43.59	22.22	40.17	37.61	19.5	41.1	39.4	118
미술 및	수도권	21.14	49.53	29.34	23.97	48.90	27.13	22.2	49.4	28.4	316

구분	1차			2차			합계			수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전혀 없다	1~2회	3회 이상		
만들기	충청권	25.49	60.78	13.73	27.45	54.90	17.65	26.9	56.7	16.3	52
	호남권	27.27	51.52	21.21	36.36	39.39	24.24	30.8	46.2	23.1	33
	영남권	15.38	57.26	27.35	17.95	60.68	21.37	17.8	58.5	23.7	118

한편 연구진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어제 하루에 한정하여 활동 시간을 물어 보았다. 먼저 인쇄된 책을 읽거나 읽는 것을 들음에 대하여 차이를 보인 경우는 자녀의 수에 따라 한 자녀의 부모가 자녀가 2이상인 부모에 비하여 인쇄된 책을 읽는 시간이 더 길었다( $F=3.166, p<.05$ ). 다만 3자녀 이상의 경우 사례수가 작아 ( $n=11$ ) 사후검증에서 한 자녀 부모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부모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보다 더 오래 책을 읽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F=5.275, p<.05$ ).

〈표 IV-3-7〉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인쇄된 책읽기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인쇄된 책읽기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64	31.83	26.64	1.198	5.361*	.694
	유아	165	27.96	25.52			
자녀 수	자녀1명	134	31.69	27.41	3.166*	.092	.856
	자녀2명	84	25.45	22.94			
	자녀3명 이상	11	24.09	28.64			
성별	남성	97	31.91	28.40	5.275*	4.700*	.029
	여성	132	26.93	23.94			
연령	20대	7	28.57	27.14	.051	.582	.239
	30대	161	29.56	25.68			
	40대 이상	61	27.72	26.07			
지역	수도권	144	30.65	25.42	.863	.698	1.173
	충청권	22	25.91	25.68			
	호남권	11	22.27	19.09			
	영남권	52	27.35	28.46			

\*  $p < .05$ .

다음으로 전자책을 읽거나 읽는 것을 들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전자책을 읽은 경우가 17 사례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영유아 자녀에게 전자책을 흔하게 소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8〉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전자책 읽기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전자책 읽기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2	20.00	1.269	.097	.097	-	
	유아	15	23.80					27.67
자녀 수	자녀1명	6	22.00	.542	1.207	1.077	-	
	자녀2명	8	26.25					23.75
	자녀3명 이상	3	18.33					25.00
성별	남성	8	26.50	2.318	.699	.075	-	
	여성	9	20.56					25.00
연령	20대	-		1.062	.149	.428	-	
	30대	13	21.69					26.54
	40대 이상	4	28.75					27.50
지역	수도권	9	23.56	3.002	.001	1.175	-	
	충청권	2	20.00					25.00
	호남권	2	20.00					10.00
	영남권	4	26.25					22.50

실내에서 ICT 기기가 아닌 놀잇감을 이용하여 놀이한 시간에 차이를 보인 경우는 자녀의 수에 따라 한 자녀의 부모가 자녀가 2명이상인 부모에 비하여 놀잇감을 사용해 노는 시간이 더 길었다( $F=4.508, p<.05$ ). 다만 3자녀 이상의 경우 사례수가 작아( $n=10$ ) 사후검증에서 한 자녀 부모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표 IV-3-9〉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실내 놀잇감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실내 놀잇감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50	64.62	68.00	1.498	.169	1.083
	유아	151	62.72	54.93			
자녀 수	자녀1명	115	68.97	65.78	4.508*	.344	.139
	자녀2명	76	56.43	48.29			
	자녀3명 이상	10	48.20	46.00			
성별	남성	92	54.50	57.01	2.964	.907	2.230
	여성	109	70.53	59.17			
연령	20대	5	62.00	50.00	.045	.644	.518
	30대	131	61.78	60.23			
	40대 이상	65	66.14	54.69			
지역	수도권	119	64.31	59.83	.691	1.668	.863
	충청권	16	50.00	53.13			
	호남권	14	67.21	36.07			
	영남권	52	63.62	61.92			

\*  $p < .05$ .

그러기나 만들기 활동을 얼마나 하였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차이를 보인 경우는 부모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657, p<.05$ ).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활동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사후검증에서 집단별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표 IV-3-10〉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미술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미술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21	25.33	25.71	3.596	.474	.644
	유아	142	36.01	31.02			
자녀 수	자녀1명	78	35.54	32.05	.729	1.792	.218
	자녀2명	67	33.42	27.46			

구분	사례수	미술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3명 이상	18	35.28	33.61				
성별	남성	69	36.25	35.14	3.792	2.929	1.500
	여성	94	33.46	26.81			
연령	20대	4	15.00	15.00	3.657*	.516	.541
	30대	113	32.74	29.78			
	40대 이상	46	41.00	33.04			
지역	수도권	95	35.15	31.89	1.116	2.069	.157
	충청권	16	28.75	24.06			
	호남권	11	28.64	25.45			
	영남권	41	37.37	30.49			

\*  $p < .05$ .

어제 하루 바깥놀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묻는 문항에 자녀의 연령별( $F=5.064$ ,  $p<.05$ ), 응답자의 성별( $F=9.666$ ,  $p<.01$ ), 지역별( $F=4.925$ ,  $p<.05$ )로 1차와 2차 조사 간에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1차 조사에 비하여 2차 조사 시 바깥놀이 시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3-11〉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바깥놀이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바깥놀이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31	53.45	58.23	.232	5.064*	1.576
	유아	77	50.84	67.66			
자녀 수	자녀1명	63	53.68	69.76	.851	2.077	.334
	자녀2명	39	48.72	59.23			
	자녀3명 이상	6	48.33	51.67			
성별	남성	48	55.15	71.46	2.001	9.666**	.366
	여성	60	48.75	59.75			
연령	20대	2	30.00	50.00	.853	1.810	.025
	30대	85	53.59	67.00			
	40대 이상	21	45.57	58.10			
지역							

구분	사례수	바깥놀이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수도권	68	49.63	64.26	.120	4.925*	.691	
충청권	8	43.75	72.50				
호남권	3	46.67	70.00				
영남권	29	58.86	63.97				

\*  $p < .05$ , \*\*  $p < .01$ .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는 활동을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하였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차이를 보인 경우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영아의 경우 유아에 비하여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는 활동을 더 오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157$ ,  $p<.05$ ).

〈표 IV-3-12〉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음악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음악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41	33.88	5.157*	2.135	2.686			
	유아	50	26.12					69.17	24.10
자녀 수	자녀1명	61	30.28	1.116	.099	.960			
	자녀2명	24	29.92					20.42	
	자녀3명 이상	6	21.67					21.67	
성별	남성	34	31.26	.070	1.256	.246			
	여성	57	28.63					38.68	47.82
연령	20대	5	58.00	.253	.037	.742			
	30대	73	29.21					16.00	48.51
	40대 이상	13	21.00					32.31	
지역	수도권	57	28.63	.468	.076	.503			
	충청권	6	25.00					54.32	25.00
	호남권	5	16.00					15.00	
	영남권	23	36.22					31.30	

\*  $p < .05$ .

하루 동안의 TV 시청시간은 1차와 2차 조사 공히 영아보다는 유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6.945$ ,  $p<.01$ ). 그 외 다른 분류나, 1차-2차 조사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V-3-13〉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TV 시청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TV 시청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33	50.52	6.945**	.452	.472	-
	유아	154	65.58				
자녀 수	자녀1명	95	61.02	1.081	.029	.502	-
	자녀2명	72	65.54				
	자녀3명 이상	20	62.50				
성별	남성	89	60.26	.242	.071	.426	-
	여성	98	65.34				
연령	20대	3	96.67	2.324	1.458	1.090	-
	30대	113	59.24				
	40대 이상	71	67.35				
지역	수도권	109	64.68	1.811	.118	1.153	-
	충청권	15	57.33				
	호남권	13	46.54				
	영남권	50	65.02				
		50	73.50				

\*\*  $p < .01$ .

TV 시청시간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핸드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이용한 동영상 시청은 자녀수에 따라 ( $F=8.437, p<.01$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F=5.819, p<.05$ ), 지역에 따라( $F=8.556, p<.01$ ) 1차시보다 2차에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 응답자에 비하여 여성 응답자의 경우 자녀의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동영상 시청 시간이 더 길다고 답하였다.

〈표 IV-3-14〉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동영상 시청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동영상 시청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20	51.30	.730	2.841	.004	-
	유아	111	59.23				

구분	사례수	동영상 시청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수							
자녀1명	75	61.35	52.73	1.146	8.437**	1.796	-
자녀2명	49	50.00	44.80				
자녀3명 이상	7	78.57	41.43				
성별							
남성	64	51.88	41.95	4.275*	5.819*	.079	-
여성	67	63.90	56.04				
연령							
20대	4	67.50	97.50	1.300	.129	2.318	-
30대	79	56.53	49.37				
40대 이상	48	59.69	44.79				
지역							
수도권	79	54.05	51.20	.910	8.556**	1.870	-
충청권	14	75.36	46.07				
호남권	7	43.00	26.43				
영남권	31	63.71	50.48				

\*  $p < .05$ , \*\*  $p < .01$ .

자녀가 핸드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다고 응답한 수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동영상 시청시간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한 경우에도 자녀수에 따라( $F=6.053$ ,  $p<.05$ ),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F=5.654$ ,  $p<.05$ ),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F=6.196$ ,  $p<.05$ ), 그리고 지역에 따라( $F=7.594$ ,  $p<.01$ ) 1차시보다 2차에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5〉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ICT 게임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ICT 게임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2	25.00	22.50	1.009	.394	.197	-
유아	37	49.32	34.73				
자녀 수							
자녀1명	17	42.94	38.24	1.644	6.053*	.950	-
자녀2명	14	45.36	23.21				
자녀3명 이상	8	63.75	44.38				
성별							
남성	21	40.24	30.00	2.696	5.654*	.454	-
여성	18	57.22	38.89				

구분	사례수	ICT 게임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연령	20대	-					
	30대	17	46.47	24.71	1.469	6.196*	1.338
	40대 이상	22	49.32	41.36			
지역	수도권	25	41.40	36.20	1.069	7.594**	2.347
	충청권	6	55.00	25.83			
	호남권	3	33.33	30.00			
	영남권	5	82.00	36.00			

\*  $p < .05$ , \*\*  $p < .01$ .

자녀가 핸드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학습용 앱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학습용 앱을 더 오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6.078$ ,  $p<.01$ ).

〈표 IV-3-16〉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학습용 앱 사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학습용 앱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4	30.00	28.75	.325	.030	.001
	유아	47	34.70	33.83			
자녀 수	자녀1명	24	37.13	33.54	.504	.366	.937
	자녀2명	22	31.82	30.91			
	자녀3명 이상	5	32.00	44.00			
성별	남성	21	34.05	35.71	.131	.024	.435
	여성	30	34.53	31.83			
연령	20대	2	75.00	60.00	6.078**	.799	.397
	30대	32	34.38	34.53			
	40대 이상	17	29.47	28.24			
지역	수도권	34	34.59	33.24	.015	.019	.123
	충청권	5	32.00	33.00			
	호남권	5	37.00	32.00			
	영남권	7	32.86	35.71			

\*\*  $p < .01$ .



부모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의 화상통화 시간을 보다 길게 보고하였다( $F=6.188, p<.05$ ).

〈표 IV-3-17〉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화상통화 사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화상통화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18	9.67	9.22	1.464	.058	.000
	유아	51	12.29	11.88			
자녀 수	자녀1명	43	11.81	9.72	.396	.279	.981
	자녀2명	19	11.74	13.74			
	자녀3명 이상	7	10.00	13.29			
성별	남성	22	15.14	14.41	6.188*	.089	.018
	여성	47	9.96	9.68			
연령	20대	4	15.00	7.50	.048	.290	1.339
	30대	54	11.69	10.85			
	40대 이상	11	10.00	14.18			
지역	수도권	37	11.49	10.62	.726	.000	.042
	충청권	8	8.13	8.88			
	호남권	6	11.33	11.67			
	영남권	18	13.50	13.22			

\*  $p < .05$ .

자녀가 핸드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이용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거나 검색을 하는 등 기타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영아보다 유아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F=7.444, p<.01$ ).

〈표 IV-3-18〉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어제 하루 ICT 기타 사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ICT 기타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12	10.92	10.08	7.444**	.129	.000
	유아	34	21.41	20.53			

구분	사례수	ICT 기타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수							
자녀1명	25	18.92	16.36	.755	.600	1.097	
자녀2명	18	17.83	17.50				
자녀3명 이상	3	21.67	31.67				
성별							
남성	16	23.31	22.19	3.531	.179	.008	
여성	30	16.20	15.47				
연령							
20대	2	35.00	20.00	.948	2.047	1.070	
30대	32	16.91	16.84				
40대 이상	12	20.67	20.00				
지역							
수도권	27	19.96	19.96	.806	.004	.557	
충청권	3	10.00	8.33				
호남권	3	11.67	18.33				
영남권	13	19.62	15.38				

\*\*  $p < .01$ .

연구진은 코로나기간 자녀의 취침시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자녀의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1차시에 비해 2차시가 취침 시각이 빨라졌고( $F=14.472, p<.001$ ), 응답자의 성별로 살펴 보았을 때, 1차시에 비해 2차시가( $F=18.930, p<.001$ ) 취침 시각이 더 일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3-19〉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자녀의 취침 시각

단위: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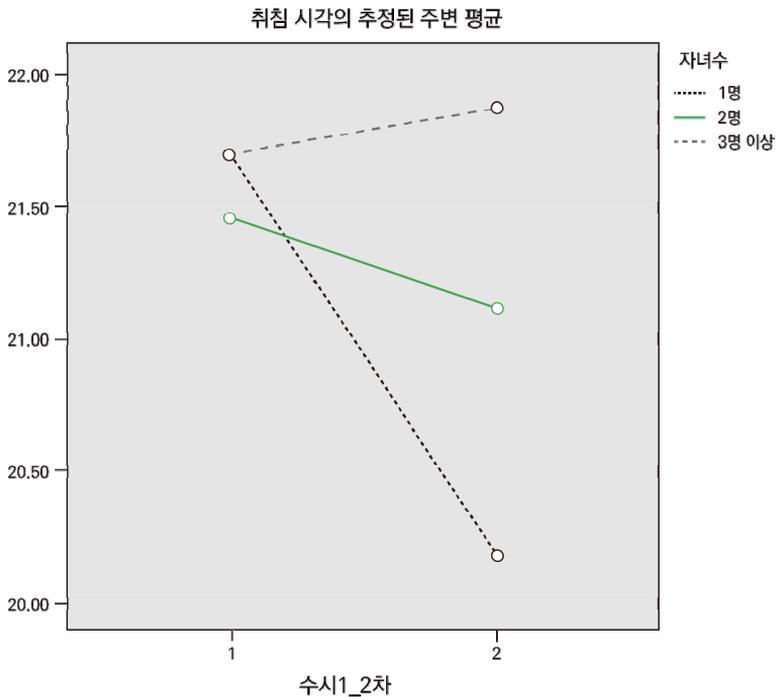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ICT 기타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133	21.34	20.26	2.888	14.472 ***	.052	
유아	384	21.69	20.74				
자녀 수							
자녀1명	296	21.69	20.16	2.671	2.860	3.771*	
자녀2명	185	21.44	21.10				
자녀3명 이상	36	21.69	21.86				
성별							
남성	236	21.63	20.25	2.066	18.930 ***	2.342	
여성	281	21.58	20.92				
연령							

구분	사례수	ICT 기타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20대	12	22.08	21.83	.856	2.645	1.361	
30대	366	21.50	20.73				
40대 이상	139	21.81	20.21				
지역				1.687	2.499	1.649	
수도권	317	21.68	20.32				
충청권	51	21.53	21.61				
호남권	33	21.82	21.70				
영남권	116	21.34	20.66				

\*  $p < .05$ , \*\*\*  $p < .001$ .

한편 자녀의 수에 따라 잠자리에 든 시간은 자녀의 수에 따라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데( $F=3.771$ ,  $p<.05$ ),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보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확연하게 빨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V-3-1] 자녀 수에 따른 취침 시각의 변화



자녀들의 기상시각 역시 취침시각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빨라졌는데, 자녀의 연령( $F=15.485, p<.001$ )에 따라, 자녀의 수( $F=5.580, p<.05$ )에 따라, 응답자의 성별( $F=16.297, p<.001$ )에 따라, 지역( $F=7.792, p<.01$ )에 따라 1차에 비하여 2차에서 기상 시각이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응답자의 성별에 있어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데, 남성 응답자는 1, 2차 조사 시 기상 시각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 응답자의 경우 2차 조사 시 기상시각이 더 많이 앞당겨졌다고 하였다( $F=6.334, p<.05$ ). 그리고 집단간 차이에 있어서도 영아의 기상 시각이 유아의 기상시각보다 빨랐으며( $F=10.010, p<.01$ ), 40대 이상 부모의 자녀들이 30대 부모의 자녀들보다 기상시각이 더 늦었다( $F=3.481, p<.05$ ).

〈표 IV-3-20〉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자녀의 기상 시각

단위: 명,시

구분	사례수	ICT 기타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133	7.64	7.43	10.010**	15.485***	.209
	유아	384	7.91	7.74			
자녀 수	자녀1명	296	7.88	7.69	.530	5.580*	0.320
	자녀2명	185	7.81	7.62			
	자녀3명 이상	36	7.69	7.64			
성별	남성	236	7.80	7.74	.175	16.297***	6.334*
	여성	281	7.87	7.60			
연령	20대 a	12	7.83	7.75	3.481*	2.609	0.254
	30대 b	366	7.77	7.60			
	40대 이상 c	139	8.04	7.81			
지역	수도권	317	7.88	7.67	1.215	7.792**	0.744
	충청권	51	7.57	7.49			
	호남권	33	7.82	7.55			
	영남권	116	7.84	7.75			

\*  $p < .05$ , \*\*  $p < .01$ , \*\*\*  $p < .001$ .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1, 2차 수시 조사 시점의 변화와 연령( $F=22.353, p<.001$ )과, 자녀의 수( $F=7.190, p<.001$ )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자녀의 연령에 있어서는, 영아의 경우 1차 조사 시에 비하여 2차 조사에서 평균 수면시간이 줄어들었으나 유아의 경우는 1, 2차 조사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의 수에 있어서는 자녀의 수가 하나이거나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면시간이 줄어들었으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수면시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자녀의 수면시간 보고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F=.003, p>.05$ ), 2차 조사 시 1차 조사에 비하여 수면시간이 소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4.054, p<.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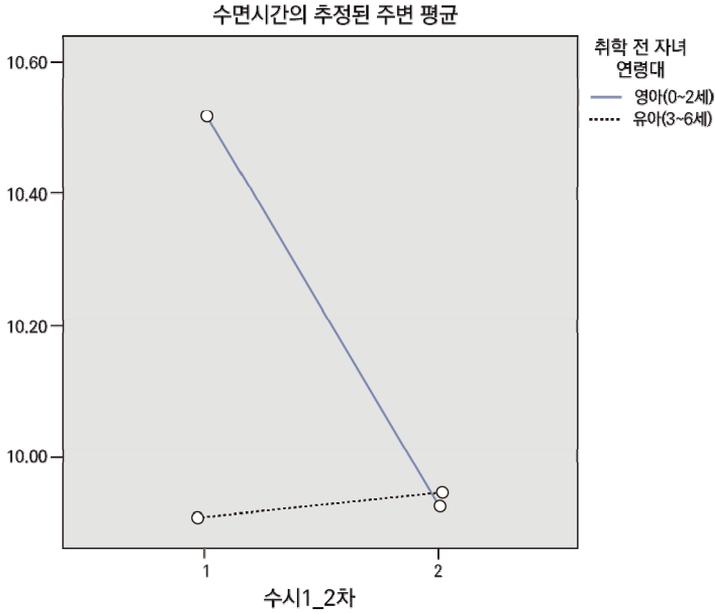
〈표 IV-3-21〉 1-2차 수시 조사 반복측정에 따른 자녀의 수면 시간

단위: 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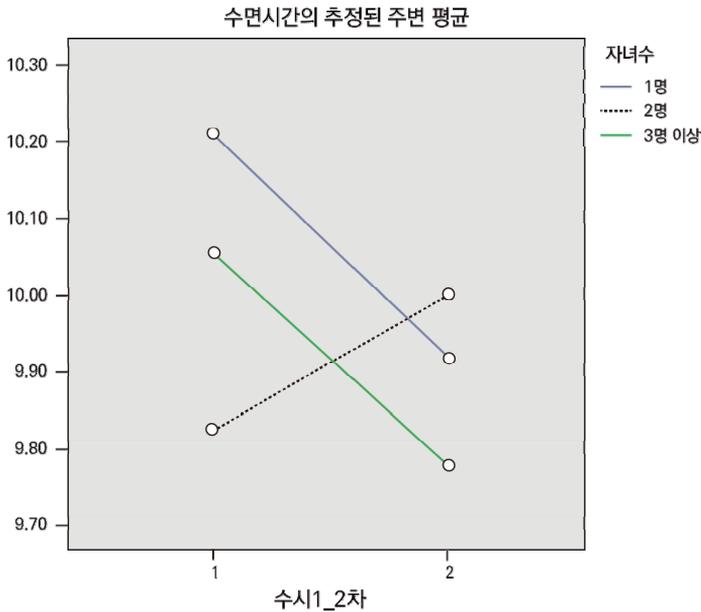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ICT 기타		F			Scheffe (A)	
		1차	2차	집단간 (A)	1-2차 (B)	A×B		
자녀 연령	영아	131	10.52	9.92	13.595	17.492	22.353	
	유아	384	9.91	9.94	***	***	***	
자녀 수	자녀1명	294	10.21	9.92	2.216	2.432	7.190*	
	자녀2명	185	9.83	10.00				
	자녀3명 이상	36	10.06	9.78				
성별	남성	235	10.04	9.97	.003	4.054*	.641	
	여성	280	10.08	9.91				
연령	20대	12	9.67	9.92	.514	.020	.719	
	30대	366	10.07	9.96				
	40대 이상	139	10.08	9.88				
지역	수도권	316	10.13	9.91	1.183	.466	1.714	
	충청권	51	9.75	9.88				
	호남권	33	10.03	9.85				
	영남권	115	10.03	10.07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IV-3-2] 자녀 연령에 따른 수면 시간의 변화



[그림 IV-3-3] 자녀 수에 따른 수면 시간의 변화



한편 코로나 시기동안 자녀 양육실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518명의 영유아가 가정내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차 조사 시 가정내 양육을 하고 있던 99명 중 76.77%는 2차 조사 시에도 여전히 가정내 양육을 하고 있었으나 그중 17.17%는 어린이집으로, 6.06%는 유치원으로 옮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조사 시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응답한 276명 중 87.68%는 계속 어린이집을 다녔고, 2차 조사 시에는 가정내 양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가정은 9.78%였다. 그리고 유치원으로 옮긴 경우는 2.54%였다. 한편 1차 조사 시 유치원에 다닌다고 응답한 143명 중 88.11%는 2차 조사에서도 계속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9.09%는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2.80%는 가정내 양육을 선택하였다. 1차 조사보다 2차 조사에서 인원이 늘어난 것은 가정내 양육이었으나 반면 1차 조사 이후 양육 형태를 가장 많이 바뀐 경우도 가정내 양육이었다.

〈표 IV-3-22〉 자녀의 가정내 양육,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실태의 변화

단위: %

1차 조사 \ 2차 조사	가정내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소계
	n=107	n=272	n=139	n=518
가정내 양육(n=99)	76.77	17.17	6.06	100.00
어린이집(n=276)	9.78	87.68	2.54	100.00
유치원(n=143)	2.80	9.09	88.11	100.00
소계(n=518)	20.66	52.32	27.03	100.00

영아의 경우 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1차 조사와 2차 조사 시의 기관 이용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정내 양육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이 모두 가능한 유아로 한정하여 양육실태의 변화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유아 자녀의 총 수는 381명이었으며 이들 중 1차 조사 시 가정내 양육을 하고 있던 경우는 35명으로 2차 조사에서도 가정내 양육을 지속하고 있던 경우가 35명의 60.00%,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22.86%,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17.14%였다. 1차 조사 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203명이었는데 이중 2차 조사에도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90.64%, 가정내 양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5.91%, 그리고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3.45%였다. 1차 조사 시 유치원에 보낸 경우는 143명이었는데, 2차 조사에서도 유치원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경우는

88.11%였고, 이들 중 2.80%가 가정내 양육으로 전환하였으며, 어린이집이집으로 옮긴 경우는 9.09%였다.

〈표 IV-3-23〉 유아의 가정내 양육,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실태의 변화

단위: %

1차 조사	2차 조사	가정내 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소계
		n=37	n=205	n=139	n=381
가정내 양육(n=35)		60.00	22.86	17.14	100.00
어린이집(n=203)		5.91	90.64	3.45	100.00
유치원(n=143)		2.80	9.09	88.11	100.00
소계(n=381)		9.71	53.81	36.48	100.00

유치원을 선택할 수 없는 영아의 경우 전체 137명 가운데 1차 조사 시 가정내 양육을 선택하고 있던 경우는 총 64명이었다. 이들 중 2차 조사 시까지도 가정내 양육을 계속하고 있던 경우는 85.94%,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는 14.06%였다. 그리고 1차 조사 시 어린이집에 다니던 경우가 73명이었는데 이들 중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79.45%였고, 가정내 양육으로 바꾼 경우가 20.55%에 달했다.

〈표 IV-3-24〉 영아의 가정내 양육, 혹은 어린이집 이용 실태의 변화

단위: %

1차 조사	2차 조사	가정내 양육	어린이집	소계
		n=70	n=67	n=137
가정내 양육(n=64)		85.94	14.06	100.00
어린이집(n=73)		20.55	79.45	100.00
소계(n=137)		51.09	48.91	100.00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에 대한 기관에서의 원격 활동의 형태가 바뀌었는지 비교를 해보았다. 먼저 어린이집의 경우 1차 조사 시 어린이집에 다니던 197명의 경우 1차 때 기관의 원격 강의나 활동 지원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2차 조사 시에도 계속 원격 강의나 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경우가 58.33%였다. 반면 14.58%는 원격 강의나 활동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매일 출석하여 원격 활동이 해당없다고 답한 경우는 27.08%였다. 반면, 1차 조사 시 원격 강

의나 활동이 없다고 답한 71명 중 7.04%는 원격 활동 지원이 있다고 답하였고, 50.70%는 여전히 원격 활동이 없다고 답하였고, 매일 출석하느라 해당없다고 답한 경우는 42.25%였다. 1차 조사에서 매일 출석한다고 답한 78명 중 62.82%는 계속 매일 출석을 이어가고 있었고, 10.26%는 원격 활동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26.92%는 원격 활동 지원이 없다고 답하였다.

한편 1차 조사에서 유치원에 재원하고 응답한 134명 중 원격 활동 지원이 있다고 답한 49명 중 42.86%는 계속 원격 활동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20.41%는 원격 활동 지원이 없다고 답하였고, 36.73%는 매일 출석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1차 조사에서 유치원의 원격 활동이 없다고 답한 23명의 경우 30.43%는 2차 조사에서 원격 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하였고, 17.39%는 매일 출석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52.17%는 여전히 원격 활동 지원이 없다고 답하였다. 1차 조사 시 매일 출석하던 62명 중 54.84%는 2차 조사 시에도 매일 출석하고 있었으며, 16.13%는 원격 활동 지원을 받고 있었고, 원격 지원이 없다고 답한 사례는 29.03%였다.

2차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매일 출석하고 있는 경우 44.31%, 원격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23.95%, 원격 활동이 없는 경우는 31.7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25〉 유아(3~6세)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원격 지원 경험 여부의 변화

단위: %(명)

1차 조사 \ 2차 조사		원격강의나 활동 지원	원격강의나 활동 없음	해당없음 (매일출석)	소계
어린이집	원격강의나 활동 지원	58.33	14.58	27.08	100( 48)
	원격강의나 활동 없음	7.04	50.70	42.25	100( 71)
	해당없음(매일 출석)	10.26	26.92	62.82	100( 78)
	소계	20.81(41)	32.49( 64)	46.70( 92)	100(197)
유치원	원격강의나 활동 지원	42.86	20.41	36.73	100( 49)
	원격강의나 활동 없음	30.43	52.17	17.39	100( 23)
	해당없음(매일 출석)	16.13	29.03	54.84	100( 62)
	소계	28.36(38)	29.85( 40)	41.79( 56)	100(134)
전체	원격강의나 활동 지원	50.52	17.53	31.96	100( 97)
	원격강의나 활동 없음	12.63	51.58	35.79	100( 95)
	해당없음(매일 출석)	13.38	28.17	58.45	100(142)
	소계	23.95(80)	31.74(106)	44.31(148)	100(334)

연구진은 원격활동에 소요된 시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1차, 2차 조사 기간 동안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았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 기간 동안 모두 원격 활동을 지속한 사례는 많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기는 어려웠으나( $F=3.29, p>.05$ ), 어린이집은 소요시간이 다소 높고 유치원은 줄어들었으나 오차범위 내의 차이였다.

〈표 IV-3-26〉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격 활동에 소요된 시간의 변화

단위: 명, 분

구분	사례수	원격활동 소요시간(분)		F		
		1차	2차	집단간(A)	1-2차(B)	A×B
어린이집	26	25.35	30.35	1.079	.127	3.29
유치원	25	33.60	30.24			

#### 4. 1차 수시 여론조사와 미국 조사의 주요 결과 비교

연구진은 설문을 유사한 시기에 배포한 미국 국립유아교육연구소의 자료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비교를 통하여 모든 활동에 있어서 미국의 평균이 한국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놀잇감을 사용한 실내 놀이( $t=142.717, p<.001$ ), 바깥놀이( $t=136.161, p<.001$ ) 등의 시간은 미국과 한국의 영유아의 활동 시간의 차이가 매우 컸다.

〈표 IV-4-1〉 한국(수시 1차 조사)과 미국의 어제 하루 활동한 시간의 차이검증

단위: 분

구분	국가간 결과 비교		t
	한국(n=767)	미국(n=945)	
인쇄된 책을 읽거나 읽는 것을 들음	15.55	22.20	30.812***
전자책을 읽거나 읽는 것을 들음	3.31	9.87	32.481***
디지털 매체 제외 도구 이용 실내 놀이	36.33	96.85	142.717***
미술 및 공작	14.80	23.03	34.496***
바깥 놀이	34.53	87.85	136.161***
음악 연주 감상	12.06	28.65	46.951***
TV 수상기로 TV 프로그램 시청	29.72	56.73	81.528***
컴퓨터, 게임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동영상 또는 TV 프로그램 시청	18.43	36.72	58.792***
컴퓨터, 게임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5.65	21.48	55.170***

구분	국가간 결과 비교		t
	한국(n=767)	미국(n=945)	
게임 이용			
컴퓨터, 게임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교육용 학습용 프로그램이나 앱 사용	6.88	21.45	57.859***
컴퓨터, 게임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화상통화	2.60	8.78	32.466***
컴퓨터, 게임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사진 동영상 촬영 및 보기 등 기타 활동	3.45	12.61	43.541***

\*\*\*  $p < .001$ .

※ 활동 시간의 평균값은 무응답자를 포함하여(활동시간을 0으로 하여) 비교하였음.

## 5. 소결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서 제공되던 서비스지원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제한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연구진은 코로나 위기가 한창 고조되고 다양한 대응 정책이 쏟아져 나오던 6월, 그리고 어느 정도 수그러들 줄 알았던 기대가 무너진 11월 말의 2차에 걸친 수시조사를 통하여서 영유아의 가정내 학습 및 생활상의 변화를 일부 읽을 수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전반적으로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든 점이다. 그리고 부모들의 전자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자책을 영유아 자녀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 부모의 경우 특정 활동(숫자나 글자 가르치기, 그리기나 만들기)에 있어서 2차 조사에서 더 활동이 줄어들었다.

동일한 설문을 1차 조사와 유사한 시기에 배포한 미국 국립유아교육연구소의 자료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비교를 통하여 모든 활동에 있어서 미국의 평균이 한국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사회 문화적 맥락이 달라서 평균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영유아의 가정내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과 달리 전반적으로 바깥놀이 시간이 늘어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정내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우려와 달리 영유아 자녀의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시간은 2차에 걸쳐 줄어들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학습용 앱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유아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ICT 기기의 활용을 포함하여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도 다양한 원격지원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원격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가정 내 활동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 내 학습 및 다양한 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V

## 결론 및 제언

01 결론

02 정책 제언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가. 대국민 육아정책 여론조사

2020 대국민 육아정책 여론조사 결과와 1~4차의 비교 결과를 부모됨, 결혼 및 자녀 양육관, 육아 행복감,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의 4가지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부모됨

첫째, 자녀를 부모가 꼭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한편 부모가 키워주는 것은 당연하며, 자녀의 의무에 대한 인식은 약화되고 있다. 또한 자녀를 돌보는 시기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는 응답비율이 늘어났다. 결국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모두 약화되고 있다.

둘째,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양육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여전히 일·가정 양립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남녀의 양육 및 가사분담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버지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여전히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경제 활동에 있어 자녀가 영유아기는 1명만 일하고, 초등학교 시기는 1명은 전업, 1명은 시간제로 일하며, 중고등학교 시기는 부모 모두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좋은 부모의 역할로 생활태도 및 습관지도라는 응답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정서적 지원이라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녀를 체벌하면 안 된다는 인식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역할이 훈육보다는 자녀와의 좋은 관계에서 정

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시간 사용에 있어 근무시간은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집에 머무는 시간과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휴직하거나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난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 2) 결혼 및 자녀 양육관

첫째,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편이 좋다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의견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선택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비율은 증가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결혼을 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없어도 무방하다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는 경제에서 자유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이제 결혼과 자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 개인의 자유시간 확보이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일관되게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양육과 일의 병행이라는 응답에서 비용 부담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비용 지원은 주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자녀에게 기대하는 최종학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점점 자녀가 미래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보다 경제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자녀교육의 성공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 3) 육아행복감

첫째, 자녀 양육의 즐거움은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이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거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애정과 지지라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있어서 행복감과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비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녀 양육의 즐거움을 자녀에만 초점을 두던 것에서 벗어나 부모 자신의 즐거움도 함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자녀 양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모이며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를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양육 지원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자녀 양육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기로 영아기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 저학년도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양육 지원에 대한 비중이 영아기에 좀 더 증가해야 함을 나타낸다.

#### 4)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에 대한 의견

첫째,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차별 지원에 대한 요구는 급감하고 무상 보육과 유아교육 이행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는 차별 지원보다 보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큼을 보여준다.

둘째,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관련 교육실시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고, 조기발견 노력과 처벌강화 요구가 늘어났다. 따라서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예방의 노력과 발생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교육의 이유로 자녀의 발달과 학습을 위해서나 남보다 뒤쳐질까봐 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는 점차 줄어들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급증하였다. 이는 돌봄 정책이 보다 세심하게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출산지원정책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확대,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을 요구하는 응답은 줄어들고, 유아원비나 양육 수당 등의 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다. 또한 보육료와 유아학비 전계층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은 급증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에 주는 영향은 보통 수준이지만, 국민들은 양육비용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우리 사회가 양육에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쪽에 더 가깝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통에서 약간 좋은 쪽이며, 2020년에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변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나 정부 정책이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나. 감염병 대응정책

2020년은 개정된 누리과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함께 새로이 적용되기를 기대했던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상황으로 인하여 준비된 교육 및 보육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해였다. 그 와중에 감염병 대응 관리와 동시에 긴급보육도 실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특히 초중등 및 대학교에서도 대면수업이 전격 중단되고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평시나 다름없는 인원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실적으로 장시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 영유아의 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고 이 연구를 통하여 감염병 상황에 대한 영유아 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조사를 할 수 있었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COVID-19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감염병 관련 대응 정책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 1)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의 적절성

첫째, 정부는 코로나대응과 관련하여 돌봄 쿠폰, 돌봄 포인트, 특별돌봄 지원금 등 비용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뿐 아니라 좀 더 큰 자녀의 부모들의 적절성 평가나 미혼인 응답자의 적절성 평가도 모두 긍정적인 것이라 정부의 코로나대응 관련 비용지원 정책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소득 수준별 비교에 있어서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보다 높은 평가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액수에 있어서 연간 이상적인 액수로 약 160만원 정도를 제안한 것을 감안하면, 보다 많은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제원마련 등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급 대상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보다 어린 연령의 자녀에게 지원이 우

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급대상에 있어서도 현재 영유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원 정책이 향후에도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 운영되는 수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전체의 70%가 넘는 응답자는 최소 초중등에서 운영하는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적용되거나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을 바라고 있었다. 특히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도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68%가 넘는 응답자가 이와 같은 답변을 하였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한적 돌봄 지원으로 인한 가정내 양육을 돕기 위한 정책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반기 갑작스런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각 기관 및 시설에서는 각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적인 운영을 실시하였다. 실내 체육관 등의 시설 뿐 아니라 옥외시설까지도 폐쇄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러나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 지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런 사회체육 및 문화시설이 통합적인 계획이 없이 각 기관별로 보수적으로 운영되다보니 가정에서 자녀 돌봄이 더욱 어려워진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특히 수시조사를 통해 살펴본 영유아의 학습 및 생활 실태를 살펴본 결과 모든 활동이 위축되어 있음이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났다. 영유아의 가정내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짐에 따라 가정내 양육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2. 정책 제언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부모의 양육역량 제고

자녀를 부모가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양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식은 출산 이후 육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등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고, 국가가 육아를 책임지겠다는 정책 홍보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약화시키고 양육을 어려운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 나아가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양육의 행복감, 양육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실제적으로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양육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부모교육은 예비부모에서 시작하여 자녀의 성장에 따라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부모교육 수료를 정책지원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 나.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과거에 비하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양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육아의 부담은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실제로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의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여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여성이 대부분 양육의 책임을 지고 남성은 조력의 역할을 할 뿐이다.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지만,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구조적인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이는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성의 동등한 양육과 가사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실행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가족 유대 강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전환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점차 개인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양육에 대한 책임 비중이 가정에서 전적으로 전담하던 것을 점차 국가가 나누어 지원하게 된 데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동안 정부정책은 부모에게 양육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양육행

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했다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기관을 통해 양육을 대리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약화되면서도 가족에 대한 기대가 정서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때, 양육지원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부모들이 직접 양육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지원 정책을 펼치고 실제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사회의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 라. 생애주기에 따른 육아지원정책 체계화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가 영유아 시기에는 부모 1인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며,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 1인의 절반의 도움, 중고등학교 시기는 부모 모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정책도 각 가정의 생애주기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시간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하며, 동시에 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상을 비용지원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는 특히 영아기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 집중적인 양육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 마. 복지국가 실현을 통한 저출생 극복

이제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시대가 되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비용 부담과 개인의 자유시간 확보이다. 자녀에 대한 가장 큰 기대도 경제적 안정이다. 이를 바꾸어 생각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다양한 사회 인프라 확충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한 복지국가가 실현이 이루어진다면 저출생 극복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행복도

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바. 비용지원정책 확대

국민들은 점차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원하고 있으며, 보육 인프라의 확충보다는 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비용 지원을 통해 가족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최소한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비용은 완전 무상으로 지원하고, 기관을 선택하지 않는 가정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하며, 임신·출산부터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수당지원으로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하지 못하거나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도록 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비용지원과 함께 사각지대를 잘 살펴서 추가 비용지원을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있어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한다.

## 사. 돌봄 인프라 확충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교육을 하는 이유로 발달과 학습,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점차 돌봄 때문이라는 응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양질의 돌봄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된다. 부처마다 돌봄 체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이 미비하고 단일화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며,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기도 어렵다. 각 가정의 수요에 따라 집단 혹은 개인적인 돌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히 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 강화나 사전 교육을 통한 돌봄 인력의 확충과 인프라의 질 제고 또한 필요하다.

## 아. COVID-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역 대책은 초중등학교보다도 더 느슨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다행히 COVID-19는 상대적으로 영유아에게 특별히 더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향후 영유아에

게 더 취약한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유행할 시기라면 현재와 같은 대응책으로는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역대책에 대하여 최소한 초중등 수준의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방역 체제가 작동하는 환경 속에서 돌봄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한적 돌봄 지원으로 인한 가정내 양육을 돕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내 체육관 등의 시설 뿐 아니라 옥외시설 등 사회체육 및 문화시설이 통합적인 운영 계획 속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COVID-19은 이제 생활 속에서 공존해야하는 장기적인 실존의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운영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계획등과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협력하여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교육부 보도자료 2020. 1. 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대응태세 사전점검 등 대응강화
- 교육부 보도자료 2020. 2.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금 249억원 전국 시도교육청 긴급 지원
- 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12. 긴급돌봄 3차 수요조사 결과
- 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17a. 전국 모든 유치중고특 개한 2주간 추가연기 결정
- 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17b.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 확정
- 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24a.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24b.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
- 김동훈·김문정(2019).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Ⅲ). 육아정책연구소.
-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문무경·박상신(2018). 동아시아 국가(한·중·일)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Ⅰ): 한·중·일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전략의 특징, 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최정원·박은영·소마 나오코·이연화·김병철·자처하오(2019). 동아시아 국가(한·중·일)의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김은설·최혜선(2007) 혁신적 육아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KICCE I-POL 사업 결과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Peter Moss, John Bennett·하민경(2013). 선진 육아정책 동향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김나영·이유진(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육아정책의 이슈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1.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 집 등 대응요령 배포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3. 17,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3. 31, 어린이집 휴원기간 연장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4.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4. 22,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5. 29,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 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 2. 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1. 30. 여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응 강화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3. 24. 공동육아나눔터 찾아 긴급 돌봄 현황 점검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5. 15. 가족상담전화, 심리정서상담 개시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6. 10. 코로나-19 관련 여성고용위기 현황 및 정책 과제 토론회
- 유해미·이윤진·김영옥·김진성·손인숙·송다영·안현미·최영(2019).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II),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양미선·김문정(2018).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김나영·김미곤·김영옥·김은실·손인숙·양옥승·정재훈·천현숙·최영·김문정(2018). 초저출산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김혜진·이혜민·배지아(2015) 2015 KICCE I-POL 사업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김나영·이혜민(2019).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II),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최효미·이혜민(2018).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연구소.



## KICCE Poll on parenting policy for establishing happy child care culture (IV)

Wonsoon Park, Eun young Kim, Eun young Park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has been conducting “KICCE Poll on parenting policy for establishing happy child care culture” for 5 years from 2017 to 2021. The online public survey targets 3,000 citizens aged 15 to 75 years nationwide each year, and questions are composed of fixed questions ba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It identifies trends in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 happiness of parenting and child care. In addition, this year, a questionnaire was also conducted to identify chang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in the home due to COVID-19 for 518 parents raising young children.

The brief result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urden on the cost of child care has been increased.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cause of the avoidance of marriage and childbirth as economic difficulties, which revealed that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was more fundamental and structural. In particular, this year, as the number of families experiencing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COVID-19 increased.

Second, there is a general perception that par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an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m, but the results of this year survey the diverse opinions has been increased.

Third, the policy on work-family balance should be the top priority among the government's parenting-related policie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a work-family balance policy for a long time, people do not think that is enough.

Fourth, it is confirmed that positive opinions about the government's parenting-related cash allowance policy this year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It appears to be the result of positive experiences of the government's child care allowance related to COVID-19.

Fif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s overall parenting policy is steadily increasing.

Sixth, due to COVID-19, the provision of services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has become unstable, and the burden of parenting in the home has increased.

Seventh, while the prolonged period of COVID-19 increases the difficulty of raising in the home, it is understood that the quality of nurturing and education in the home is maintained at a certain level. However, the amount of learning activities at home is too low. Hence, diverse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support home learning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described above, a policy to improve parenting capacity of parents, spread a culture of gender equality, introduce policies to strengthen family ties, and systematize child-rearing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was formula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low birthrates through increased welfare programs, expanded child allowance and child care infrastructure.

Keyword: Parenting survey, Child care policy, COVID-19



## 1. 기초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특별시 | <input type="checkbox"/> ② 울산광역시   | <input type="checkbox"/> ③ 전라북도    |
| <input type="checkbox"/> ④ 부산광역시 | <input type="checkbox"/> ⑤ 세종특별자치시 | <input type="checkbox"/> ⑥ 전라남도    |
| <input type="checkbox"/> ⑦ 대구광역시 | <input type="checkbox"/> ⑧ 경기도     | <input type="checkbox"/> ⑨ 경상북도    |
| <input type="checkbox"/> ⑩ 인천광역시 | <input type="checkbox"/> ⑪ 강원도     | <input type="checkbox"/> ⑫ 경상남도    |
| <input type="checkbox"/> ⑬ 광주광역시 | <input type="checkbox"/> ⑭ 충청북도    | <input type="checkbox"/> ⑮ 제주특별자치도 |
| <input type="checkbox"/> ⑯ 대전광역시 | <input type="checkbox"/> ⑰ 충청남도    |                                    |

3. 귀하의 거주지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도시  ② 군(읍·면 지역)  
 (특별·광역·특별자치시 이외 시 소재)

4.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5. 귀하의 혼인여부에 대하여 응답해주시시오

-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기혼, 사실혼)  
 ③ 배우자 없음(이혼, 별거, 사망)

6.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음(☞ 6-1로)  ② 없음(☞ 11로)

6-1.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어린 자녀부터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자녀수 ( )명			
구분	연령	성별	이용기관 및 소속
자녀 1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자녀 2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자녀 3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자녀 4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자녀 5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input type="checkbox"/> ① 영유아 기관* 이용 안함(가정양육 등) <input type="checkbox"/> ② 영유아 기관* <input type="checkbox"/> ③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④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⑤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⑥ 대학/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⑦ 직장 <input type="checkbox"/> ⑧ 출가 및 미취업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미취학 자녀가 이용하는 모든 기관을 말함(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기관(미취학 아동이 평일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전후 시간까지 머물면서 교육과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학원,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형태로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이 이러한 학원의 일종임) 등)

6-2. (미취학 연령의 자녀가 영유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린 자녀부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령	이용기관 <보 기>	
자녀 1	만 ( )세	<input type="checkbox"/> ① 국공립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③ 법안·단체 등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⑤ 가정어린이집 (놀이방) <input type="checkbox"/> ⑦ 협동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⑨ 사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④ 민간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⑥ 직장어린이집 <input type="checkbox"/> ⑧ 국공립유치원 <input type="checkbox"/> ⑩ 반일제 이상 학원
자녀 2	만 ( )세		
자녀 3	만 ( )세		

## II. 부모됨

1. 부모됨 관련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2)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3)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4) 자녀가 영유아(초등 이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6)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7) 부모가 되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다.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2. 주어진 두 개의 문장 중 귀하의 솔직한 생각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1. 부모는	<input type="checkbox"/> 1) 부모는 자녀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다. <input type="checkbox"/> 2)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2-2. 자녀는	<input type="checkbox"/> 1)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2)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 없다.

3. 부모는 언제까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② 대학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결혼할 때까지  
 ⑤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⑥ 평생동안

3-1. 자녀 1인당 양육비용(교육 포함)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영아(0-2세)                       ② 유아(3-5세)                       ③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④ 초등 고학년(4-6학년)         ⑤ 중학생                               ⑥ 고등학생

4.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2)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3) 아버지로서 남자가 할 일은 가정에 돈을 벌어드는 것이다.				

5.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부모라면 자녀 양육과 가사(집안 일 등)를 어떻게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자녀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        )	어머니 vs 아버지 (        :        )

6.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실제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부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자녀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        )	어머니 vs 아버지 (        :        )

7. (현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자녀 양육 중 다음의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분	번호
1) 집안 일(식사 준비, 빨래 등)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2) 자녀 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3)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4) 자녀의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등·하원 도와주기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5) 자녀 물품 알아보고 구매하기 등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

8. 귀하는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영유아 손자녀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손자녀를 위해 필요하다                       ②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  
 ③ 조부모를 위해 필요하다                       ④ 조부모를 위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⑤ 모르겠다

9. 귀하는 자녀 양육시기별로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양육시기별로 아래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영아 자녀(만0~2세)	유아 자녀(만3~5세)	초등학생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 ① 부모 둘 중 한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한명은 집에서 양육함  
 ②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③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④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함

10. (자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임                       ③ 보통  
 ④ 그렇지 않은 편임                       ⑤ 매우 그렇지 않음

11.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임                       ③ 보통  
 ④ 그렇지 않은 편임                       ⑤ 매우 그렇지 않음

12.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① 양육지식                       ② 정서적 지원                       ③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④ 학업지도                       ⑤ 경제적 지원                       ⑥ 기타( )





5.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2)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3)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4) 자녀가 하기에 벅찬 일일지라도 혼자서 해보도록 해야한다.				
5)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번, 2순위 ( )번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br><input type="checkbox"/> ③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br><input type="checkbox"/> ⑤ 자녀의 심리적 안정<br><input type="checkbox"/> ⑦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br><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input type="checkbox"/> ②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br><input type="checkbox"/> ④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br><input type="checkbox"/> ⑥ 자녀의 신체적 건강<br><input type="checkbox"/> ⑧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
|--|--|

7.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 ②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
- ③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 ④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 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 ⑥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 ⑦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다.
- ⑧ 기타( )

8. 귀하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녀로 기르는 것'을 선호하면 ①또는② 중 선호 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하고, '열정에 따라 사는 자녀로 기르는 것'을 선호하면 ④또는⑤ 중 선호 정도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자녀로 기르는 것	←————→ ① ② ③ ④ ⑤	열정에 따라 사는 자녀로 기르는 것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 ① ② ③ ④ ⑤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위를 보여주는 것

9. 귀하가 바라는 자녀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고등학교 졸업   | <input type="checkbox"/> ② 전문대 졸업  |
| <input type="checkbox"/> ③ 4년제 대학 졸업 | <input type="checkbox"/> ④ 석사학위 취득 |
| <input type="checkbox"/> ⑤ 박사학위 취득   | <input type="checkbox"/> ⑥ 상관없다    |

**IV. 육아 행복감**

1. 다음 중 부모로서/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 <input type="checkbox"/> ③ 자녀 돌봄과 지도 |
| <input type="checkbox"/> ②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 <input type="checkbox"/> ④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                                      |

2. 귀하는 다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생각한다.				

3.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이었습니다. 귀하는 영유아 자녀 양육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한다면 월평균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만원

4. 귀하는 영유아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와 국가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            | <input type="checkbox"/> ②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 |
| <input type="checkbox"/> ③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나머지 부모가 부담 | <input type="checkbox"/> ④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        |
|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                  |   |

5. 귀하는 자녀 양육이 어느 시기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임신기             | <input type="checkbox"/> ② 영아(0-2세)      | <input type="checkbox"/> ③ 유아(3-5세) |
| <input type="checkbox"/> ④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input type="checkbox"/> ⑤ 초등 고학년(4-6학년) | <input type="checkbox"/> ⑥ 중학생      |
| <input type="checkbox"/> ⑦ 고등학생            | <input type="checkbox"/> ⑧ 모르겠음          |                                     |

6. 귀하는 '노키즈존(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장소/업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찬성   | <input type="checkbox"/> ② 반대 |
| <input type="checkbox"/> ③ 모르겠음 |                               |

## V. 육아정책 인식 및 방향

- 귀하는 국가차원에서 육아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다음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모의 일·가정 양립  ②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③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지원  ④ 아이의 행복

⑤ 기타( )

※ 일·가정 양립: 일과 가정(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귀하는 정부가 육아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설계에 있어, 다음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② 0-5세 무상 보육·유아교육 이행

③ 모르겠음  ④ 기타( )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히 적용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방향성을 가지고 2019년 개정되어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잘 노는 것은 미래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② 놀기만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③ 유아들의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저하되어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

④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

⑤ 기타 ( )

⑥ 모르겠다.
-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2022년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② 국공립 기관의 확대는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해칠 것 같다.

③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일 것 같다.

④ 국공립 기관을 확대하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40%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⑤ 기타 ( )

⑥ 모르겠다.
-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은 오후 4시까지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의 전담교사가 담당하는 연장보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지원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담임교사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다.

② 담임교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서 보육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③ 담임교사와 전담교사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④ 영유아들이 일과 중 여러 교사를 만나게 되어 혼란스러울 것이다.

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⑥ 기타 ( )

⑦ 모르겠다.

6.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② 영유아 학대 위험아동 조기 발견 노력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④ 영유아 학대 시 처벌 강화       ⑤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홍보 강화  
 ⑥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⑦ 지속적인 교사, 부모 상담 지원  
 ⑧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양성과정 강화       ⑨ 기타(      )
7. 귀하는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왜 사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선택)  
 (※ 사교육은 학습과 예체능을 포함하며 유치원·어린이집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개인교습 등을 모두 포함)  
 ① 자녀가 원해서       ②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③ 자녀의 발달과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④ 다른 아이들이 하니깐 뒤쳐질까봐       ⑤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⑥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해서  
 ⑦ 어린이집·유치원 등 하원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⑧ 기타(      )
8.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대상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9. 현재 정부는 0-5세에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국가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는 영유아(0-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10으로)       ② 없다(※ 9-1로)       ③ 잘 모르겠다 (※10으로)
- 9-1. 세금 추가 부담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②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므로 내고 싶지 않아서  
 ③ 세금을 늘리기 전에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④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⑤ 다른 증세 방안(기업 법인세 증액 등)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서  
 ⑥ 기타(      )
10. 귀하는 정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문항 10-1로)       ② 어느 정도 지원하여야 한다 (※ 문항 10-1)  
 ③ 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11로)       ④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11로)  
 ⑤ 모르겠다 (※11로)

10-1. 정부가 출산육아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항목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②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 ③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
- ④ 비용 지원(유아원비, 양육수당 등)
- ⑤ 유치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연장
- ⑥ 자녀 건강 관련 지원(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확대
-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공기질 개선, 교통안전 등)
- ⑧ 영유아 문화 및 놀이시설 확대
- ⑨ 기타( )

11. 정부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만5세 누리과정, 20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로 0-5세 연령별로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는 양육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① 매우 바람직	② 바람직	③ 보통	④ 바람직하지 않음	⑤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1) 보육료·유아학비 전 계층 지원				(☞11-1로)	(☞11-1로)
2)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11-2로)	(☞11-2로)

11-1. 전 계층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 ② 세금 부담 가중 우려
- ③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히
- ④ 재정 지원 불안정
- ⑤ 기타( )

11-2.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에 따른 비용지원 정책에 차별화가 필요함
- ② 세금 부담 가중 우려
- ③ 비용 지원에도 부모 부담 여전히
- ④ 재정 지원 불안정
- ⑤ 기타( )

12. 귀하는 그동안 정부의 출산·육아 비용지원 정책이 추가 출산이나 출산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침
- ②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 ③ 보통
- ④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13. 귀하는 우리 사회가 영유아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14로)
- ② 그렇다(☞14로)
- ③ 보통(☞14로)
- ④ 그렇지 않다(☞13-1로)
- ⑤ 매우 그렇지 않다(☞13-1로)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돌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각 시도별 초중등학교의 출석 비율지침에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의 질문에 귀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초중등과 비교하여
- ① 보다 엄격한 기준(비율 축소 또는 폐쇄)이 적용  ②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 ③ 보다 느슨한 기준(비율 확대 적용)이 적용되어  ④ 방역 노력은 기울이되 인원 제한 없이  
원하는 모두에게 양육지원을 해야한다

※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폐쇄 및 제한적 운영으로 인하여 가정내 양육의 부담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시설(공원,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폐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실내 및 옥외 시설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 <실내 시설: 실내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
- ①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②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  
운영해야 한다
- ③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  ④ 가급적 폐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  
영 시간 등)만 허용한다
20. <옥외 시설: 공원, 광장 등>
- ① 방역을 강화하되 모든 시설을 평시와 다름없이  ② 입장 인원을 제한하되 정상적으로 운영  
운영해야 한다
- ③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시간(요일 및 하루 중 운  ④ 가급적 폐쇄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  
영 시간 등)만 허용한다
21. 현재 0~5세 영유아에 대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음  ② 약간 잘하고 있음
- ③ 보통  ④ 약간 잘못하고 있음  ⑤ 매우 잘못하고 있음

**VI. 개인 배경**

1. 본인(및 배우자)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 중퇴, 수료는 졸업이 아님)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 졸업                       ⑥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⑧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본인	배우자

2. 본인(및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③ 출퇴근하지 않음(재택,농어민)       ④ 휴직 중  
 ⑤ 무직(주부 포함)                       ⑥ 모름

본인	배우자

3. 본인(및 배우자)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고용주                       ② 자영업자  
 ③ 상용근로자                       ④ 임시근로자  
 ⑤ 일용근로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무직(무직, 군인, 학생, 주부 등)    ⑧ 모름

본인	배우자

4. 본인(및 배우자)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 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 노무 종사자  
 ⑩ 군인                       ⑪ 기타(                      )

본인	배우자

5. 귀하 가구의 월평균 총가구소득(세전 근로소득, 이자, 임대수입 등의 합)은 얼마입니까?

가구
만원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 부록 2. 수시 여론조사 설문지

### 2020 KICCE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주) 데이터스프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가정 내외에서의 취학 전 아동 학습 경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유아교육·보육·육아관련 연구·평가·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육아 정책 방향을 수립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학 전 아동의 학습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보호되오니, 소중한 정책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서 조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주관 및 조사기관

- 연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수행기관 : 데이터스프링

※ 조사관련 문의 : 담당연구원 윤병조 실장(dooka108@gmail.com)

□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통계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육 아 정 책 연 구 소

**1. 기초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3. 귀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4. 현재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⑥ 5명 이상

5. 다음 중 귀하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① 취학전(유치원, 어린이집 등 초등학교 입학전)

③ 중학생

② 초등학생

④ 고등학생

⑤ 대학생 이상

지금부터는 귀하께서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하고 있는 취학 전 자녀의 학습 경험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양육하고 있는 취학전 자녀 중 출생월과 출생일이 가장 빠른 자녀의 출생연도와 출생월을 선택해 주십시오.

6. 출생월과 출생일이 가장 빠른 취학 전 자녀의 출생연도

\_\_\_\_\_년

7. 출생월과 출생일이 가장 빠른 취학 전 자녀의 출생월

\_\_\_\_\_월



11. 귀하의 자녀는 지난 한 주간 귀하나 다른 가족 등과 함께, 혹은 혼자 다음 각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구분	① 매일 여러차례	② 매일 한 번	③ 주중 3~4회	④ 주중 1~2회	⑤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림책 읽기보기, 혹은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것 듣기					
TV 시청					
TV 로 DVD 나 비디오 시청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					
컴퓨터게임기, 태블릿 PC,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로 비디오 게임					
음악 연주 혹은 감상					
미술 및 공작활동					
실내에서 장난감, 보드게임 등 디지털 매체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한 놀이					
바깥놀이					

12. 귀하의 자녀는 다음의 각 활동을 어제 하루 동안 귀하나 다른 가족, 혹은 형제자매 등과 함께, 혹은 혼자 한 적이 있습니까? 어제 활동한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어제 자녀는 인쇄된 책자를 읽거나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것을 들었다
- 어제 자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전자책을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들었다
- 어제 자녀는 장난감, 보드 게임 등 디지털 매체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해 실내에서 놀았다
- 어제 자녀는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였다
- 어제 자녀는 바깥 놀이를 하였다
- 어제 자녀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였다
- 어제 자녀는 TV 수상기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 어제 자녀는 컴퓨터, 게임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하였다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교육용, 학습용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하였다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화상 통화를 했다
- 어제 자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활동 (예: 사진이나 직접 찍은 동영상 보기, 검색하기 등) 을 하였다
- 어제 하루 동안 자녀는 위 활동 중 어떤 활동도 한 적 없다

13. 어제 하루를 기준으로 귀하의 자녀는 다음의 각 활동을 귀하나 다른 가족, 혹은 형제 자매 등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자녀 혼자	응답자와	가정내 다른 어린이와 함께	가정내 다른 성인과 함께	기타 다른 사람과
* 12번 문항에서 선택한 응답					

14. 어제 하루를 기준으로 귀하의 자녀는 다음의 각 활동을 몇 분 동안 했습니까?

(단위: 분)

- 어제 자녀는 인쇄된 책자를 읽거나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것을 들었다 ( )
- 어제 자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전자책을 읽거나 읽어 주는 것을 들었다 ( )
- 어제 자녀는 장난감, 보드 게임 등 디지털 매체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해 실내에서 놀았다 ( )
- 어제 자녀는 그리기나 만들기를 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바깥 놀이를 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감상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TV 수상기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컴퓨터, 게임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을 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교육용, 학습용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하였다 ( )
- 어제 자녀는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으로 화상 통화를 했다 ( )
- 어제 자녀는 태블릿 PC, 스마트폰으로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활동 (예: 사진이나 직접 찍은 동영상 보기, 검색하기 등) 을 하였다 ( )
- 어제 하루 동안 자녀는 위 활동 중 어떤 활동도 한 적 없다 ( )

15. 지난 한 주간 자녀의 평균 수면시간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침 시각(0~24시) ( )
- 기상 시각(0~24시) ( )
- 하루 평균 수면 시간(시간) ( )

16. 귀하의 0000년 00월생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 혹은 소속은 어디입니까?

- 가정내 양육 ☞ 응답 종료
- 어린이집
- 유치원
- 기타 ( )

17. 귀하의 자녀는 코로나 발발 이후 재원중인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등에서 다음의 프로그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① 예	② 아니오
질문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할 때 담임 교사에게 연락할 방법을 안내받았다.		
기관으로부터 문서로 된 지원이나 활동 안내를 받았다.		

활동지 (활동 및 일정 등을 기록한 워크 시트) 혹은 온라인 활동지를 제공 받았다.		
컴퓨터나 휴대용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나 앱, 학습 활동 등을 제공받았다. (예: 전자책, 학습용 게임 등)		
교사가 자녀와 직접 소통하였다. 전화채팅 앱 등 음성 혹은 화상 통화)		
사전에 녹화된 동영상 강좌를 제공받았다.		
음식물 (식사) 을 제공받았다.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		

18. 자녀가 재원 중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가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원격 강의나 활동을 제공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제공받고 있다.
- ② 아니오, 기관에서는 원격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③ 해당 없음, 매일 출석하고 있다.

19. 귀하의 자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출석을 대체하기 위한 숙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제공받고 있다. ☞ 20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기관에서는 출석을 대체할 숙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 응답 종료
- ③ 해당 없음, 매일 출석하고 있다. ☞ 응답 종료

20. 귀하의 자녀는 얼마나 자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숙제를 받습니까?

- ① 매일
- ② 주중 3~4회
- ③ 주중 1~2회
- ④ 주중 1회 미만

21. 귀하의 자녀는 숙제를 하는 데에 1회당 평균적으로 몇 분이 소요됩니까?

숙제 소요시간 ( ) 분

22. 귀하의 자녀가 마친 숙제는 사진이나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부록 3. 수시1차 조사 미국 비교 설문지(NIEER)

Consent
<p>We at Rutgers University are asking for your help on an important national study that will enable us to learn more about pre-school aged children's learning experienc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home during this time. You have been randomly selected to share your thoughts. Your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 to us. The survey should take around 15 minutes.</p> <p>Your answers are confidential and will only be reported in combination with others. Your participation is voluntary, you may end at any time, and you may skip questions you do not want to answer without penalty. All data will be securely stored with access limited to members of our research team.</p> <p>Confidential means that the research records will include some information about you, and this information will be stored in such a manner that some linkage between your identity and the response in the research exists. All data will be stored on independent secured sites with access limited to members of the research team. After information that could identify you has been removed, de-identified information collected for this research may be used by or distributed to investigators for other research without obtaining additional permission from you.</p> <p>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research project, you may contact Rutgers' Eagleton Center for Public Interest Polling director Dr. Ashley Koning at 848.932.8995 or via email at <a href="mailto:poll@eagleton.rutgers.edu">poll@eagleton.rutgers.edu</a>.</p> <p>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your rights as a research subject, please contact an IRB Administrator at the Rutgers University, Arts and Sciences IRB:</p>

Institutional Review Board  
Rutgers Universit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Liberty Plaza / Suite 3200 335 George Street, 3rd Floor  
New Brunswick, NJ 08901  
Phone: 732-235-2866  
Email: [human-subjects@ored.rutgers.edu](mailto:human-subjects@ored.rutgers.edu)

## CHILD DEMOGRAPHICS

Read or was read to from a print book
1. Read or was read to on a tablet, phone, or e-reader
2. Played indoors with toys, blocks, games, or other materials not involving a screen (TV, phone, computer, tablet, etc.)
3. Made arts and crafts
4. Played outdoors
5. Listened to or playing music
6. Watched TV on a TV set
7. Watched videos or TV shows on a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8. Played games on a video game player,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9. Used learning or teaching programs or apps on a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10. Skyped or video-chatted on a smartphone or tablet (e.g., Facetime, Google Hangout)
11. Did anything else on a smartphone or tablet, such as took or looked at pictures or videos, looked up things, or used other types of apps not already covered

In this survey we would like to ask you about one child age 3, 4, or 5 who is currently living in your household at least half of the time.

To start, how many children age 3, 4, or 5 do you have currently living in your household?

NUMBER OF CHILDREN: [NUMERIC TEXTBOX, RANGE 0-10]

**Base: Q1=0 or REFUSED**

TERM [DISP]

Thank you, but we are only speaking to individuals with children age 3, 4, or 5 years old in their household.

**TERMINATE IF Q1=0 or REFUSED.**

**Base: All respondents**

**Q1c [S; prompt once]**

[IF Q1=1: And are you the parent or guardian of this child?] [IF Q1>1: And are you the parent or guardian of any child age 3, 4, or 5 years old currently living in your household?]

- ① Yes
- ② No

**Base: Q1>1**

**Q2 [DISP]**

Please list the month and year of birth for each child age 3, 4, or 5 years old in the household.

**Q2\_month [DROPDOWN]**

Response options

Response options

- ① January
- ② February
- ③ March
- ④ April
- ⑤ May
- ⑥ June
- ⑦ July
- ⑧ August
- ⑨ September
- ⑩ October
- ⑪ November
- ⑫ December

**Q2\_year [NUMERIC DROP DOWN, RANGE 2014-2017]**

Child 1, Month: [Q2\_month\_1] Year: [Q2\_year\_1]

Child 2, Month: [Q2\_month\_2] Year: [Q2\_year\_2]

*Scripter: If Q1>2, please continue to add rows like the above:*

*If Q1=3:*

*Child 3, Month: [Q2 month 3] Day: [Q2 day 3] Year: [Q2 year 3]*

*If Q1=4:*

*Child 4, Month: [Q2 month 4] Day: [Q2 day 4] Year: [Q2 year 4]*

*... etc.*

**Base: Q1=1**

**Q3 [DISP]**

Please list the month and year of birth for this child.

**Q3\_month [DROPDOWN]**

Response options

Response options

- ① January
- ② February
- ③ March
- ④ April
- ⑤ May
- ⑥ June
- ⑦ July
- ⑧ August
- ⑨ September
- ⑩ October
- ⑪ November
- ⑫ December

**Q3\_year [NUMERIC DROP DOWN, RANGE 2014-2017]**

**Month:** [Q3\_month] **Year:** [Q3\_year]

**Base: All respondents**

**Q1b [DISP]**

[IF Q1>1: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based on the child above whose birthday comes earliest in the calendar year, regardless of where their age falls in the 3 to 5 year-old range.]

First, some questions about household member interactions with the child.

## CHILD-family activities

Base: All respondents

### Q4 [N]

How many times have you or another household member read to the child in the pastweek?

[NUMERIC TEXTBOX, RANGE 0-99] times

Base: All respondents

### Q5 [G; banked]

In the past week, how many times have you or another household member done the following things with the child?

RANDOMIZE statements

- A. Told the child a story
- B. Sang songs with the child
- C. Taught letters, words, or numbers to the child
- D. Worked on arts and crafts with the child

- ① Not at all
- ② 1 or 2 times
- ③ 3 or more times

Base: All respondents

### Q6 [G; accordion]

Thinking about lastweek, how often, if ever ,did the child do each of the following activities, whether on their own or with someone else?

RANDOMIZE statements

- A. Read or was read to or looked at a picture book
- B. Watched TV
- C. Watched DVDs or videos on a TV
- D. Watched videos on a computer or mobile device (like a smartphone or tablet)

- E. Played video games on a computer, handheld device, console, tablet, smartphone or other device (like a DS)
- F. Listened to or played music
- G. Made artwork or crafts
- H. Played indoors with toys, games, or materials that did not use a digital device
- I. Played outdoors

- ① Several times a day
- ② Once a day
- ③ Several times during the week
- ④ Once or twice during the week
- ⑤ Never

### Base: All respondents

#### Q7 [G; multi-punch accordion]

Thinking about yesterday, please indicate whether or not the child did each of the following activities on their own, with you, with another adult in your household, or with another child in your household. Check all that apply.

RANDOMIZE statements

- A. Read or was read to from a print book
- B. Read or was read to on a tablet, phone, or e-reader
- C. Played indoors with toys, blocks, games, or other materials not involving a screen (e.g., TV, phone, computer, tablet, etc.)
- D. Made arts and crafts
- E. Played outdoors
- F. Listened to or played music
- G. Watched TV on a TV set
- H. Watched videos or TV shows on a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 I. Played games on a video game player,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 J. Used learning or teaching programs or apps on a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 K. Skyped or video-chatted on a smartphone or tablet (e.g., Facetime, Google Hangout, Zoom, etc.)
- L. Did anything else on a smartphone or tablet, such as took or looked at pictures or videos, looked up things, or used other types of apps not already covered

- ① On their own
- ② With you
- ③ With another adult in household
- ④ With another child in household
- ⑤ With someone else
- ⑥ Did not do this activity yesterday [EXCLUSIVE]

Base: If any of Q7\_A-M=1-5

**Q8 [G; Numeric]**

Still thinking about yesterday, how much time did the child spend on each of the following activities, whether on their own or with you or someone else in the household? Record the approximate number of total minutes the child spent on each. Just take your best guess.

*RANDOMIZE Q8\_A-M in same order as Q7\_A-M.*

*IF Q7\_A=1-5, show Q8\_A.  
IF Q7\_B=1-5, show Q8\_B.  
IF Q7\_C=1-5, show Q8\_C.  
IF Q7\_D=1-5, show Q8\_D.  
IF Q7\_E=1-5, show Q8\_E.  
IF Q7\_G=1-5, show Q8\_G.  
IF Q7\_H=1-5, show Q8\_H.  
IF Q7\_I=1-5, show Q8\_I.  
IF Q7\_J=1-5, show Q8\_J.  
IF Q7\_K=1-5, show Q8\_K.  
IF Q7\_L=1-5, show Q8\_L.  
IF Q7\_M=1-5, show Q8\_M.*

**PRE-school/Child care arrangements**

Base: All respondents

**Q9 [S]**

Now for a few questions about the child's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arrangements.

Did the child attend a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program on a regular basis in the past six (6) months prior to any closure due to the coronavirus, also known as COVID-19? This includes regular care and early childhood programs, whether or not there is a charge or fee, but not occasional baby-sitting or backup care providers.

- ① Yes  
 ② No

Base: Q9=1

**Q10 [S]**

In what type of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program has the child spent the most time?

- ① Head Start  
 ② A day care center  
 ③ A nursery school  
 ④ A preschool  
 ⑤ A pre-kindergarten  
 ⑥ A kindergarten  
 ⑦ Something else (Specify) [TEXTBOX]

Base: Q9=1

**Q11 [S]**

Where is the program physically located?

- ① Your home  
 ② Someone else's home  
 ③ A church, synagogue, or other place of worship  
 ④ A public school  
 ⑤ A private school  
 ⑥ Its own building  
 ⑦ Some other place (Specify) [TEXTBOX]

Base: Q9=1

**Q12 [N]**

Think about the child's attendance before the coronavirus outbreak. On average, how many days each week did the child typically go to that program?

[NUMERIC; RANGE 1-7] days each week

Base: Q9=1

**Q13 [N]**

Think about the child's attendance before the coronavirus outbreak. On average, how many hours each week did the child typically go to that program?

[NUMERIC; RANGE 1-168] hours each week

Base: Q9=1

**Q14 [S]**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hild's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program given the coronavirus outbreak?

- ① The program's physical location is still open
- ② The program's physical location is temporarily closed
- ③ The program's physical location is permanently closed

Base: Q14=1

**Q15 [S]**

Is the child still attending their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program in person?

- ① Yes, on the same schedule as before the outbreak
- ② Yes, but on a different schedule than before the outbreak
- ③ No, but they are attending a different program in person
- ④ No, they are not attending any program in person

Base: Q14=2 or 3

**Q16 [DROPDOWN]**

Approximately when did the child's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program close its physical location du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Even if you do not know the exact date, take your best guess based on your recollection.

**Q16\_month [DROPDOWN]**

Response options

- ① January
- ② February
- ③ March
- ④ April
- ⑤ May

**Q16\_day [NUMERIC DROP DOWN, RANGE 1-31]**

Month: [Q16\_month] Day: [Q16\_day]

*If [Q16\_month=4 AND Q16\_day=31], prompt: Please enter a valid date.  
If [Q16\_month=2 AND Q16\_day>29], prompt: Please enter a valid date.*

**PRE-school DISTANCE LEARNING**

Base: Q14=2 or 3

**Q17 [G; banked]**

Have you received any of the following from the child's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program since it closed its physical location du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If the child's program has already come to an end for summer break, please answer based on what the child experienced remotely from the time their program was physical location was closed to just before summer break.

RANDOMIZE statements

- A. ① Instructions on how to contact the child's teacher for questions or continued support

- B. Written or paper-based support and/or activities from school
- C. Worksheets (or web links to worksheets)  
Digital support and/or online learning activities, programs, or apps for computer
- D. or mobile device based learning (e.g., digital books, learning games, Epic, ABCya!, BrainPOP Jr.)
- E. Teacher communication with children (e.g., via phone, Zoom, or other type of audio or visual chat tool)
- F. Pre-recorded video lessons
- G. Meals
- H. Something else (Specify) [TEXTBOX] [ANCHOR]

- ① Yes
- ② No

Base: Q14=2 or 3

**Q18 [S]**

Does the child's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program currently provide any distance learning classes or activities? Remember, if the child's program has already come to an end for summer break, please answer based on what the child experienced remotely from the time their program was physically closed to just before summer break.

- ① Yes
- ② No

Base: Q18=1

**Q19 [G; accordion]**

How often does the child participate in each of the following distance learning classes or activities that may be provided by their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program? Remember, if the child's program has already come to an end for summer break, please answer based on what the child experienced remotely from the time their program was physically closed to just before summer break.

## RANDOMIZE statements

- A. Listening to a story online, on audio, or on video
- B. Learning apps or games on computer, tablet, smartphone or other digital device
- C. Reading alone or with an adult or older sibling
- D. Completing worksheets
- E. Visiting with a teacher by video chat (such as Zoom, Google Hangouts, etc) one-on-one
- F. Activities with classmates by video chat (such as Zoom, Google Hangouts, etc)
- G. Math or science focused activities including experiments, measuring, counting, and collecting
- H. Art (coloring, drawing, cutting, pasting, etc.) or crafts
- I. Singing, playing or listening to music
- J. Physical activity either indoors or outdoors (e.g., exercises, running, etc), playing games (e.g., Simon Says), or taking a nature walk
- K. Something else (Specify) [TEXTBOX] [ANCHOR]

- ① Every day
- ② Several times each week
- ③ Once or twice a week
- ④ Less than once a week
- ⑤ Never
- ⑥ Not offered

Base: Q18=1

## Q20 [S]

Has the child been assigned any mandatory remote assignments from their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program? Remember, if the child's program has already come to an end for summer break, please answer based on what the child experienced remotely from the time their program was physically closed to just before summer break.

- ① Yes
- ② No

Base: Q20=1

**Q21 [S]**

How often has the child been assigned mandatory remote assignments from their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program? Remember, if the child's program has already come to an end for summer break, please answer based on what the child experienced remotely from the time their program was physically closed to just before summer break.

- ① Every day
- ② Several times each week
- ③ Once or twice a week
- ④ Less than once a week

Base: Q20=1

**Q22 [N]**

On average, how much time does the child spend on mandatory remote assignments during a typical day? Just take your best guess and record the approximate number of minutes the child spends. Please enter "0" (zero) if the child does not spend any time on mandatory assignments. Remember, if the child's program has already come to an end for summer break, please answer based on what the child experienced remotely from the time their program was physically closed to just before summer break.

[NUMERIC TEXTBOX: RANGE 0-999] minutes per day

Base: Q20=1

**Q23 [S]**

Are you required to electronically send or upload these assignments back to the child's program once completed?

- ① Yes
- ② No

Base: Q20=1

Q24 [S]

Do you or the child receive feedback from a teacher on these assignments?

- ① Yes
- ② No

Base: All respondents

Q25 [S]

Does the child have an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for special needs (e.g., speech therapy)?

- ① Yes
- ② No

Base: Q25=1

Q26 [S]

Does the child still receive services required by the IEP, whether or not their childcare, pre-school, or kindergarten program has been closed during the coronavirus outbreak?

- ① Yes, receives full support
- ② Somewhat, receives partial support
- ③ No, receives no support

Base: All respondents

Q27 [S]

Is the child of Spanish, Hispanic, or Latino origin?

- ① Yes
- ② No

Base: All respondents

**Q28 [S]**

Please choose one or more race(s) that you consider the child to be.

Select all answers that apply.

- ① White
- ② Black or African American
- ③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 ④ Asian
- ⑤ Native Hawaiian or other Pacific Islander
- ⑥ Some other race (specify) [TEXTBOX]

Base: All respondents

**END [DISP]**

That completes our surve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and cooper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may contact Dr. Ashley Koning (pronounced Cone-ing) at 848-932-8940.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your rights as a research participant, you may contact the administrator of the Rutgers Institutional Review Board at 732-235-2866.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Ⅳ)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